

www.kocha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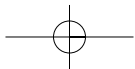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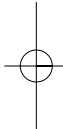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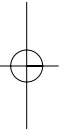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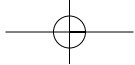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2018-2019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통상백서



K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목 차

발간사

I. 미국시장 개황

1. 일 반	10
2. 정 치	14
3. 경 제	15
4. 산업구조	16
5. 미국 시장 특성	18

II. 미국 경제현황

1. 실물 경제	
(1) 개 요	24
(2) GDP 성장률	25
(3) 경 기	26
(4) 고용시장	30
(5) 주택시장	31
2. 금융 시장	
(1) 금 리	33
(2) 주 가	35
(3) 환 율	36
3. 대외 거래	
(1) 수출입 총괄	40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41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43
(4) 한미 교역 현황	45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일 반	50
(2) 한국의 업종별 대미 직접투자	51
(3)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52
(4) 투자 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53

III. 한미통상현황

1. 한미 FTA 개정 협상

(1) 한미 FTA 개정협상의 배경	56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과	60
(3)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내용	60
(4)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 합의	62
(5) 한미 FTA 개정협상 평가	63
(6)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출입 현황	63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 무역전쟁의 배경	67
(2) 미국의 대중국 무역현황	67
(3) 무역전쟁의 현황	70
(4) 무역전쟁의 주요 이슈	73
(5) 무역전쟁의 전망	74

3. USMCA 현황

(1) USMCA 출범 배경	75
(2) USMCA 주요 내용	75
(3) USMCA에 대한 평가	78
(4)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수출입 동향	79

4. 미국과 EU간 통상 갈등

(1) 미국과 EU의 무역현황	84
(2) 미국과 EU의 통상갈등	86
(3) 미국과 EU간 합의에 대한 평가	87

I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1.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1) 배경	91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93
(3)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93

2.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1) 배경	95
(2) 진행 상황 및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97
(3) 향후 전망	99

3. 미·중 ‘무역 전쟁’

(1) 배경	100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102
(3) 향후 전망	103
(4) 관련 지원사항	104

4. 세이프가드: 세탁기

(1) 쟁점사항 및 배경	107
(2) 최근 상황	109
(3) 향후 전망	110

5. 세이프가드: 태양광

(1) 쟁점사항 및 배경	111
(2) 최근 상황	112
(3) 향후 전망	113

6. 비자

(1) 주재원 비자(L-1)	115
(2)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	117
(3) E-1/E-2 비자 체류기간 연장	117
(4) 전문인 취업비자(H-1B)	118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1. LG전자	124
2. 삼성전자	125
3. 두산중공업	126
4. 중소기업진흥공단	127
5. 포스코	128
6. Kotra/LG 생활건강	129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1. 각 지역별 협회 소개	132
2. 각 지역별 협회 회원사 현황	136

VII.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활동 사항

143

발간사



통상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1992년 세계 수출시장 여건악화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활동을 강화하고자 미한국상공회의소(이하 KOCHAM)가 태동하였습니다.

올해 26주년이 된 KOCHAM은 미국 진출 지상사들의 친목과 정보교환 등 초기 활동에서 한미무역증진과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 관련 건의 및 교섭 등으로 활동을 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최근 대미 통상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시간, 조지아, 서북미지상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미주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미수출은 큰 시련과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세탁기, 태양광 등의 세이프가드, 그리고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부터 주재원 비자의 심사 강화 등 어려운 관문을 여러 차례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 안목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OCHAM은 이에 따라 워싱턴DC Door-knock 행사를 통해 대표단을 구성, 의회 및 관련 연방기관들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 현황과 기여도를 소개하고 각종 통상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문 이후에도 정부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는 물론, 회원사 애로사항 등을 정리해 해당 연방정부와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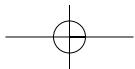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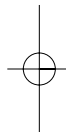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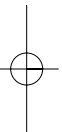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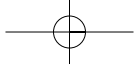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올해 다섯 번째 발간되는 [2018-2019 KOCHAM 통상백서]는 뜻깊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KOCHAM 출판분과위원회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KOCHAM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통상 개선 활동과 더불어 해외기업협의체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 주 완



I. 미국시장 개황

1. 일 반
2. 정 치
3. 경 제
4. 산업구조
5. 미국시장 특성



1. 일반

(1) 지리적 요건

미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미주대륙 북부에 위치해 있다. 국토 면적은 983만 3,517km²이며 러시아 1,709만 8,242km²와 캐나다 998만 4,670km²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다(한반도의 약 45배, 남한의 95배). 미국은 50개 주와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으며, 괌,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제도 등 해외속령과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인 마셜제도, 캐롤라인 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동쪽에는 카리브해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8,893km²(알래스카 국경 2,477km² 포함) 길이의 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3,155km²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2) 기후

넓은 국토 면적을 보유한 국가답게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북위 40° 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가 24°가 나는 대륙인만큼 기후 차이가 심하다. 본토의 남쪽은 아열대성 기후,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서남쪽은 사막기후, 동북쪽은 온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하와이는 열대성 기후, 알래스카는 한대성 기후를 형성하고 있다.

(3)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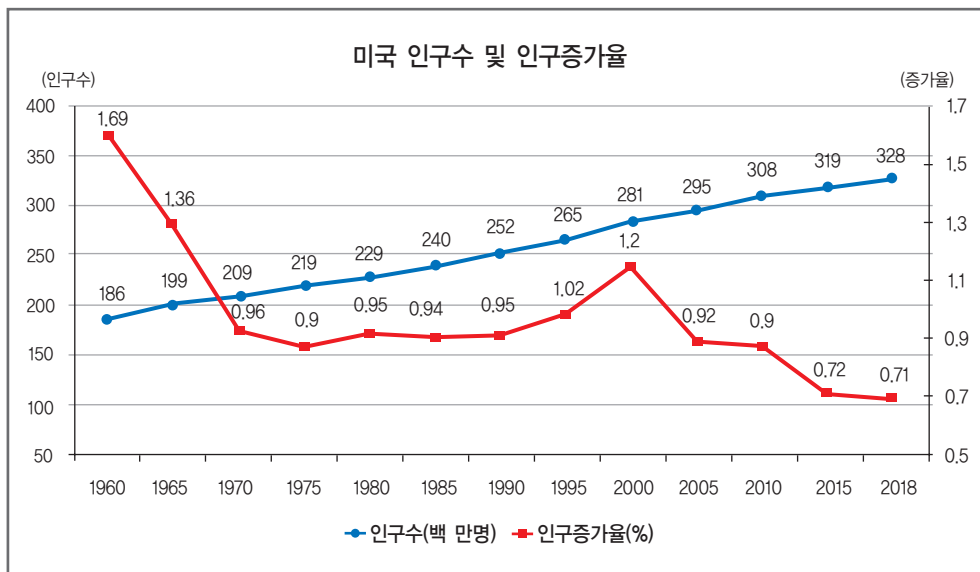
2018년 11월 세계 전체 인구는 약 75억 3,552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는 4.36%에 해당하는 약 3억 2,906만 명이다. 이는 중국(약 13억 8,468만 명), 인도(약 12억 9,683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한국 5,163만 명).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0.71%이며 인구밀도는 km² 당 36명이다. 평균 수명은 80세(남자 77.7세, 여자

82.2세)이다. 전체 인구의 약 82.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피닉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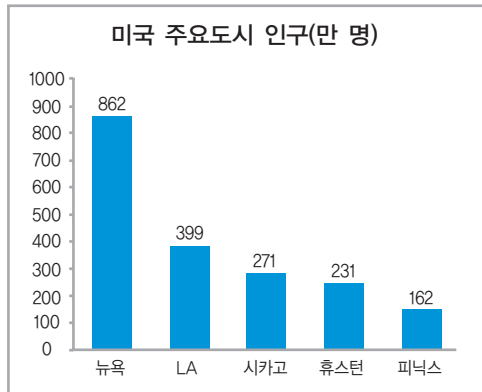
미국 인구 현황

연도	인구수	인구증가율	중위연령	출생률	도시인구비율
2018년	329,063,091	0.71%	37.8	1.88	82.80%
2015년	319,929,162	0.72%	37.6	1.88	82.90%
2010년	308,641,391	0.90%	36.9	2.05	81.70%
2005년	295,129,501	0.92%	36.1	2.04	80.80%
2000년	281,982,778	1.20%	35.2	2.00	79.80%
1995년	265,658,849	1.02%	34.0	2.03	77.90%
1990년	252,529,950	0.95%	32.8	1.91	75.90%
1985년	240,824,120	0.94%	31.4	1.80	74.80%
1980년	229,763,052	0.95%	30.0	1.77	73.90%
1975년	219,205,296	0.90%	29.0	2.03	73.70%
1970년	209,588,150	0.96%	28.4	2.54	73.70%
1965년	199,815,540	1.36%	30.3	3.31	71.80%
1960년	186,808,228	1.69%	29.8	3.58	6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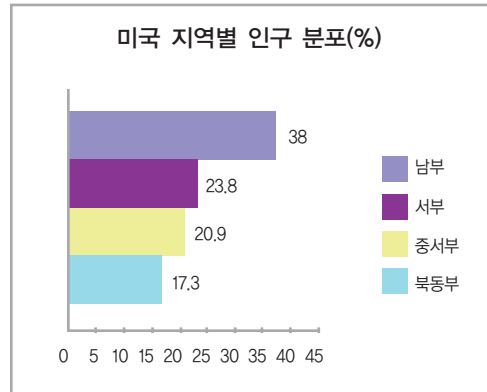
■ 자료: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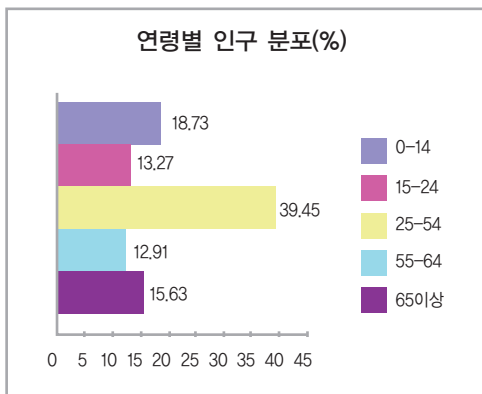
I제 1장 미국시장 개황



■자료: 미센서스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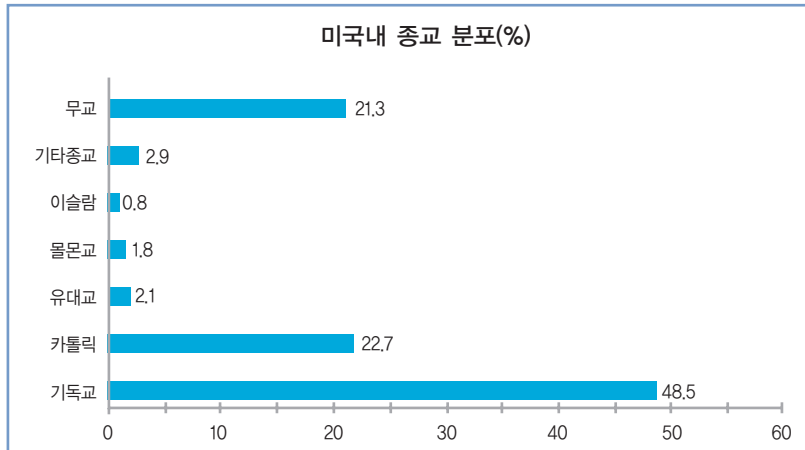
■자료: 미센서스국(2017)



■자료: CIA World Factbook(2017)

(4) 종교

다수의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특성상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으나, 유럽 이민자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개신교(48.5%)와 가톨릭(22.7%) 신자가 다수 존재하며, 유대교(2.1%), 몰몬교(1.8%), 이슬람교(0.8%) 신자가 존재한다.



■ 자료: Gallup(2017)

(5) 언어

전체 인구의 79%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페인어(13%), 인도-유럽어(3.7%),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언어(3.4%) 그리고 기타 언어(1%)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스페인어를 통용하고 있다.

미국 일반사항 개요

국 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면 적	983만 3,517km ² (50개 주 및 특별구 포함)
위 치	미주대륙 북부(서경 66° 57' ~124° 44' / 북위 25° 7' ~49° 23')
인 구	3억 2,906만 명
민 족	백인(72.4%), 흑인(12.6), 아시아계(4.9%),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기타(2.3%)
종 교	기독교(48.5%), 가톨릭(22.7%), 유대교(2.1%), 몰몬교(1.8%), 이슬람교(0.8%), 기타(2.9%), 무교(21.3%)
언 어	영어(79%), 스페니쉬(13%), 그 외(8.1%)
국가표어	우리는 신(神)을 믿는다(In God We Trust)
국 가	성조기여 영원하라(The Star-Spangled Banner)
상 징	흰머리 독수리

■ 자료: 미상무부, 미센서스국, CIA World Factbook

2. 정치

미국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및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제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국가정책 입안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대 최고 통수권자,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로 50개 주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되며 개별 선거구를 대표하고 상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2년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다시 선출한다. 사법부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뉘진 이원적 사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권한 및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 개요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Donald J. Trump (2017년 1월 20일 취임)
의회	양원제(상원: 100석, 임기: 6년 / 하원: 435석, 임기: 2년)
주요정당	공화당, 민주당
사법체계	이원화(연방/주)
독립일	1776년 7월 4일
UN가입일	1945년 10월 24일
국제기구가입	IMF, G-8, OECD, IDB, NATO, APEC, IAEA, WTO 등

■자료: CIA World Factbook

3. 경제

미국의 경제 체제는 민간기업의 자율과 정부의 통제가 조화된 자본주의적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산업기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혁신, 국내외 투자활동, 자유무역 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어 있다.

미국 경제 개요

국내총생산(GDP)	19조 3,910억 달러(2017년 명목 GD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3,129달러(2017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3.5%(2018년 3분기)
실업률	3.7%(2018년 10월)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5%(2018년 10월 포함 12개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2.9%(2018년 10월 포함 12개월)
환율	US\$1 = 1,132.50(2018년 11월 26일, 매매기준환율)
부채	21조 7,692억 달러(2018년 11월 21일 기준)
외환보유고	1,237억 2,900만 달러(2018년 9월)
연간 수출액	2조 3,510억 달러(2017년)
	1조 8,889억 달러(2018년 9월 누적)
연간 수입액	2조 9,033억 달러(2017년)
	2조 3,341억 달러(2018년 9월 누적)

■ 자료: 미상무부, 미경제분석국(BEA), 미노동통계국(BLS), World Bank

4. 산업구조

2018년 국내총생산(Value Added 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전년대비 0.4%p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2.2%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은 1차 산업(0.8%), 2차 산업(18.7%), 3차 산업(68.4%)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금융 및 부동산(20.7%), 전문 비즈니스(12.6%), 교육 및 복지(8.7%), 도매(6.0%), 소매(5.5%) 등 3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농업 및 어업(0.8%), 광업(1.6%), 제조업(11.4%) 등 1차 및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산업별 구성비

(단위:%)

산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2분기)
국내총생산		100	100	100	100
공공 부문		12.9	12.9	12.6	12.2
	연방	4.0	4.0	3.9	3.7
	주/지방	8.9	8.9	8.7	8.5
민간 부문		87.2	87.2	87.4	87.8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1.0	0.9	0.9	0.8
2차산업	광업	1.4	1.2	1.4	1.6
	공공시설	1.6	1.6	1.6	1.6
	건설	3.8	4.0	4.0	4.1
	제조업	11.7	11.1	11.2	11.4
3차산업	도매업	6.3	6.1	6.0	6.0
	소매업	5.6	5.6	5.6	5.5
	운송, 물류 유통	3.1	3.1	3.1	3.2
	정보	5.0	5.3	5.4	5.5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20.6	21.0	20.8	20.7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2.3	12.3	12.5	12.6
	교육, 헬스 케어, 복지	8.6	8.8	8.7	8.7
	예술, 공연, 음식	4.0	4.1	4.1	4.1
	기타 서비스	2.2	2.1	2.1	2.1

■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11/1 발표자료

주요 산업의 생산현황(2012년=100,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지수)을 살펴보면, 2009년 전체 산업생산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2분기) 114.29를 기록하였다. 2018년 민간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14.963을 기록하였다. 공공시설은 2017년까지 100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101.665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15.892를 기록하였다. 2018년 제조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110.311을 기록하였다. 공공부문은 재정적자 감축 정책의 영향으로 지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99.052)에 이어 2015년(99.071)에도 100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100.074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100.803, 2018년 100.741로 100 이상을 유지하였다.

미국 주요부문별 생산지수

[단위: 지수(2012=100.000)]

산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2분기)
국내총생산		104.339	107.345	109.027	111.445	114.290
공공 부문		99.052	99.071	100.074	100.803	100.741
민간 부문		104.59	107.855	109.617	111.973	114.963
1차산업	농업, 어업, 수렵	117.229	125.07	130.438	124.175	120.795
2차산업	광업	114.27	123.838	117.925	119.653	119.786
	공공시설	94.753	94.206	98.932	97.916	101.665
	건설	103.855	108.21	111.839	112.716	115.892
	제조업	104.088	104.653	103.426	105.952	110.311
3차산업	도매업	106.377	110.669	109.418	111.767	113.973
	소매업	104.687	108.159	112.306	116.797	120.483
	운송, 물류 유통	104.199	106.843	108.108	112.458	114.918
	정보	111.375	123.989	137.04	146.805	158.217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102.078	104.466	105.62	105.698	106.005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05.774	109.026	111.004	115.681	120.976
	교육, 헬스케어, 복지	103.124	106.384	108.985	110.82	113.834
	예술, 공연, 음식	105.419	107.75	108.347	110.329	111.638
	기타 서비스	101.973	102.775	102.076	102.591	104.432

■ 자료: 미경제분석국(BEA), 11/1 발표자료

5. 미국 시장 특성

(1) 일반

IMF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017년 경상 GDP는 19.3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력의 24.4%를 차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7년 세계수입액 17.7조 달러의 16.38%인 2.9조 달러를 기록해 세계 최대 수입시장의 자리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5만 3,129달러로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이 풍부한 시장이다. 일부 수입규제가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세계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기업들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2) 시장 특징 및 소비자 성향

미국 시장은 단일국가 시장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시장구조를 띄고 있다. 소득 수준, 인종, 세대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패턴으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화된 틈새시장이 병존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 경기침체 이후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과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기존 상품보다 더 나은 품질, 더 저렴한 가격, 차별화된 상품을 구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3) 주요 소비층의 구매력 상승

미국 소비의 중심이 중산층에서 중상위층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소비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US Census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소득 5분위 배율에서 5분위(최상위 20%)의 연소득은 12만 6,856달러 이상으로 미국 전체 소득의 51.5%를 차지하여 구매력이 가장 큰 소비층으로 부상하였다. 1972년에서 2017년 사이 소득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소득의 하향이동보다는 상향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분위(상위 41~60%)와 소득 4분위(상위 21~40%)는 1972년 각각 전체 소득의 17.0%, 24.5%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각각 14.3%, 23.0%로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소득 2분위(하위 21~40%)와 소득 1분위(하위 20%)도 감소하였다. 반면, 소득 5분위는 동기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서 51.5%로 증가하였다. 중상위층의 성장으로 인해 저가 소비재에 대한 소비에서 중·고가 소비재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 소비자 특징

Pew Research에 따르면 1971년에서 2015년 사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소득 비중이 26.7% 증가하면서 이들의 구매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의 65세 이상 노동자 고용률은 19.2%로 196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밀레니엄 세대가 2015년 7,540만 명을 기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7,49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미국 소비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니엄 세대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OECD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기 보다 렌트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같은 소비성향은 공유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7.1%를 차지하는 히스패닉의 경우 최근 10년 내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60년에는 전체인구의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일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10년 간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소매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 세대별 특징

베이비 부머	현 황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전체인구의 26%를 차지 가장이 55세 이상인 가구가 4,700만개 정도로 주요 소비계층으로 성장 미국 전체 부의 60% 보유/ 총 소비자지출의 40% 차지
	특 징	육아지출이 사라지면서 높은 가처분소득(연간 지출액 2.3조 달러 추정) 능숙한 인터넷 사용, 적극적인 외모 및 건강관리, 각별한 손주사랑 식품(92%), 가정용품(73%), 의류(56%) 등의 성장을 주도
밀레니엄	현 황	1980 초반~1990년대 후반 태생. 전체인구의 23.5% 차지 2020년까지 소비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특 징	구매력 상승(연간 지출액 1.3조 달러)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며, 인터넷 사용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해 자신의 신념, 가치 등이 투영되는 브랜드 구매 전문가보다는 가족, 친구, 유명인사에 따른 구매 선호 브랜드 참여도가 높고, 감각쇼핑, 편의성을 중시 (2020년까지 미국 소비의 약 1/3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
히스패닉	현 황	전체 인구의 17.1% 차지(2060년에는 31% 예상)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 조나, 뉴저지, 콜로라도 주에 거주 향후 10년 동안 히스패닉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미국 소매 부문 지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특 징	젊은 연령층(히스패닉 중간연령은 27세). 구매력 상승세(연간지출액 1.2조 달러), 오감 쇼핑, 브랜드 제품 선호. 가족, 친구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 자료: 미센서스국, KOTRA

(5) 교육수준 향상과 인터넷 사용자 증가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6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학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은 33.4%로 1940년의 4.6%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도 2016년에는 89.1%로 2006년의 85.5%에 비해 3.6%p 증가하였다. Pew Research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인터넷 사용 비율은 2000년 50%에서 2016년에는 88%로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1년 35%에서 2016년 77%로 증가했다. 교육수준 향상과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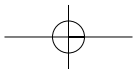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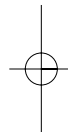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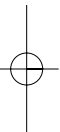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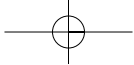
(6) 연구개발 투자 및 신기술 보유

미국의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연간 5천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예산요구안 규모는 4.1조 달러로 재량지출은 이 중에서 30.4%인 1.1조 달러이며 재량지출의 9.5%인 1,180억 달러가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다. Forbes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 중 50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7) 미국 시장 동향에 대한 접근

미국 시장 동향	접근 방법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보호무역주의 정책 변화 주시 필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
혁신기술 관련 시장 창출	혁신기업의 신기술(3D 프린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동향 파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모색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낙후된 공공인프라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준비하면서 건설서비스, 철강, 기계 등 수요 확대 분야 집중 공략
밀레니엄 세대의 영향력 확대	다민족, 다문화 밀레니엄 세대에 맞는 현지화 전략 추구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	온라인 소매시장 지각 변동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 자료: KOTRA



II. 미국 경제현황

1. 실물 경제

- (1) 개 요
- (2) GDP성장률
- (3) 경 기
- (4) 고용시장
- (5) 주택시장

2. 금융 시장

- (1) 금 리
- (2) 주 가
- (3) 환 율

3. 대외 거래

- (1) 수출입 총괄
-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 (4) 한미 교역 현황

4. 한미간 투자 현황

- (1) 일 반
- (2) 한국의 업종별 대미직접투자
- (3) 투자자 규모별 대미직접투자
- (4) 투자 비율별 대미직접투자

1. 실물 경제

(1) 개 요

2018년 미국경제는 고용여건 및 경제심리 호조 지속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고용시장에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경기와 고용시장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2% 수준의 상승을 유지하였다.

미국 GDP 및 주요부문별 성장률

(전기대비, %)

내역	2016년	2017년	201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GDP 성장률	1.6	2.3	2.2	4.2	3.5
개인소비	2.7	2.5	0.5	3.8	4.0
상품	3.6	3.7	-0.6	5.5	5.8
(내구재)	5.5	6.8	-2.0	8.6	6.9
(비내구재)	2.7	2.1	0.1	4.0	5.2
서비스	2.3	2.0	1.0	3.0	3.2
민간국내총투자	-1.3	4.8	9.6	-0.5	12.0
고정투자	1.7	4.8	8.0	6.4	-0.3
(비주거)	0.5	5.3	11.5	8.7	0.8
(구조물)	-5.0	4.6	13.9	14.5	-7.9
(설비)	-1.5	6.1	8.5	4.6	0.4
(거주)	6.5	3.3	-3.4	-1.3	-4.0
수출	-0.1	3.0	3.6	9.3	-3.5
수입	1.9	4.6	2.4	-0.6	9.1
정부 소비지출	1.4	-0.1	1.5	2.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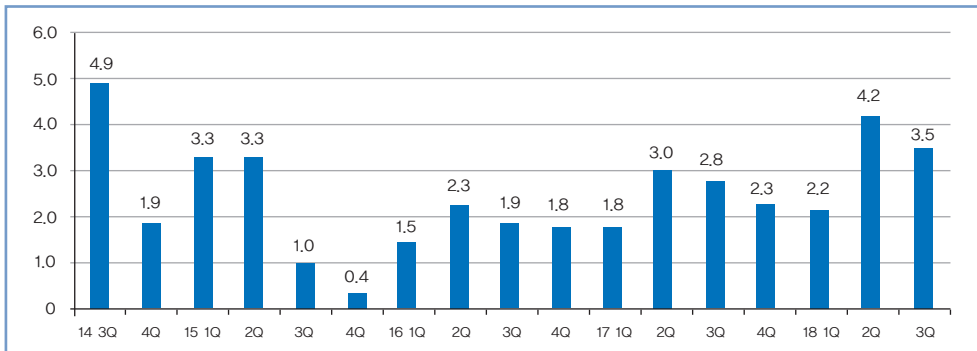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0/26 발표자료

(2)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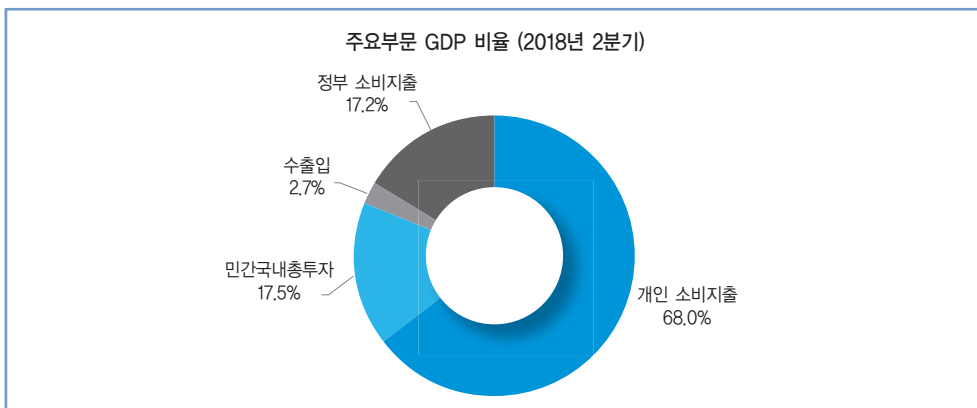
2018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2%로 2017년 4분기 2.3%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개인소비와 주택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업투자가 호조를 이어가고 순수출은 확대되었다. 1분기 GDP 성장률의 하락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다른 분기에 비해 낮은 경향과 소득세 환급 지연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분기 GDP 성장률은 2014년 3분기의 4.9% 이후 가장 높은 4.2%를 기록하였다. 주택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개인소비와 순수출이 확대되고 기업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3분기 GDP 성장률은 3.5%로 전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개인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재고투자는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4-2018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0/26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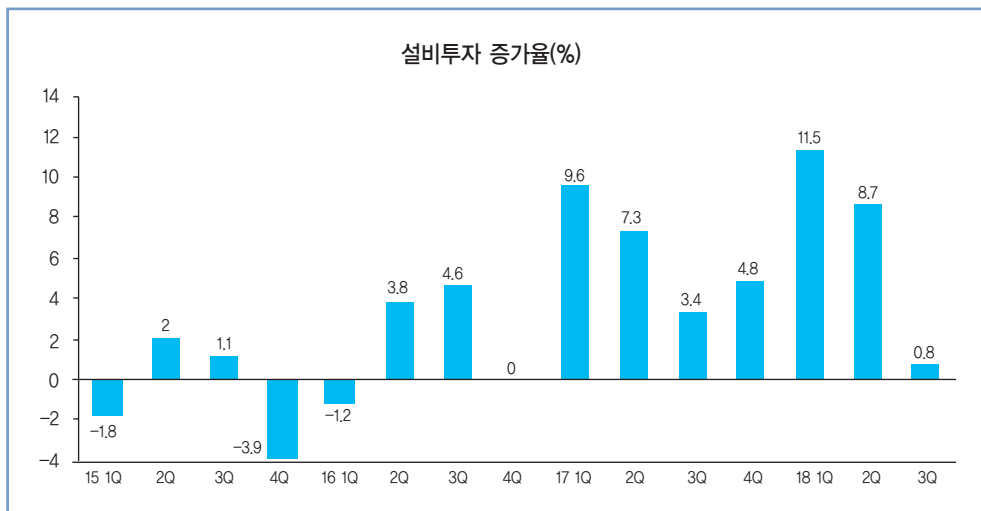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0/26 발표자료

(3) 경 기

■기업 설비투자

2018년 1분기 기업설비투자(비거주 기준)는 전년도 4분기(4.8%)에서 대폭 확대된 11.5%를 기록하였다. 2분기 8.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3분기 0.8%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17년 1분기의 9.6% 증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대내외 수요 증가와 미국 제조업의 경영환경 개선,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이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주: 비주거용 고정투자

자료: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0/26 자료

■산업생산 및 설비 가동률

2018년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도 4분기에 이어 2.5% 증가하였으며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5.3%, 3.3% 증가하였다.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설비가동률은 1~3분기 각각 77.2%, 77.8%, 78.3%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제조업의 경우 각각 75.3%, 75.5%, 75.9%를 기록하였다.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 추이

(전기대비, %)

구 분	2015년	2017년				2018년		
		1/4	2/4	3/4	4/4	1/4	2/4	3/4
산업생산	-1.9	1.0	5.0	-1.5	7.7	2.5	5.3	3.3
(제조업)	-0.8	1.9	2.4	-2.1	5.3	1.9	2.3	3.5
설비가동률	75.3	75.4	76.2	75.8	77.0	77.2	77.8	78.3
(제조업)	74.6	74.6	74.9	74.4	75.2	75.3	75.5	75.9

■ 자료: 미연준(FRB), 11/16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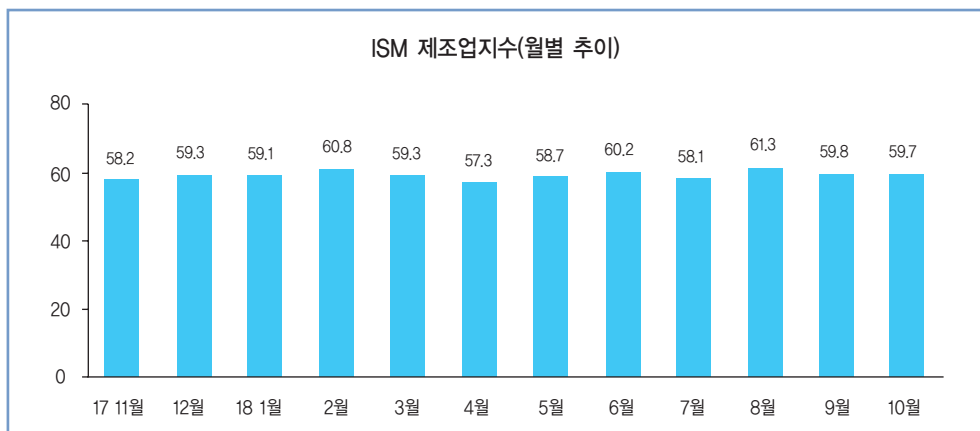
ISM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는 1월에 59.1을 기록하면서 전월의 59.3에 이어 높은 수준의 확장국면(50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후에도 신규주문, 생산 등을 중심으로 높은 확장국면을 유지하였다. 2월에는 60.8을 기록하며 2004년 5월의 6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61.3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확장국면을 유지하였다.

ISM 제조업지수 추이

내 역	2016년	2017년	2018년		
			1/4	2/4	3/4
ISM 제조업지수	51.4	57.0	59.7	58.7	59.7

■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1/1 발표자료



■ 주: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미국 제조업 경기 확장을, 50이하일 경우 수축을 의미
 자료: 미공급관리자협회(ISM), 10/2 발표자료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 개인소득

2018년 들어 개인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월 전월대비 0.5% 증가를 시작으로 매월 0.3~0.4%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9월에는 0.2% 증가하였다.

■ 소비자심리

1월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2월 13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월과 4월 소폭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5월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6월~7월 다소 후퇴하였다. 8월과 9월 각각 134.7, 135.3을 기록하면서 2000년 10월 13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개인소비 지출

개인소비는 1월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세금환급이 늦어지고 전년도 4분기의 호조에 따른 반사효과 등의 영향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다. 3월 전월대비 0.6%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소매판매

소매판매는 1월 자동차, 휘발유, 건축자재, 식품 서비스 판매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가 저조하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다. 2월 0.1% 증가하였으며 3월 0.7% 증가하면서 2분기의 소비지출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월 0.3% 증가하였으며 고용호조와 긍정적 소비심리가 소비지출로 반영되면서 5월 1.2%로 크게 증가하였다. 6월과 7월 각각 0.2%, 0.7% 증가하였으나 8월과 9월 각각 0.1%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소매판매 증가는 최저수준의 실업률과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한 것으로 미국 경제의 강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 매출 및 개인소비 추이

(단위: 전월대비, %)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개인소득	0.4	0.5	0.3	0.4	0.3	0.4	0.4	0.3	0.4	0.2
소비자신뢰지수 ¹⁾	98.5	95.7	99.7	101.4	98.8	98.0	98.2	97.9	96.2	100.1
소비자신뢰지수 ²⁾	123.1	124.3	130.0	127.0	125.6	128.8	127.1	127.9	134.7	135.3
개인소비지출	0.3	0.2	-0.1	0.6	0.5	0.5	0.4	0.5	0.5	0.4
소매판매	0.0	-0.1	0.1	0.7	0.3	1.2	0.2	0.6	-0.1	-0.1

■ 주: 1)미시건대 기준, 2)컨퍼런스보드 기준

자료: 미상무부, 노동통계청(BLS), 미시건대, 컨퍼런스보드

■물가

2018년 물가는 경기 및 고용시장의 지속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 유가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1월 PCE 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발하였다. 2월 서비스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PCE 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상승하였으며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5월 근원 PCE물가 상승률은 고용호조, 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2012년 4월 2.0% 이후 처음으로 2.0%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9월까지 2.0%를 유지하였다.

PCE 물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근원 PCE물가	1.5 (0.2)	1.5 (0.3)	1.5 (0.2)	1.8 (0.2)	1.8 (0.2)	2.0 (0.2)	2.0 (0.1)	2.0 (0.2)	2.0 (0.0)	2.0 (0.2)
PCE 물가	1.7 (0.1)	1.8 (0.3)	1.9 (0.1)	2.1 (0.1)	2.0 (0.2)	2.3 (0.2)	2.3 (0.1)	2.3 (0.1)	2.2 (0.1)	2.0 (0.1)
소비자물가지수 (CPI)	2.1 (0.2)	2.1 (0.5)	2.2 (0.2)	2.4 (-0.1)	2.5 (0.2)	2.8 (0.2)	2.9 (0.1)	2.9 (0.2)	2.7 (0.2)	2.3 (0.1)

■ 주: ()는 전월대비(%)

자료: 미노동통계국, 미상무부 경제분석국, 10/29 자료

(4) 고용시장

고용시장은 2016년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으로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다.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실업률

2018년 실업률은 1월 4.1%로 시작하여 4월 3.9%로 하락하였다. 특히 5월 3.8%까지 하락하면서 1969년 12월의 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9월과 10월에는 3.7%까지 하락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잠재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제활동 참가율

1월 62.7%로 시작하여 2월과 3월에 각각 63.0%, 62.8%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62.8%로 하락하였다. 5월 62.7%로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3.8%를 기록하였다. 6월과 7월 각각 62.9%를 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62.7%로 감소하였으나 10월 62.9%로 상승하였다.

■ 비농업취업자수

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 1월 17.6만 명 증가하였으며 2월 32.4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취업자수 개선이 견고함을 나타냈다. 3월 날씨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15.5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4월 17.5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5월과 6월 각각 26.8만 명, 20.8만 명을 기록하였다. 7월과 8월 각각 16.5만 명, 28.6만 명을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10월 25만 명을 기록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 주당 평균노동시간 및 평균임금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1월 34.3시간을 기록하였으며 2월 이후 6월(34.6시간)과 9월(34.4시간)을 제외하고 10월까지 34.5시간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임금은 1월 21.32달러로 시작해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10월에는 21.68달러를 기록하였다.

고용시장 주요지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비농업취업자수증가(만명)	17.6	32.4	15.5	17.5	26.8	20.8	16.5	28.6	11.8	25.0
실업률(%)	4.1	4.1	4.1	3.9	3.8	4.0	3.9	3.9	3.7	3.7
경제활동참가율(%)	62.7	63.0	62.9	62.8	62.7	62.9	62.9	62.7	62.7	62.9
주당평균노동시간(시간)	34.3	34.5	34.5	34.5	34.5	34.6	34.5	34.5	34.4	34.5
제조업 평균 임금(달러/시간)	21.32	21.30	21.36	21.53	21.38	21.37	21.41	21.49	21.62	21.68

■ 자료: 미노동통계청

(5) 주택시장

2018년 주택시장은 점진적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 고용호조, 가계소득 개선 등에 따른 주택가격, 건설경기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판매, 모기지 신청은 다소 둔화되었다.

■ 기존주택판매

2018년 1월 기존주택판매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월대비 3.2% 감소하였다. 2월과 3월 각각 전월대비 3.0%, 1.1% 증가하였다. 4월 이후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0월 전월대비 1.4% 증가하였다. 소득 개선에 따른 주택 구매력은 상승하였으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거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신규주택판매

2017년 신규주택판매는 1월 전월대비 7.8% 감소하면서 시작하였다. 2월 전월대비 0.6% 감소하였으나 고용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 등 긍정적 여건이 지속되면서 3월과 5월 각각 4.0%, 6.7% 증가하였다. 6월과 7월 각각 전월대비 5.3%, 1.7% 감소하였으나 8월 전월대비 3.5% 증가하였다. 모기지 금리 및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9월과 10월 각각 전월대비 5.5%, 8.9% 감소하였다.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 주택허가건수 및 주택착공건수

주택허가건수는 1월 전월대비 7.4% 증가하였으나 2월 들어 전월 급증에 따른 반사 효과로 전월대비 5.7% 감소하였다. 3월 전월대비 2.5% 증가하였으나 4월~6월 각각 전월대비 1.8%, 4.6%, 2.2% 감소하였으며 6월 이후에도 증감을 반복하였다. 주택착공건수는 1월 전월대비 9.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월 전월대비 7.0% 감소하였다. 3월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6월에는 전월대비 12.3% 감소한 반면 8월 전월대비 9.2% 증가하였다.

미국 주택시장 현황

(전월대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존주택판매	-3.2	3.0	1.1	-2.5	-0.7	-0.6	-0.7	-0.2	-3.4	1.4
신규주택판매	-7.8	-0.6	4.0	-1.5	6.7	-5.3	-1.7	3.5	-5.5	-8.9
잠정주택판매	-4.7	3.1	0.4	-1.3	-0.5	0.9	-0.7	-1.8	0.5	-2.6
주택허가건수	7.4	-5.7	2.5	-1.8	-4.6	-2.2	1.5	-5.7	-0.6	-0.6
주택착공건수	9.7	-7.0	1.9	-3.7	5.0	-12.3	0.9	9.2	-5.3	1.5

■ 자료: 미부동산증개인협회(NAR), 미센서스국

■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S&P Case-Shiller 지수)

고용시장 안정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주택공급 부족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주요도시 평균주택가격은 1월 전년동기대비 6.4% 상승하였으며 2월과 3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6.8% 상승하였다. 4월~6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6.6%, 6.5%, 6.3%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 각각 전월대비 5.9%, 5.5%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미국 2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현황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0.8	0.8	0.5	0.2	0.2	0.2	0.1	0.1
전년동기대비	6.4	6.8	6.8	6.6	6.5	6.3	5.9	5.5

■ 자료: S&P

2. 금융시장

2018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경제지표 호조 등의 상승요인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상승요인과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우려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이 반복되었다. 달러화는 약세로 출발하였으나 미국 금리 상승,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및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1) 금리

■ 시장금리

2018년 시장금리(국채 10년)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 유럽 금리의 큰 폭 상승, 장기국채 발행물량 확대 전망 등으로 상승하면서 시작하여 2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장기에산안 의회 통과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3월 소폭 하락하였다. 4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내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5월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다. 7월 미국-EU 무역협상 타결과 주가 상승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8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소폭 하락하였다. 9월 이후 국내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I제 2장 미국 경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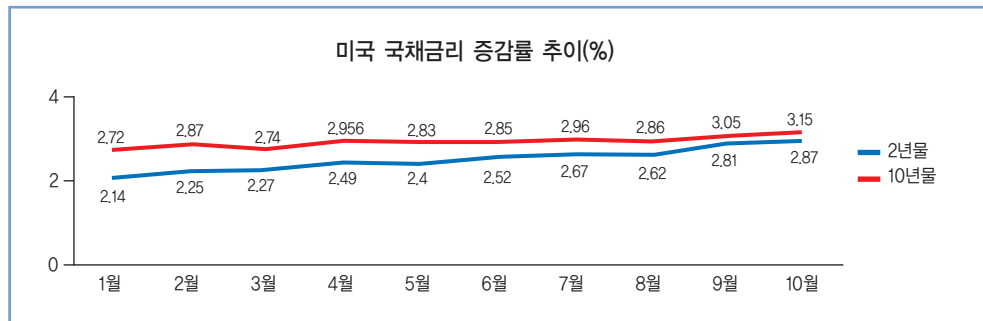
미국 국채금리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채 3개월물	1.39	1.46	1.65	1.73	1.87	1.93	1.93	2.03	2.11	2.19	2.34
국채 2년물	1.89	2.14	2.25	2.27	2.49	2.4	2.52	2.67	2.62	2.81	2.87
국채 5년물	2.2	2.52	2.65	2.56	2.79	2.68	2.73	2.85	2.74	2.94	2.98
국채 10년물	2.4	2.72	2.87	2.74	2.95	2.83	2.85	2.96	2.86	3.05	3.15
국채 30년물	2.74	2.95	3.13	2.97	3.11	3.0	2.98	3.08	3.02	3.19	3.39

■ 주: 해당 월말 기준

자료: 미연준(FRB) 11/21 자료



■ 회사채 스프레드

2018년 회사채 스프레드는 1월 82로 축소되었으나 2월과 3월 각각 90, 100으로 확대되었으며 5월과 6월 각각 104, 110으로 확대되었다. 7월 99로 축소되었으나 8월 103으로 확대되었다. 9월 97로 축소되었다가 10월 108로 다시 확대되었다. TED 스프레드는 1월 0.32% 확대되었으나 2월 0.31% 축소되었으며 3월과 4월 각각 0.48%, 0.59%로 확대되었다. 5월 이후 축소되었으며 9월과 10월에는 각각 0.22%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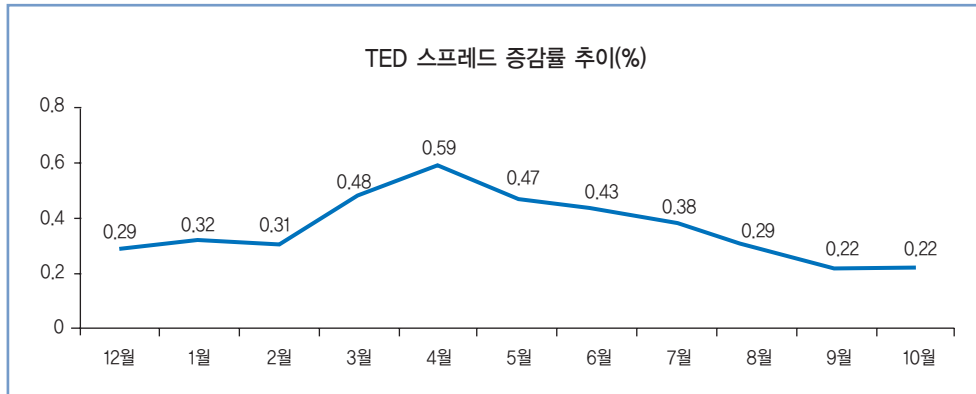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현황

(단위: bp)

구 분	2017년	20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회사채 스프레드	92	82	90	100	99	104	110	99	103	97	108

■ 주: 해당 월말 기준,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자료: 미연준(FRB) 11/16 자료

(2) 주가

주가(다우존스)는 1월 양호한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하였으나 월말 장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다. 2월 금리 인상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시장금리 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3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였다. 4월과 5월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낙관적 경제전망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나 6월 중순 이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하였다. 7월 기업실적 개선, 미국과 EU간 무역협상 타결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며 8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9월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10월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 약화 등이 작용하면서 급락하였다.

미국 주가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우존스	26,029	25,029	24,103	24,163	24,416	24,271	25,415	25,965	26,458	25,116
나스닥	7,411	7,273	7,063	7,066	7,422	7,510	7,672	8,110	8,046	7,357

■ 주: 해당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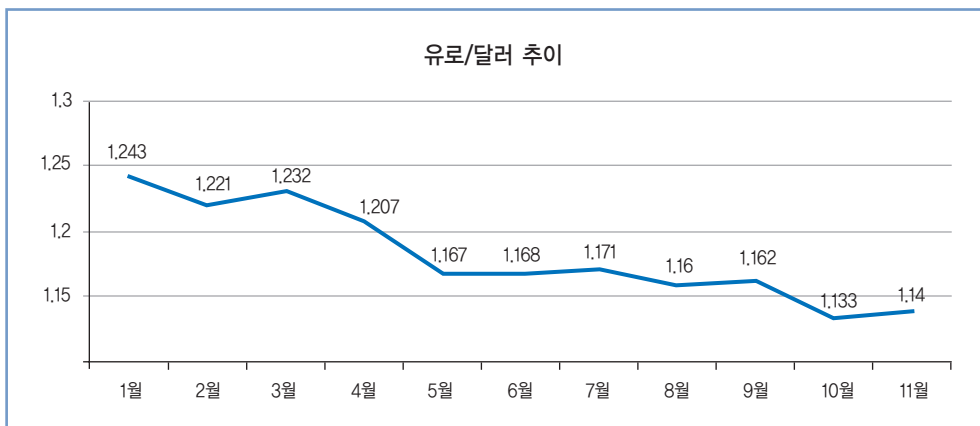
I제2장 미국 경제현황

(3) 환율

미 달러화는 2018년 연초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나타냈으나 미국 금리 상승,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부진과 불확실성 증가,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의 요인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유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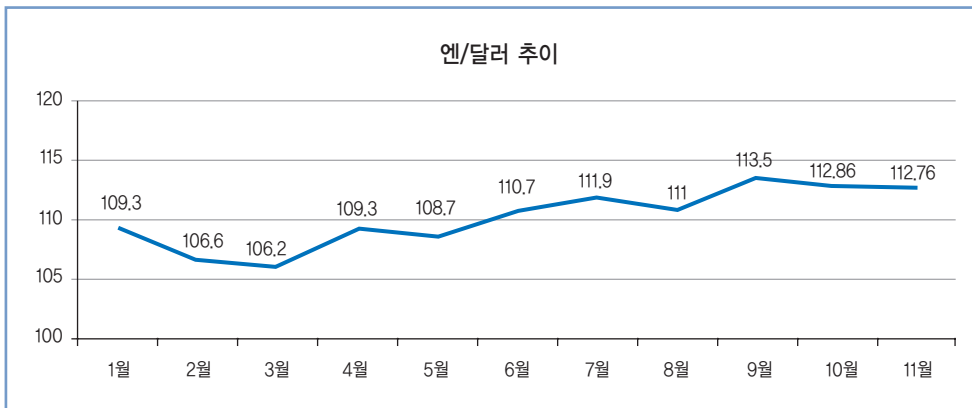
유로화에 대해서는 1월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으로 약세로 출발하였다. 2월 세계 증시 등락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강세로 전환되었으나 3월 보호무역 조치 및 외교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4월 무역분쟁 우려 완화, 국채금리 상승,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5월 고용지표 호전, 국채금리 상승세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였다. 6월 양호한 경제지표의 강세요인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7월 양호한 경제지표, 국채금리 상승 등의 강세요인과 미국과 EU간 무역협상 타결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8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심화, Hard Brexit 우려,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의 강세요인과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상 타결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전월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9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무역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10월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대체로 강세를 유지하였다.



■ 주: 해당 월말 및 11월 16일 기준
자료: 미연준(FRB)

■ 엔화/달러

엔화에 대해서는 1월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주의 강화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약세로 출발하였다. 2월 안전자산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 증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로 약세를 나타냈다. 3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및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4월 미국·중국간 무역분쟁 우려 완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유럽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었다. 5월 약세를 보였으나 6월 미국 양호한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다. 7월 국채금리 상승, 양호한 경제지표 등의 강세요인과 미국과 EU 무역협상 타결 등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을 보였다. 8월 미국·중국간 무역분쟁 심화, Hard Brexit 우려, 신흥국의 금융 불안 등의 강세요인과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상 타결의 약세요인이 교차하면서 전월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9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무역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경우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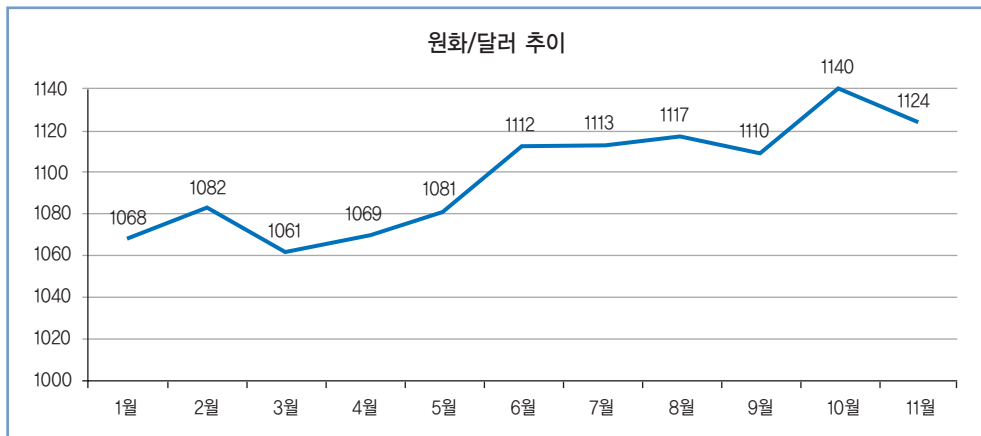


■ 주: 해당 월말 및 11월 16일 기준
자료: 미연준(FRB)

I제2장 미국 경제현황

■ 원화/달러

2018년 원달러 환율은 1월 들어 미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다가 2월 들어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3월 달러화 움직임과 투자심리 변화에 따라 하락하였으며 4월 달러화 강세와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였다. 5월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리스크 완화로 소폭 상승하였다. 6월과 7월 달러화 강세 및 무역분쟁 확대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8월 무역분쟁 심화,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다. 9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기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10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



■ 주: 해당 월말 및 11월 16일 기준
자료: 미연준(FRB)

미국 환율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유로/달러	1,243	1,221	1,232	1,207	1,167	1,168	1,171	1,160	1,162	1,133	1,140
엔/달러	109.3	106.6	106.2	109.3	108.7	110.7	111.9	111.0	113.5	112.86	112.76
원화/달러	1068	1082	1061	1069	1081	1112	1113	1117	1110	1140	1124

■ 주: 해당 월말 및 11월 16일 기준
자료: 미연준(FRB)

3. 대외 거래

(1) 수출입 총괄

■ 미국의 무역 규모

2017년 세계 수출은 17조 5,300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8.82%에 해당하는 1조 4,54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17조 7,713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3.18%에 해당하는 2조 3,4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세계 수출(6월 기준)은 9조 5,865억 달러로 미국의 수출은 전체의 8.66%에 해당하는 8,29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입은 9조 5,865억 달러로 미국의 수입은 전체의 12.87%에 해당하는 1조 2,3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수출규모 및 미국 수출규모

(십억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세계수출	16,390.26	15,841.91	17,530.04	9,586.50
미국수출	1,504.57	1,453.69	1,545.60	829.96
미국비중	9.18	9.18	8.82	8.66
순위	2	2	2	2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세계 수입규모 및 미국 수입규모

(십억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세계수입	16,596.43	16,192.48	17,771.34	9,586.53
미국수입	2,241.66	2,189.17	2,342.66	1,233.89
미국비중	13.51	13.52	13.18	12.87
순위	1	1	1	1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수 출

수출 규모는 2010년 전년대비 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015년 전년대비 7.15% 감소한데 이어 2016년 전년대비 3.38% 감소하였다. 2017년 전년대비 6.32%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6.64% 증가하였다.

수 입

수입은 201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들어 감소하였다. 2010년 2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201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전년대비 4.51% 감소하였으며 2016년 전년대비 2.34% 감소하였다. 2017년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19.20% 증가하였다.

미국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수출	1,504,571 (-7.15)	1,453,698 (-3.38)	1,545,605 (6.32)	829,963 (9.64)
수입	2,241,663 (-4.51)	2,189,177 (-2.34)	2,342,665 (7.01)	1,233,899 (19.20)
수지	-737,092	-735,479	-797,060	-403,936

■ 주: ()는 전년대비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2) 주요 국가별 수출입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브라질 등이다. 2018년(6월 누적) 미국의 전체 교역은 2조 638억 달러이며, 주요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은 1조 3,618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65.9%를 차지하였다. 10대 교역국의 교역액을 기준으로 중국(23.04%), 캐나다(22.9%), 멕시코(22.07%)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4.59%)은 7위를 기록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입

(백만 달러, %)

순위	전체 및 국가명	수출액	수입액	수지	교역액	비중
	10개국 총계	534,525	827,363	-292,837	1,361,888	100.0
1	중국	64,018	249,739	-185,721	313,757	23.04
2	캐나다	151,924	159,967	-8,043	311,891	22.9
3	멕시코	131,283	169,322	-38,039	300,605	22.07
4	일본	35,670	70,296	-34,625	105,966	7.78
5	독일	29,379	62,335	-32,956	91,714	6.73
6	영국	33,946	29,298	4,648	63,244	4.64
7	한국	27,066	35,425	-8,359	62,491	4.59
8	프랑스	18,096	25,664	-7,568	43,760	3.21
9	네덜란드	24,194	10,741	13,453	34,935	2.57
10	브라질	18,949	14,576	4,373	33,525	2.46

■ 주: 2018년 6월 누적 교역액 기준
 자료: kita.net

■수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등으로 2017년 미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는 브라질, 홍콩, 한국, 중국으로 각각 전년대비 22.4%, 14.7%, 14.2%, 12.6% 증가하였다. 2018년(6월 누적) 홍콩(-4.4%)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으로 각각 전년대비 23.4%, 14.4%, 12.5%, 10.7%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백만 달러, %)

순 위	국 가 명	2017년		2018년(6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1	캐나다	282,472	6.2	151,924	8.9
2	멕시코	242,989	5.2	131,283	10.5
3	중국	130,370	12.6	64,018	8.1
4	일본	67,696	7.0	35,670	8.9
5	영국	56,329	1.7	33,946	23.4
6	독일	53,493	8.4	29,379	12.5
7	한국	48,277	14.2	27,066	10.7
8	네덜란드	42,230	4.6	24,194	14.4
9	홍콩	40,024	14.7	19,696	-4.4
10	브라질	37,077	22.4	18,949	9.9

■ 주: 2018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자료: kita.net

■수 입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등으로 2017년 수입 증가율은 영국(-2.3%)을 제외하고 주요 수입국의 전년대비 수입이 증가하였다. 브라질(12.4%), 중국(9.2%), 싱가포르(9.0%), 캐나다(7.9%), 멕시코(6.8%) 등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으로 2.3% 감소하였다. 2018년(6월 누적) 한국(-0.6%)을 제외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는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독일, 멕시코, 중국으로 각각 전년대비 47.3%, 11.7%, 11.5%, 10%, 9.2%, 8.6%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백만 달러, %)

순 위	국 가 명	2017년		2018년(8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1	중국	505,597	9.2	249,739	8.6
2	멕시코	314,045	6.8	169,322	9.2
3	캐나다	299,975	7.9	159,967	6.4
4	일본	136,544	3.3	70,296	5.3
5	독일	117,745	3.1	62,335	10.0
6	한국	71,164	1.8	35,425	-0.6
7	영국	53,075	-2.3	29,298	11.5
8	프랑스	48,888	4.5	25,664	11.7
9	브라질	29,427	12.4	14,576	3.9
10	싱가포르	19,397	9.0	13,703	47.3

■ 주: 2018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자료: kita.net

(3) 주요 품목별 수출입

2018년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은 상업용 비행기이며, 10대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전년대비 133.2% 증가하였다. 미국의 수입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10대 수입품목 중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면역용품으로 전년대비 4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 출

미국의 수출품목 1위(수출액 기준)는 상업용 비행기로 2017년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2017년 전년대비 164.5%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133.2% 증가하며 10대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은 2017년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나 2018년(6월 누적) 0.7% 증가하였다. 반면 의료기기는 2017년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2018년(6월 누적) 4.0% 감소하였다.

미국 주요 수출 품목별 현황

(백만 달러, %)

순 위	HS코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6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1	8800	상업용 비행기	121,120	0.3	62,519	9.2
2	2710	석유화학	77,841	21.5	45,124	22.8
3	8703	승용차 및 기타 차량	53,581	-0.4	27,724	0.7
4	8708	자동차용 부품	44,949	4.9	23,169	2.7
5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21,825	164.5	20,234	133.2
6	8542	저가수출품추정치 (비캐나다산)	38,125	8.5	18,790	1.8
7	9880	전화기 및 영상 송수신기	35,149	6.2	18,303	9.1
8	8517	의료기기	34,006	0.5	15,976	-4.0
9	9018	데이터자동처리기	26,526	0.4	14,229	8.7
10	8471	의약품	25,344	4.2	13,114	10.9

■ 주: 2018년 6월 누적 수출액 기준

자료: kita.net

■수 입

미국의 수입품목 1위(수입액 기준)는 자동차로 2017년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원유는 2017년 전년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2017년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31.1% 증가하였다. 면역 용품은 2017년 전년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전년대비 48.4% 증가하였다. 10대 수입품목은 2017년 자동차 및 2018년(6월 누적) 의약품이 전년대비 각각 1.5%, 3.8%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17과 2018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미국 주요 수입 품목별 현황

(백만 달러, %)

순 위	HS코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6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1	8703	자동차	177,149	3.4	85,901	-1.5
2	2709	원유	132,945	30.5	77,177	13.7
3	8517	유·무선 통신기기	111,989	7.7	50,740	2.0
4	8471	컴퓨터	84,024	9.4	43,822	16.6
5	3004	의약품	64,599	-3.8	35,804	9.8
6	9801	골동품, 예술품	66,408	4.3	34,900	7.1
7	8708	자동차 부품	65,064	0.0	34,782	5.9
8	2710	석유화학	46,263	17.8	29,386	31.1
9	3002	면역물품	25,894	28.8	18,655	48.4
10	8542	전자집적회로	33,372	8.9	17,456	6.1

■ 주: 2018년 6월 누적 수입액 기준
 자료: kita.net

(4) 한미 교역 현황

■ 한미 교역 규모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2017년 수출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입 기준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었으나 2018년(9월 누적)에는 수출 기준과 수입 기준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교역국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대미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9년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18.8%)과 수입(-24.3%)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수출(32.3%)과 수입(39.1%)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 상품 교역규모는 2011년 1,007억 달러에서 2013년 1,0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역 규모가 확대되었다. 2015년과 2016년 대미수출 및 수입이 모두 감소되면서 교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17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대미수입은 507억 달러로 17.4%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17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9월 누

제2장 미국 경제현황

적)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7.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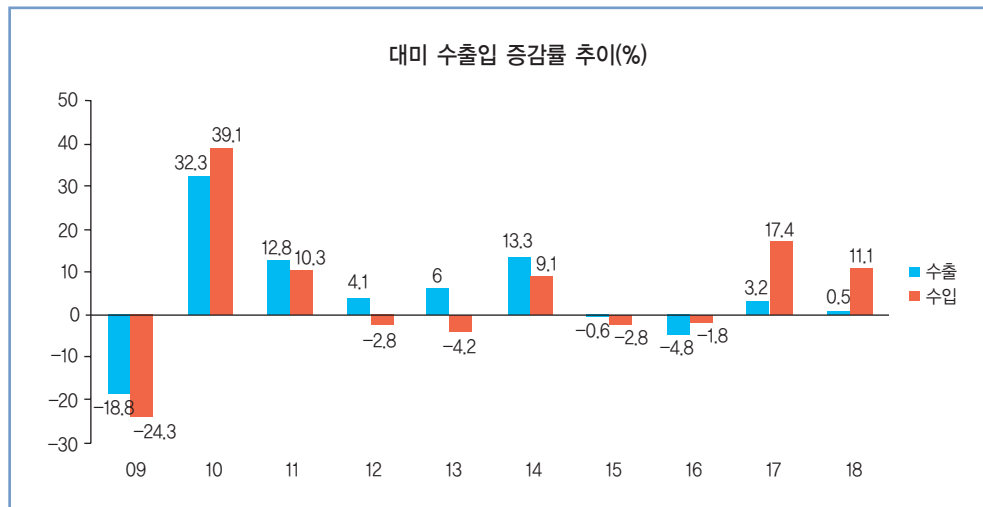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한국의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200억 달러, 2015년에는 250억 달러로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 232억 달러, 2017년 178억 달러로 흑자폭이 감소되었으며, 2018년(9월 누적) 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미 교역 추이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금 액
2009년	37,650	-18.8	29,039	-24.3	8,610
2010년	49,816	32.3	40,403	39.1	9,413
2011년	56,208	12.8	44,569	10.3	11,639
2012년	58,525	4.1	43,341	-2.8	15,184
2013년	62,052	6.0	41,512	-4.2	20,541
2014년	70,285	13.3	45,283	9.1	25,002
2015년	69,832	-0.6	44,024	-2.8	25,808
2016년	66,462	-4.8	43,216	-1.8	23,246
2017년	68,610	3.2	50,749	17.4	17,861
2018년(9월 누적)	52,477	0.5	43,050	11.1	9,427

■ 자료: kita.net



■ 주: 전년대비
자료: kita.net

■ 품목별 수출 현황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2017년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2018년(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5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1위는 차량 및 부속품으로 2017년에는 전년대비 9.3% 감소한 198억 달러, 2018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13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원자로 및 보일러(26.4%), 광물성 연료(29.7%), 플라스틱(16.4%), 철강제품(45.5%), 유기화학품(11.5%)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전기기기(8.9%), 고무(3.9%), 철강(18.2%), 기기(3.6%)는 감소하였다. 2018년(9월 누적) 원자로 및 보일러(12%), 전기기기(5.7%), 광물성 연료(3.7%), 플라스틱(12.2%), 철강(13.5%), 유기화학품(44.8%), 기기(13%)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29%), 고무(6.9%)는 감소하였다.

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9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총계	68,610	3.2	52,477	0.5
1	87	차량 및 부속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19,816	-9.3	13,525	-12.0
2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14,019	26.4	11,756	12.0
3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12,513	-8.9	9,643	5.7
4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142	29.7	2,710	3.7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467	16.4	2,086	12.2
6	73	철강 제품	2,645	45.5	1,462	-29.0
7	40	고무 및 그 제품	1,753	-3.9	1,273	-6.9
8	72	철강	1,374	-18.2	1,215	13.5
9	29	유기화학품	1,096	11.5	1,095	44.8
10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 부분품과 부속품	1,291	-3.6	1,090	13.0

■ 자료: kita.net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 품목별 수입 현황

한국의 대미수입액은 2017년 전년대비 17.4% 증가한 507억 달러였으며, 2018년(9월 누적)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4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입 품목 1위는 2017년의 경우 원자로 및 보일러 제품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9월 누적)에는 광물성 연료로 전년대비 129.2% 증가한 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전기기기(10.7%), 광물성 연료(138.6%), 기기(22.6%), 플라스틱(2.2%) 등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39.5%), 차량 및 부분품(3.5%)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8년(9월 누적) 육/식용 설육(31.5%),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6.2%), 차량 및 부분품(5.5%) 유기화학품(22.9%)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원자로 및 보일러(10.5%), 전기기기(12.1%), 기기(0.2%)는 감소하였다.

미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9월 누적)	
			금 액	증 감	금 액	증 감
		총계	50,749	17.4	43,050	11.1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중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4,636	138.6	6,994	129.2
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9,892	46.0	6,832	-10.5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087	10.7	4,691	-12.1
4	90	기기(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및 의료용) 및부분품과 부속품	4,242	22.6	3,283	-0.2
5	02	육, 식용설육	1,708	20.3	1,703	31.5
6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부분품	1,714	-39.5	1,699	6.2
7	87	차량 및 부분품(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	2,066	-3.5	1,690	5.5
8	29	유기화학품	1,738	8.6	1,611	22.9
9	10	곡물	1,295	6.2	1,433	19.1
10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519	2.2	1,231	5.3

■ 자료: kita.net

■가공 단계별 현황

2018년(9월 누적) 한국의 가공 단계별 대미수출은 자본재(2.1%), 중간재(7.6%)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1차 산품(3.8%), 소비재(13.2%), 기타(35.7%)는 감소하였다. 가공 단계별 대미수입은 1차 산품(51.8%), 소비재(13.7%), 중간재(13.9%), 기타(7.7%)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자본재(13.7%)는 감소하였다.

가공 단계별 수출입 현황

(백만 달러, %)

품 목 별	수 출		수 입		수 지
	금 액	증 감 률	금 액	증 감 률	
1차 산품	55	-3.8	6,716	51.8	-6,661
소비재	12,548	-13.2	7,378	13.7	5,170
자본재	11,776	2.1	8,532	-13.7	3,244
중간재	28,047	7.6	20,205	13.9	7,842
기타	51	-35.7	218	7.7	-167

■ 주: 2018년 9월 가공 단계별 수출입 누적 기준
자료: kita.net

4. 한미간 투자 현황

(1)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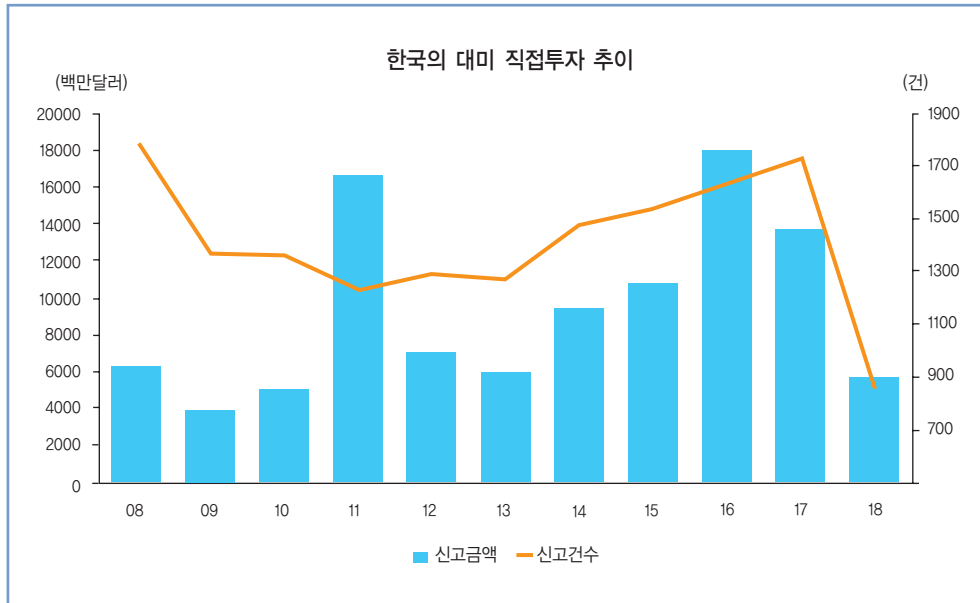
한국의 2017년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수는 11,470건, 신고금액은 494억 2,800만 달러였으며 2018년(6월 누적)의 신고건수는 6,133건, 신고금액은 246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급감하였으나, 2010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1년에는 165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2012년과 2013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 신고금액은 180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2018년(6월 누적) 신고금액은 5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신고건수는 2007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14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1,823건을 기록하였다. 2018년(6월 누적) 896건으로 전년동기의 879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전체투자	10,319	40,671	11,199	49,618	11,470	49,428	6,133	24,643
미국	1,635	10,776	1,774	18,054	1,823	13,747	896	5,678
베트남	1,706	2,917	2,200	3,066	2,362	2,364	1,310	2,200
케이만군도	112	4,444	160	5,585	248	7,068	119	2,126
중국	1,755	735	1,715	4,012	1,501	3,705	641	1,839
홍콩	381	3,494	584	1,786	446	3,509	194	1,779
룩셈부르크	29	517	56	1,342	80	2,435	49	1,545
오스트리아	7	78	118	1,595	93	533	12	1,337
영국	78	900	82	1,739	91	1,894	91	1,024
일본	674	885	715	648	859	806	458	711
싱가포르	237	2,107	261	1,420	333	1,421	266	66
저지	16	431	10	350	24	324	17	600
인도네시아	320	845	287	722	346	747	198	453



■ 주: 2018년 6월 누적(잠정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의 업종별 대미직접투자

2018년(6월 누적)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신고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체의 51.96%인 28억 4,262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016년 71억 3,681만 달러로 전체의 39.53%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37억 8,573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1억 8,558만 달러로 전체의 3.39%로 크게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2016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7년 감소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1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2016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7년 감소하였으며 2018년(6월 누적) 4억 5,33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광업은 2017년 감소하였으나 2018년(6월 누적) 3억 9,15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업종 이외에도 정보통신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I 제2장 미국 경제현황

한국 대미 직접투자 업종별 현황

(단위: 천 달러)

업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금융 및 보험업	4,277,801	4,308,377	3,787,421	2,842,625
부동산업	2,975,390	3,558,133	2,237,698	1,218,002
제조업	952,962	1,252,164	821,825	453,322
광업	96,737	177,511	116,136	391,510
도매 및 소매업	901,049	7,136,816	3,785,733	185,589
정보통신업	288,204	346,089	1,888,082	175,6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83,205	74,474	138,134	55,503
숙박 및 음식점업	709,947	459,011	38,641	36,733
건설업	66,915	47,263	118,433	35,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500	15,390	35,305	18,500
운수 및 창고업	78,645	41,967	72,421	16,283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645	225,659	42,526	13,2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420	378,713	188,498	13,2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15	10,033	22,502	11,21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50	2,050	17,100	1,980
교육 서비스업	2,349	2,756	110,016	1,0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12	13,321	9,124	880
농업, 임업 및 어업	1,995	3,770	14,931	370

■ 주: 2018년 6월 누적(잠정치), 2018년 신고금액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2017년 대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384억 9,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개인기업도 4,88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개인은 각각 95억 400만 달러, 9억 5,600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2018년(6월 누적) 직접투자 규모는 대기업 181억 2,400만 달러, 중소기업 53억 달러, 개인 5억 8,500만 달러, 개인기업 2,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대기업	2,726	32,354	2,973	40,038	2,894	38,495	1,514	18,124
중소기업	5,648	7,045	6,023	8,432	6,381	9,504	3,434	5,300
개인기업	121	29	141	48	130	32	79	24
개인	1,688	504	1,953	556	1,943	956	1,062	585
기타	136	740	109	545	122	440	44	610

■ 주: 2018년 6월 누적(잠정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투자비율별 대미 직접투자

2017년 투자비율별 직접투자는 100% 투자가 313억 1,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50% 초과~100% 미만 투자는 99억 3,900만 달러, 10% 이상~50% 미만 투자는 62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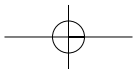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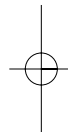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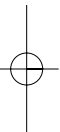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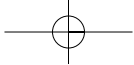
2018년(6월 누적) 100% 투자는 166억 1,5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50% 초과~100% 미만 투자와 10% 이상~50% 미만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각각 39억 300만 달러, 34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50% 투자와 10% 미만 투자는 각각 3억 6,300만 달러, 3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투자자 규모별 대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누적)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0%미만	1,303	1,535	1,321	941	1,345	968	651	330
10%이상-50%미만	875	7,197	917	5,157	1,042	6,229	555	3,432
50%	216	867	259	1,093	253	982	129	363
50%초과-100%미만	1,227	10,624	1,311	12,615	1,351	9,939	712	3,903
100%	6,698	20,447	7,391	29,813	7,479	31,310	4,086	16,615

■ 주: 2018년 6월 누적(잠정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III. 한미통상현황

1. 한미 FTA 개정 협상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3. USMCA 현황
4. 미국과 EU간 통상 갈등



1. 한미 FTA 개정협상

(1) 한미 FTA 개정협상의 배경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한미간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의 제 2의 교역국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한국의 전체 교역량의 11.3%를 해당하는 수치이다. FTA 발효 후 4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16% 감소하였다. 2018년(9월 누적)에는 전년동기대비 29.9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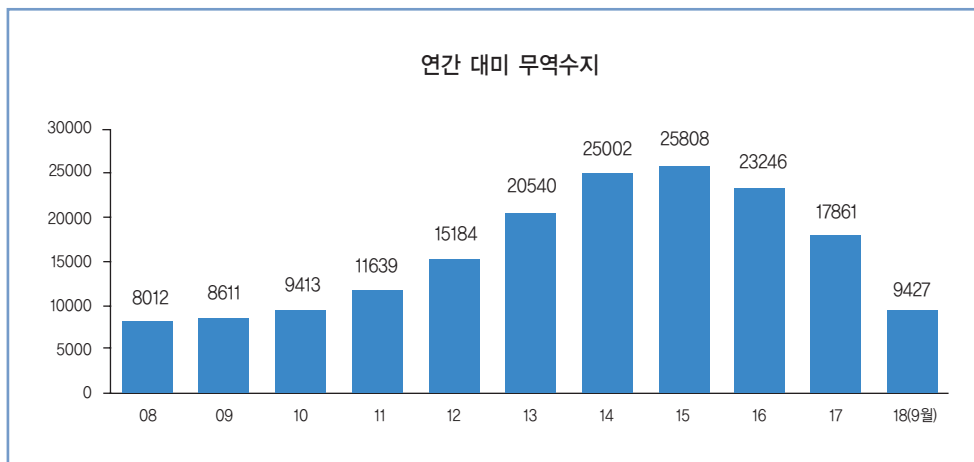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가 불공정한 무역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미 FTA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점을 내세워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였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2018년 통상정책의제 및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한국과의 FTA 개정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포함해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 발효 전후 대미 교역 동향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구 분	2011년	2012년 2월 한미 FTA 발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누적)
수출	56,208 (12.8)	58,525 (4.1)	62,052 (6.0)	70,285 (13.3)	69,832 (-0.6)	66,462 (-4.8)	68,610 (3.2)	52,477 (0.5)
수입	44,569 (10.3)	43,341 (-2.8)	41,512 (-4.2)	45,283 (9.1)	44,024 (-2.8)	43,216 (-1.8)	50,749 (17.4)	43,050 (11.1)
교역	100,777 (11.7)	101,866 (1.1)	103,564 (1.7)	115,568 (10.3)	113,856 (-1.4)	109,678 (-3.67)	119,359 (8.82)	95,527 (5.03)
무역 수지	11,639 (23.6)	15,184 (23.3)	20,541 (35.3)	25,002 (17.8)	25,808 (3.2)	23,246 (-9.9)	17,861 (-23.16)	9,427 (-2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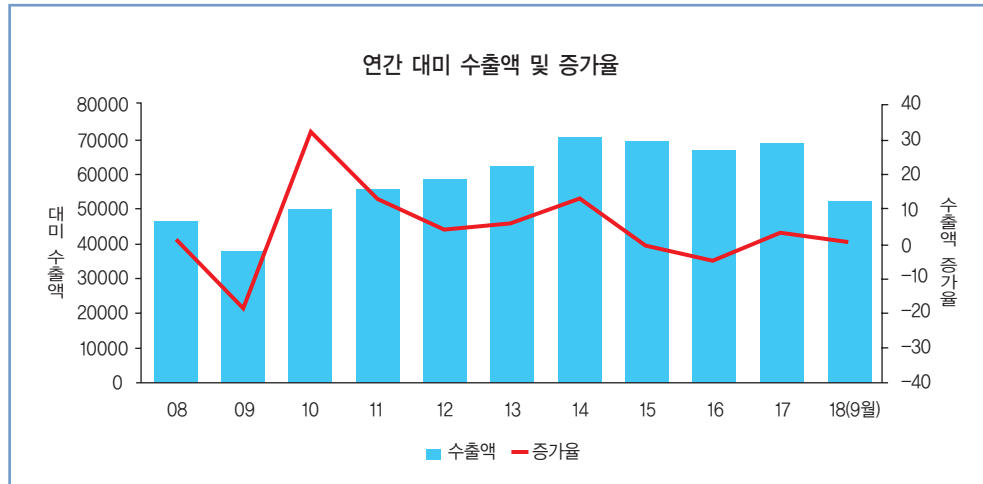
■ 자료: 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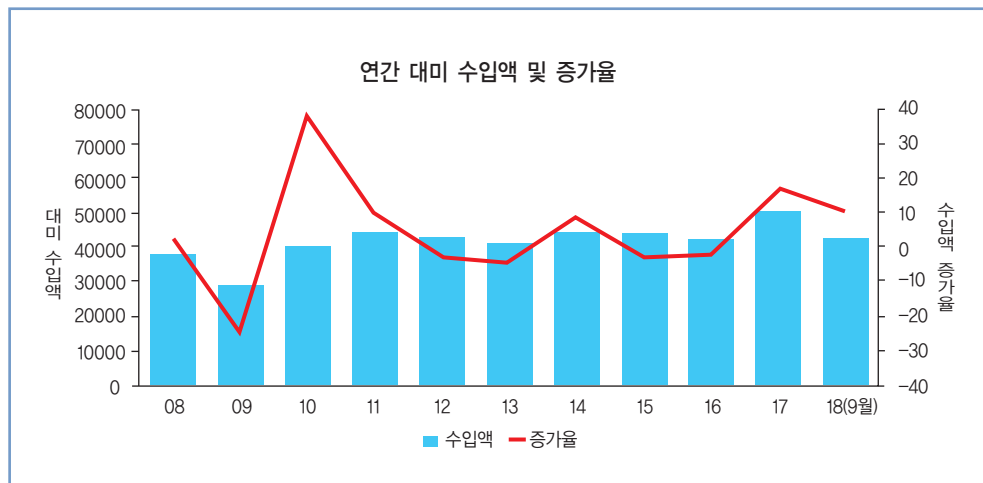
■ 주: 백만 달러

자료: kita.net

제3장 한미통상현황



■ 주: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자료: kita.net



■ 주: 백만 달러, 전년대비 %
자료: kita.net

2018년 미국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국가안보와 통상정책 연계

-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다자시스템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
- 미국이 전 세계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국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내수 기반이 중요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구조는 거부
-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저해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조치

미국 국내경제 강화

-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미국 국내로 귀속시키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
-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의 통상 파트너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

- NAFTA 조항의 업그레이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산지 기준 엄격화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감소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강조하고, 보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정을 위해 협상 조속히 추진
- 영국 및 일본 등 TPP 참여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미국 통상법 집행과 보호

- 모든 사용 가능한 통상법을 활용해 수입을 규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의 통상법이 도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명

다자무역시스템 강화

- WTO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농업분야 시장개방 협상, 수산물 보조금, 디지털 트레이드 등을 언급
- WTO 회원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WTO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국가로 중국을 언급

■ 자료: USTR, KITA 통상리포트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과

2017년 8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 1차 특별회기가 서울에 개최된데 이어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 2차 특별회기에서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1~3월 3차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18년 3월 28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2018년 10월 12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된다.

(3)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내용

■ 한국측 관심 개정사항

① ISDS 남소 제한

-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 도(ISDS)’ 절차가 개시 및 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 및 진행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를 추가하였다.
-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를 규정하였다.

②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③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하였다.
-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 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도입하였다.
-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의 규정 도입하였다.

④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을 추진하였다.
-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 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하기로 하였다.

■ 미국측 관심 개정사항

① 화물자동차 관세

- 미국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2041.1.1 철폐) 연장하기로 하였다(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

② 자동차 안전기준

- 한국내 판매량 기준, 제작사별 50,000대(기준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③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자동차관리법상 부품자기인증조항(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이미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왔으나 이를 개정의정서에 반영하여 명확히 하

I 제3장 한미통상현황

였다.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④ 자동차 환경기준

-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 25)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였다.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였다(현행 14.0g/km에서 17.9g/km).
- 기존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기준과 조화하기로 되어 있는바, 우리측 의무이행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 이행 관련 사안

① 원산지 검증

-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한미 FTA 통관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②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4)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 합의

한미 FTA 개정협정과 함께 철강 관세 부과 면제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대신에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수출은 2015년~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 톤의 70%에 해당하는 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하였다. 철강 관세 국가 면제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철강수출(362만톤)의 74% 상당하는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해 철강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5)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평가

미국은 최대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안전·환경기준 유연성 부여 등으로 무역적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핵심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철강 관세부과 면제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협상범위의 최소화하여 신속히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했다고 평가된다.

(6)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출입 현황

■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출 현황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원동기 및 펌프 등 품목이 주도하였다. 석유제품과 컴퓨터는 전년대비 각각 29.7%, 45.3%의 증가한 반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은 전년대비 각각 6.4%, 17.4%, 16.1% 감소하였다. 2018년(9월 누적)에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의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였다.

201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의 경우 2016년 전년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의 23.5%를 차지하였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6.4% 감소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5%로 다소 하락하였다. 2018년(9월 누적) 전년대비 16.4% 감소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8%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별 동향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누적)
총계	62,052 (6.0)	70,285 (13.3)	69,832 (-0.6)	66,462 (-4.8)	68,610 (3.2)	52,477 (0.5)
자동차	12,487 (15.3)	15,006 (20.2)	17,902 (19.2)	15,649 (-12.6)	14,651 (-6.4)	9,416 (-16.4)
무선 통신기기	7,555 (32.3)	8,300 (9.9)	7,328 (-11.7)	7,496 (2.3)	6,192 (-17.4)	4,466 (0.1)
자동차 부품	6,163 (9.2)	6,607 (7.2)	6,569 (-0.6)	6,751 (2.8)	5,665 (-16.1)	4,429 (-2.4)
반도체	2,912 (11.5)	2,886 (-0.9)	3,312 (14.8)	3,352 (1.2)	3,377 (0.7)	3,824 (50.2)
석유제품	3,507 (21.1)	3,064 (-12.6)	3,312 (-7.7)	2,401 (-27.5)	3,114 (29.7)	2,693 (3.9)
컴퓨터	1,441 (6.9)	1,299 (-9.9)	1,373 (5.7)	1,638 (19.3)	2,381 (45.3)	1,974 (17.0)
원동기 및 펌프	1,475 (6.9)	1,813 (22.9)	1,690 (-6.8)	1,287 (-23.8)	1,343 (4.4)	1,231 (24.2)
고무제품	1,516 (-15.7)	1,523 (0.4)	1,637 (7.5)	1,668 (1.9)	1,555 (-6.7)	1,100 (-8.3)
건설 광산기계	988 (-14.5)	1,126 (14.0)	1,030 (-8.5)	791 (-23.2)	1,051 (32.8)	1,025 (26.7)
플라스틱 제품	868 (12.1)	975 (12.3)	979 (0.4)	1,082 (10.6)	1,234 (14.1)	1,008 (8.9)

■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net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수입 현황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입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LPG, 육류, 식물성 물질, 자동차 등이 전체 수입의 38.67%를 차지하였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19.3%, 55.9% 증가하였다. 2018년(9월 누적)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으며 반도체와 계측제어분석기도 전년대비 각각 3.2%, 5.2% 감소하였다. 이들 품목을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LPG(32.6%), 육류(32.5%), 식물성 물질(19.3%)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대미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별 동향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누적)
총계	41,512 (-4.2)	45,283 (9.1)	44,024 (-2.8)	43,216 (-1.8)	50,749 (17.4)	43,050 (11.1)
반도체 제조용 장비	1,957 (-27.8)	2,531 (29.3)	2,584 (2.1)	2,730 (5.7)	5,987 (119.3)	3,967 (-14.8)
반도체	4,017 (-10.3)	3,991 (-0.6)	3,915 (-1.9)	3,668 (-6.3)	3,955 (7.8)	2,840 (-3.2)
항공기 및 부품	2,705 (-14.0)	1,967 (-27.3)	3,263 (65.9)	3,805 (16.6)	2,750 (-27.7)	2,530 (3.5)
LPG	85 (-13.3)	334 (292.9)	739 (121.3)	1,220 (65.1)	1,903 (55.9)	1,987 (32.6)
육류	997 (-4.4)	1,299 (30.3)	1,302 (0.23)	1,466 (12.6)	1,764 (20.4)	1,771 (32.5)
식물성물질	815 (-55.3)	1,926 (136.3)	1,309 (-32.0)	1,380 (5.4)	1,581 (14.6)	1,606 (19.3)
자동차	834 (16.4)	975 (16.9)	1,266 (29.9)	1,736 (37.1)	1,685 (-2.9)	1,417 (8.6)
곡식류	1,537 (11.7)	1,670 (8.6)	1,523 (-8.8)	1,430 (-6.1)	1,537 (7.5)	1,321 (4.8)
계측제어 분석기	1,234 (-13.1)	1,382 (12.0)	1,481 (7.2)	1,395 (-5.8)	1,655 (18.6)	1,198 (-5.2)
농약 및 의약품	975 (16.1)	1,134 (16.3)	1,116 (-1.6)	1,238 (11.0)	1,177 (-5.0)	987 (16.4)
원동기 및 펌프	1,190 (1.2)	1,253 (5.3)	1,033 (-17.6)	844 (-18.3)	876 (3.7)	882 (28.6)

■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kita.net

■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별 동향

한미 FTA 이후 2013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입 주요품목에서 승용차, 의약품, 냉동 쇠고기, 기계설비 등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2013년~2016년 대미 수입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 전년대비 17.4%, 2018년(9월 누적)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2018년(9월 누적) 반도체제조용장비, 집적회로 반도체, 승용차, 항공기 부품, 기타정밀화학

| 제 3 장 | 한미통상현황

원료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품목은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한미 FTA 체결이후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별 동향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누적)
총계	41,512 (-4.2)	45,283 (9.1)	44,024 (-2.8)	43,216 (-1.8)	50,749 (17.4)	43,050 (11.1)
반도체 제조용 장비	1,475 (-32.3)	1,969 (33.5)	1,972 (0.2)	2,082 (5.6)	5,074 (143.6)	3,105 (-22.1)
집적회로 반도체	3,830 (-10.3)	3,816 (-0.4)	3,753 (-1.7)	3,483 (-7.2)	3,720 (6.8)	2,654 (-4.4)
LPG	85 (-13.3)	334 (292.9)	739 (121.3)	1,220 (65.1)	1,903 (55.9)	1,987 (32.6)
가축육류	891 (-2.5)	1,168 (31.1)	1,257 (7.6)	1,428 (13.6)	1,711 (19.8)	1,708 (31.7)
항공기	1,228 (-29.6)	747 (-39.1)	1,957 (162.0)	1,367 (-30.1)	1,223 (-10.6)	1,385 (13.5)
사료	422 (-73.1)	1,511 (258.0)	1,021 (-32.4)	1,044 (2.3)	1,174 (12.4)	1,206 (16.9)
승용차	780 (13.9)	912 (16.9)	1,209 (32.6)	1,680 (39.0)	1,551 (-7.7)	1,198 (-1.2)
항공기 부품	1,477 (5.3)	1,220 (-17.4)	1,305 (7.0)	2,438 (86.8)	1,527 (-37.4)	1,144 (-6.4)
의약품	881 (18.1)	1,040 (18.0)	1,014 (-2.5)	1,124 (10.8)	1,088 (-3.2)	917 (15.3)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	483 (-9.4)	562 (16.5)	612 (8.9)	648 (5.9)	913 (41.0)	862 (28.8)
기타정밀 화학제품	622 (13.5)	892 (43.4)	1,019 (14.2)	909 (-10.8)	1,032 (11.2)	816 (9.3)
기타정밀 화학원료	933 (6.6)	955 (2.4)	1,010 (5.76)	928 (-8.1)	979 (7.7)	746 (-0.7)
합성수지	971 (8.9)	968 (-0.3)	925 (-4.4)	925 (0.0)	898 (-2.9)	727 (5.2)

■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kita.net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 무역전쟁의 배경

미국은 서비스 분야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 중국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47%를 차지하였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018년 3월 이후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평등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법을 근거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 미국의 대중국 무역현황

2018년(9월 누적)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중국 무역적자(상품교역액 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를 기록하였다. 미·중 상품교역액은 1990년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6,353억으로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기록하였다.

|제3장| 한미통상현황

미국의 대중국 무역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교역액	경상수지
2008년	69,733	337,773	407,506	-268,039
2009년	69,497	296,374	365,871	-226,877
2010년	91,911	364,953	456,864	-273,042
2011년	104,122	399,371	503,493	-295,250
2012년	110,517	425,619	536,136	-315,103
2013년	121,746	440,430	562,176	-318,684
2014년	123,657	468,475	592,132	-344,818
2015년	115,873	483,202	599,075	-367,328
2016년	115,546	462,542	578,088	-346,997
2017년	129,894	505,470	635,364	-375,576
2018년(9월)	93,363	394,731	488,094	-301,368

■ 주: 상품 교역액 기준
자료: US Census

미국의 세계무역 규모 및 대중국 무역 비중

(백만 달러, 대중국 무역비중 %)

구분	수출	수입	경상수지
2008년	1,287,441 (5.4)	2,103,641 (16.1)	-816,200 (32.8)
2009년	1,056,042 (6.6)	1,559,625 (19.0)	-503,583 (45.1)
2010년	1,278,493 (7.2)	1,913,858 (19.1)	-635,365 (43.0)
2011년	1,482,507 (7.0)	2,207,954 (19.1)	-725,447 (40.7)
2012년	1,545,821 (7.1)	2,276,267 (18.1)	-730,446 (43.1)
2013년	1,578,517 (7.7)	2,267,987 (19.4)	-689,470 (46.2)
2014년	1,621,874 (7.6)	2,356,356 (19.9)	-734,482 (46.9)
2015년	1,503,328 (7.7)	2,248,811 (21.5)	-745,483 (49.3)
2016년	1,451,024 (8.0)	2,187,600 (21.1)	-736,577 (47.1)
2017년	1,546,273 (8.4)	2,341,963 (21.6)	-795,690 (47.2)
2018년(9월)	1,256,583 (7.4)	1,898,338 (20.8)	-641,755 (47.0)

■ 주: 상품 교역액 기준
자료: US Census

미국의 무역적자 및 대중국 무역적자

(백만 달러, %)

구분	미국 무역적자	대중국 무역적자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
2008년	-816,200	-268,039	32.8
2009년	-503,583	-226,877	45.1
2010년	-635,365	-273,042	43.0
2011년	-725,447	-295,250	40.7
2012년	-730,446	-315,103	43.1
2013년	-689,470	-318,684	46.2
2014년	-734,482	-344,818	46.9
2015년	-745,483	-367,328	49.3
2016년	-736,577	-346,997	47.1
2017년	-795,690	-375,576	47.2
2018년(9월)	-641,755	-301,368	47.0

■ 주: 상품 교역액 기준
자료: US Census

(3) 무역전쟁의 현황

■ 미국의 조치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201조에 의거해 수입산 세탁기, 태양광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하였으며,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과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WTO제소와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및 인허가 관련 자국기업 우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미국 통상법 주요내용

주요 통상법	내 용
통상법 201조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적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험이 야기되는 경우 이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할 수 있음
무역확장법 232조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수입이 되는지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수입조정을 하거나 비무역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음
통상법 301조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를 국가별로 분석, 우선협상대상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대상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국의 대응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맞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통상법 201조에 의거해 미국산 에테르 계열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양허관세 중단 및 관세부과 조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106개 품목 5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 발표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었다.

■ 미국-중국간 무역전쟁 심화 및 휴전

2018년 5월 3일~4일 개최된 미국과 중국의 1차 협상에서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수입촉진책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무역흑자 2천억 달러 삭감, '중국제조 2025' 관련 정부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5월 17일~18일 개최된 2차 협상에서 무역전쟁과 상호 관세부과 중지, 미국 무역적자의 실질적 축소에 합의하였으나 6월 2일~3일 열린 3차 협상에서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었다. 협상 결렬 이후 양국의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6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항공, 정보통신, 로봇, 신소재, 자동차 등 첨단 기술품목에 집중된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 공개하였다. 6월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

|제3장| 한미통상현황

다. 중국의 대응에 대해 미국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7월 관세대상 품목 리스트 공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8월에는 추가관세가 10%가 아니라 25%가 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8월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상당에 5%에서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8월 22일~23일 진행된 4차 협상에서도 성과 없이 종료되었으며 협상 도중 상대국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하면서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9월 미국은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지속되었다.

■ 무역전쟁 휴전

12월 1일 열린 G20에서 양국 정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상대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일시휴전에 들어갔다.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 농업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9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기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양국의 입장차이를 감안할 때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2월 2일에는 양국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역전쟁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경과

날짜	국가	주요 내용
3.1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
4.2	중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여 돈육 등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5.3-4	양국	북경 1차 무역협상
5.17-18	양국	워싱턴 2차 무역협상
6.2	양국	북경 3차 무역협상
7.6	양국	340억 규모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8.22-23	양국	워싱턴 4차 무역 협상
8.23	양국	160억 규모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9.24	미국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 부과
12.1	양국	90일간 추가관세 부과 유예 · 즉각 협상 개시
12.2	양국	관세부과 철폐 발표

■자료: 주요 언론보도 정리

(4) 무역전쟁의 주요 이슈

미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축소 규모 및 방안, 첨단산업분야의 기술경쟁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와 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높은 소비 성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견제를 수용할 경우 중장기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강력히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1차, 2차 관세 부과 주요 품목은 중국의 '제조업 2025' 정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및 IT 등의 첨단산업으로, 이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경제 정책을 적극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 중국의 관세부와 현황

	1차	2차	3차
미국 →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통신, 전기기기 • 340억 달러 규모(6.7%) • 25%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IT 산업재 등 • 160억 달러 규모(3.2%) • 25%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등 광범위 • 2,000억 달러 규모 (39.6%) • 9월 24일 10%에서 2019년 1월 1일 25%로 단계적 인상
중국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 자동차 등 • 340억 달러 규모(22.7%) • 25%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화학제품 등 • 160억 달러 규모(10.7%) • 25%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 항공기 등 • 600억 달러 규모(40.1%) • 5~10% 차등 부과

■자료: USTC,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언론보도 정리

(5) 무역전쟁의 전망

미국과 중국이 ‘일시휴전’이 이어 관세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무역전쟁의 원만한 합의를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의 장기적 무역적자 해소, 지식재산권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의 무역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경기 호조세 지속, 낮은 실업률, 안정된 소비자 물가 등 국내 경제여건이 탄탄하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대중국 무역전쟁의 우호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EU, NAFTA 등과의 무역 분쟁이 완화된 점과 대내적으로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였지만,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 하원의 지지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양국의 교역 규모 축소, 소비자 및 기업가의 소비·투자 심리 위축, 생산성 하락, 국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이어져 양국의 성장률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등 미국과 중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각국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공급망 변경, 판매 단가 검토 등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된다.

3. USMCA 현황

(1) USMCA 출범 배경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5월 NAFTA 재협상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멕시코 및 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와 NAFTA 조항의 현대화를 근거로 2017년 8월 16일 재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2017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일몰조항 삽입, 국가-투자자 소송제도(ISDS) 조항 삭제 등 여러 쟁점에서 상대방들과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은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2018년 8월 27일 미국은 멕시코와 양자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9월 30일 캐나다와도 합의하면서 USMCA가 타결되었다.

(2) USMCA 주요 내용

NAFTA와 달리 USMCA는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반부패, 환율 등 신통상규범 수립을 위한 챕터가 추가되었다.

USMCA 주요 내용

자동차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가치비율을 상향조정 •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일정 비율을 역내산으로 사용규정 • 노동가치비율 새롭게 규정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NAFTA 투자와 관련한 사건(3년간)과 비차별대우, 수용 및 보상 의무에 대한 멕시코·미국 투자분쟁(국내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것), 특정 분야 정부계약 관련 미국·멕시코 투자분쟁에 한하여 ISDS를 활용하도록 범위 축소
디지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정부 정보 등 규정 추가 •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금지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 생물의약품 자료 독점,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노동자, 직장내 폭력 및 성차별 등 강화된 노동 규범 도입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 금지 • 외환시장 개입 내역 매월 공개 • 외환시장 개입 시 협정국에 즉시 통보
비시장국과의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장국과의 FTA 추진 시 관련 정보 제공 • 한 국가가 비시장국과의 FTA를 발효할 경우 USMCA는 종료되고 다른 두 당사국 사이의 양자협정으로 대체
일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간 유효 • 3국은 발효일로부터 6년 뒤 16년 추가 연장 여부 결정

■자동차 원산지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해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이 확대 강화되었다. NAFTA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자동차 부품조달 비율 요건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동차 생산의 40%~45%는 시간 당 임금에 최소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생산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3년간의 조정 기간 후 전면 도입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밝힌 기업들에 한하여 최대 5년의 조정 기간이 허용된다.

■투자

기존에는 NAFTA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NAFTA 당사국에 의해 투자자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투자유치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ISDS)를 활용하여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다. USMCA에서는 ISDS 활용 범위를 축소하여 ① 기존 NAFTA 투자와 관련한 사건(3년간) ② 비차별대우, 수용 및 보상 의무에 대한 멕시코·미국 투자분쟁(국내구제절차 거친 후) ③ 오일, 천연가스, 인프라 등 특정 분야 정부계약 관련 미국·멕시코 투자분쟁에 한하여 ISD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디지털 무역

1992년 체결된 NAFTA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USMCA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에서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터넷 플랫폼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부 정보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경간 정보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및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도 의무화 하였다. 또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자에게 컴퓨팅 설비를 해당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설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였다.

■지식재산권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에 대해 보호기간을 최초 발행 이후 최소 75년 이상으로 연장하였으며, 10년간의 생물의약품 정보 보호(자료 독점) 및 대상을 확대하였다. 영업비밀 절도(trade secret theft)에 대해 민형법상 구제절차 마련하였으며 소송 절차 중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공개한 정부관료 처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노동

기존 NAFTA에서 부속협정에 포함되었던 노동 분야를 USMCA에서는 협정문 내 하나의 챕터를 구성하여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민노동자,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규정하였다.

■ 환율

USMCA 협정문에 환율 문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삼가하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 비시장국과의 FTA

비시장국과의 FTA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요건과 해당 FTA의 발효 시 USMCA의 종료가능성을 규정하였다. 비시장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적어도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다른 당사국에 협상 의사를 알려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사국은 개시하고자 하는 협상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에 혹은 늦어도 서명 30일 전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협정의 전문(부속서 및 부속 문서 포함)을 제공해 당사국이 협정을 검토하여 USMCA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시장국과 FTA 발효 시 다른 당사국이 6개월 통지로 USMCA를 종료하고 USMCA는 다른 두 당사국 사이의 양자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일물조항

USMCA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6년이며, 발효일로부터 만 6년이 도래하기 전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USMCA 운영에 대해 검토를 시행하며 검토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조치에 대해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USMCA에 대한 평가

USMCA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협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향후 미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USMCA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감소와 자국산 상품의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상품시장개방과 원산지 규정 등을 통해 양자 무역관계에 맞춤화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캐나다 간 ISDS 활용을 3년 내 철폐하고 미국·멕시코 간 ISDS 활용 범위는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ISDS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를 구체화하였다. 환율 규정과 비시장국과의 FTA체결에 대한 규정은 미국의 대중국전제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17년 중국과 FTA 추진 의견을 묻는 공공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 관련 규정으로 인해 중국과의 FTA 논의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수출입동향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입 동향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2018년(7월 누적)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미국의 전체 수출의 18.2%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2015년 전년대비 10.3% 감소한데 이어 2016년 전년대비 5.0%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2018년(7월 누적)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수입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년대비 14.7%, 5.8%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으며 2018년(7월 누적) 전년대비 7.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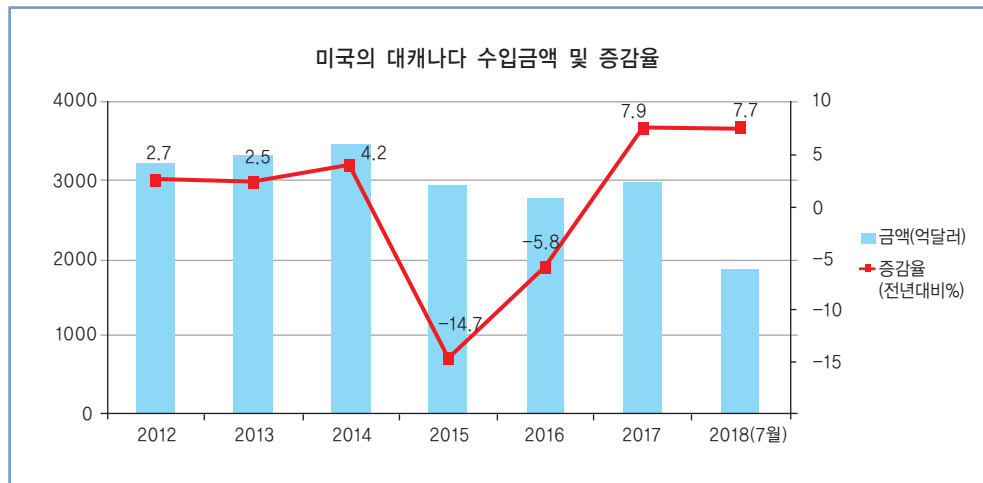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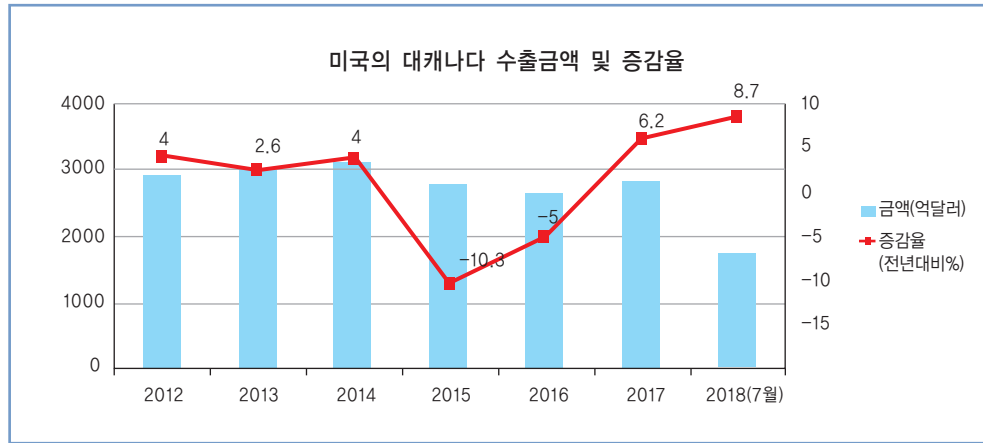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입 동향

(억 달러, 전년대비 %)

구분	수 출			수 입			수지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2012년	2,925	4.0	18.9	3,239	2.7	14.2	-31,397
2013년	3,002	2.6	19.0	3,321	2.5	14.6	-31,833
2014년	3,121	4.0	19.2	3,461	4.2	14.8	-33,937
2015년	2,800	-10.3	18.6	2,952	-14.7	13.2	-15,174
2016년	2,660	-5.0	18.3	2,781	-5.8	12.7	-12,106
2017년	2,825	6.2	18.3	2,999	7.9	12.8	-17,504
2018년(7월누적)	1,754	8.7	18.2	1,867	7.7	12.9	-11,191

■자료: kita.net

제3장 한미통상현황



2017년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으로 전체 수출품목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차가 각각 5.3%, 4.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석유 조제품, 항공기 및 부품, 원유, 컴퓨터, 가솔린 엔진, 전화기, 석유가스가 주요 10대 수출품목을 차지하였다.

수입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원료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였으며 승용차는 14.5%를 차지하여 이들 두 품목이 전체의 31%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석유 조제품, 석유가스, 자동차 부품, 제재목, 알루미늄, 가스터빈, 에틸렌중합체, 포장의약품이 주요 10대 수입품목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억 달러, 전년대비 %)

순위	대캐나다 수출					대캐나다 수입				
	품 목	2016년		2017년		품 목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자동차 부품	170.6	6.4	169.2	6.0	원유	361.9	13.0	501.2	16.7
2	승용차	145.9	5.5	148.5	5.3	승용차	457.3	16.4	436.1	14.5
3	화물차	105.1	4.0	126.4	4.5	석유 조제품	74.0	2.7	99.5	3.3
4	석유 조제품	79.2	3.0	84.7	3.0	석유가스	71.4	2.6	93.3	3.1
5	항공기 및 부품	73.5	2.8	82.7	2.9	자동차 부품	90.2	3.2	87.4	2.9
6	원유	46.3	1.7	61.3	2.2	제재목	56.7	2.0	59.2	2.0
7	컴퓨터	55.4	2.1	57.7	2.0	알루미늄	42.2	1.5	54.7	1.8
8	가솔린 엔진	40.4	1.5	40.9	1.4	가스터빈	29.1	1.0	36.2	1.2
9	전화기	37.2	1.4	40.4	1.4	에틸렌중합체	36.3	1.3	35.9	1.2
10	석유가스	17.0	0.6	27.8	1.0	포장 의약품	43.1	1.6	30.1	1.0
전체		2,659.6	100.0	2,824.7	100.0	전체	2,780.6	100.0	2,999.7	100.0

■자료: kita.net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동향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2018년(7월 누적)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미국의 전체 수출의 16.0%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년대비 1.6%, 2.3% 감소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7월 누적) 각각 전년대비 5.2%, 11.2% 증가하였다. 수입은 2016년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7월 누적)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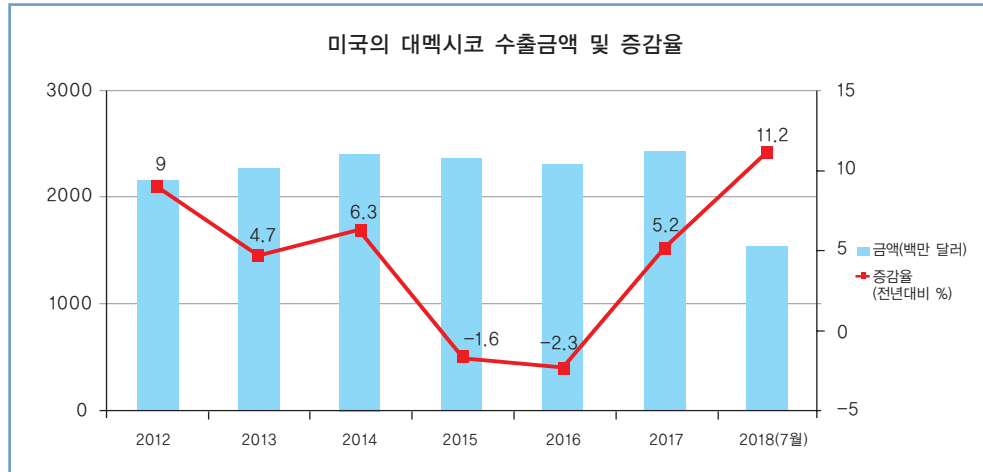
I제 3장 | 한미통상현황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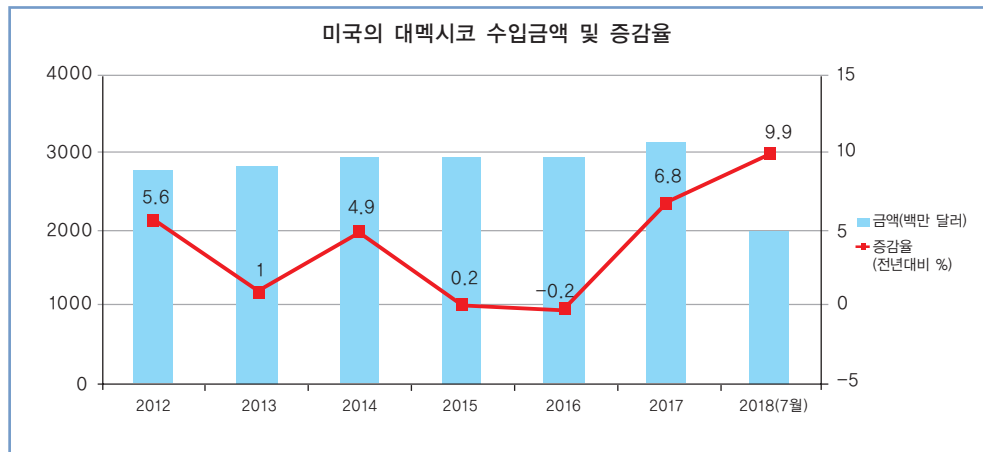
(백만 달러, 전년대비 %)

구분	수 출			수 입			수지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비중	
2012년	2,159	9.0	13.9	2,776	5.6	12.2	-616
2013년	2,262	4.7	14.3	2,805	1.0	13.2	-543
2014년	2,403	6.3	14.8	2,942	4.9	13.5	-538
2015년	2,364	-1.6	15.7	2,947	0.2	14.2	-584
2016년	2,310	-2.3	15.9	2,942	-0.2	14.4	-632
2017년	2,430	5.2	15.7	3,140	6.8	14.3	-711
2018년 (7월누적)	1,540	11.2	16.0	1,976	9.9	13.6	-436

■자료: kita.net



■자료: kita.net



■자료: kita.net

2017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석유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은 6.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컴퓨터 부품, 전자직접회로, 정유제품, 컴퓨터, 전화기, 전기회로부품, 디젤엔진, 전선·케이블이 주요 10대 수출품목을 차지하였다. 수입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승용차로 전체의 9.7%를 차지하였으며 화물차, 자동차 부품이 각각 7.3%, 7.2%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컴퓨터, 전화기, 전선·케이블, 모니터, 석유, 의자, 의료기기가 주요 10대 수입품목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억 달러, 전년대비 %)

순위	대멕시코 수출					대멕시코 수입				
	품 목	2016년		2017년		품 목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석유	162.7	7.0	206.6	8.5	승용차	240.2	8.2	303.9	9.7
2	자동차 부품	156.7	6.8	159.4	6.6	화물차	219.4	7.5	228.4	7.3
3	컴퓨터 부품	109.1	4.7	105.3	4.3	자동차 부품	224.7	7.6	227.6	7.2
4	전자직접 회로	61.7	2.7	63.2	2.6	컴퓨터	179.8	6.1	200.2	6.4
5	정유제품	33.6	1.5	45.3	1.9	전화기	128.5	4.4	110.1	3.5
6	컴퓨터	48.1	2.1	44.8	1.8	전선·케이블	98.4	3.3	99.5	3.2
7	전화기	48.2	2.1	41.9	1.7	모니터	104.6	3.6	97.8	3.1
8	전기회로 부품	40.1	1.7	39.9	1.6	석유	75.8	2.6	97.8	3.1
9	디젤엔진	26.2	1.1	36.3	1.5	의자	73.3	2.5	69.6	2.2
10	전선·케이블	35.7	1.5	35.4	1.5	의료기기	57.5	2.0	59.3	1.9
전체		2,309.5	100.0	2,429.8	100.0	전체	2,941.5	100.0	3,140.4	100.0

■자료: kita.net

4. 미국과 EU간 통상 갈등

(1) 미국과 EU의 무역현황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중국에 이어 2대 무역적자 상대국이다.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EU 무역적자(상품교역액 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91%까지 차지하였으며 2018년(9월 누적) 18.93%를 기록하였다. 반면 2017년 EU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5.09%, 수입 증가율은 4.38%를 기록하였으며 대미 무역흑자는 1,513억 6,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억 1,900만 달러 증가하였다.

미국과 EU의 무역 추이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교역액	경상수지
2008년	271,810	367,617	639,428	-95,807
2009년	220,599	281,801	502,400	-61,202
2010년	239,591	319,264	558,855	-79,673
2011년	269,069	368,464	637,533	-99,395
2012년	265,373	381,755	647,128	-116,383
2013년	262,095	387,510	649,606	-125,415
2014년	276,274	420,609	696,883	-144,334
2015년	271,911	427,810	699,722	-155,899
2016년	269,549	416,393	685,942	-146,845
2017년	283,269	434,633	717,902	-151,363
2018년(9월)	237,849	359,355	597,204	-121,506

■ 주: 상품 교역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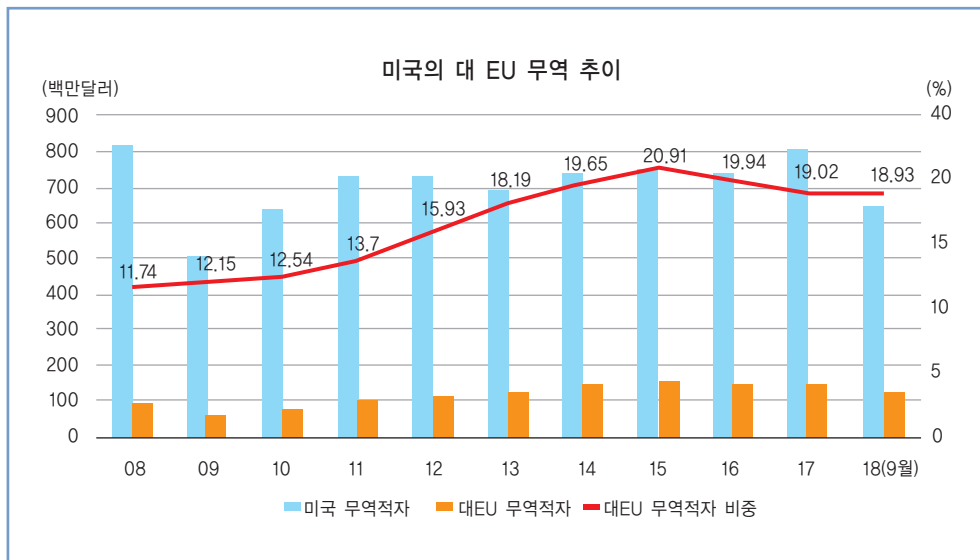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미국의 무역적자 및 대EU 무역적자

(백만 달러, %)

연도	미국 무역적자	대EU 무역적자	대EU 무역적자 비중
2008년	816,200	95,807	11.74
2009년	503,583	61,202	12.15
2010년	635,365	79,673	12.54
2011년	725,447	99,395	13.70
2012년	730,446	116,383	15.93
2013년	689,470	125,415	18.19
2014년	734,482	144,334	19.65
2015년	745,483	155,899	20.91
2016년	736,577	146,845	19.94
2017년	795,690	151,363	19.02
2018년(9월)	641,755	121,506	18.93

■ 주: 상품 교역액 기준
자료: US Census



I 제3장 한미통상현황

미국과 EU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기기, 항공기 등으로 주요 교역품들이 중복되는 경합적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계류, 자동차, 의약품 등은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규모가 큰 품목이며, 석유 등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등은 대EU 무역흑자 품목이다.

미국의 대EU 주요 수출입품목

(백만 달러, %)

순위		1	2	3	4	5
수출	품목명	보일러 · 기계류	의약품	항공기 · 부품	의료기기	전기기기 · TV
	금액	59,684	30,850	29,916	24,914	12,296
	비율	20.79	10.75	10.42	8.68	7.32
수입	품목명	보일러 · 기계류	일반차량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기기 · TV
	금액	75,232	55,796	53,477	31,351	31,195
	비율	17.99	13.34	12.79	7.5	7.46

■ 주: HS 코드 2자리 기준, 2017년 연평균 달러/유로 환율 1.13달러 적용
 자료: Kita.net

(2) 미국과 EU의 통상갈등

■미국과 EU간 통상갈등 경과

2018년 6월 이후 미국과 EU간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갈등이 심화되었다. 6월 1일 미국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6월 22일 EU는 위스키, 담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부과하였다. 6월 22일 미국이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언급하자, 7월 2일 EU는 대응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무역분쟁이 심화되었으나 7월 25일 미국과 EU는 무역분쟁을 회피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EU간 잠정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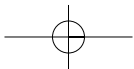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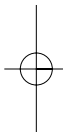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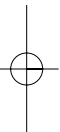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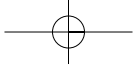
미국과 EU는 자동차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폐지, EU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포함하는데 합의하였다. 협상 진행 중 추가 관세부과 중지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유예되었다.

〈미국-EU 주요 합의내용〉

- 자동차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보조금 폐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 쿵, 서비스, 화학품, 의약품 등에 대한 무역 확대 추진
- 유럽의 미국산 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 무역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절차 개선 추진
- 지식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적극 대응

(3) 미국과 EU간 합의에 대한 평가

미국과 EU가 무역분쟁을 피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면적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유로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심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협상이 백지화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무역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미국과 EU간의 협상에서 EU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무역국과의 무역협상이 타결되거나 진전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무역협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1.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2.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3. 미·중 '무역 전쟁'
4. 셰이프가드: 세탁기
5. 셰이프가드: 태양광
6. 비자



2017년 ‘America First’ 라는 기치 아래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 정책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조주완)는 미국 진출 한국 회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들을 개최함과 동시에, 올해 백악관과 USTR 등 관련 연방 부처의 고위 관리들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또한 대표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 관리들 및 연방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 및 알루미늄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 전쟁’, 셰이프가드(세탁기, 태양광) 제재 조치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워킹 비자 정책에 대한 배경, 주요 이슈,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각각 정리해 본다.

1.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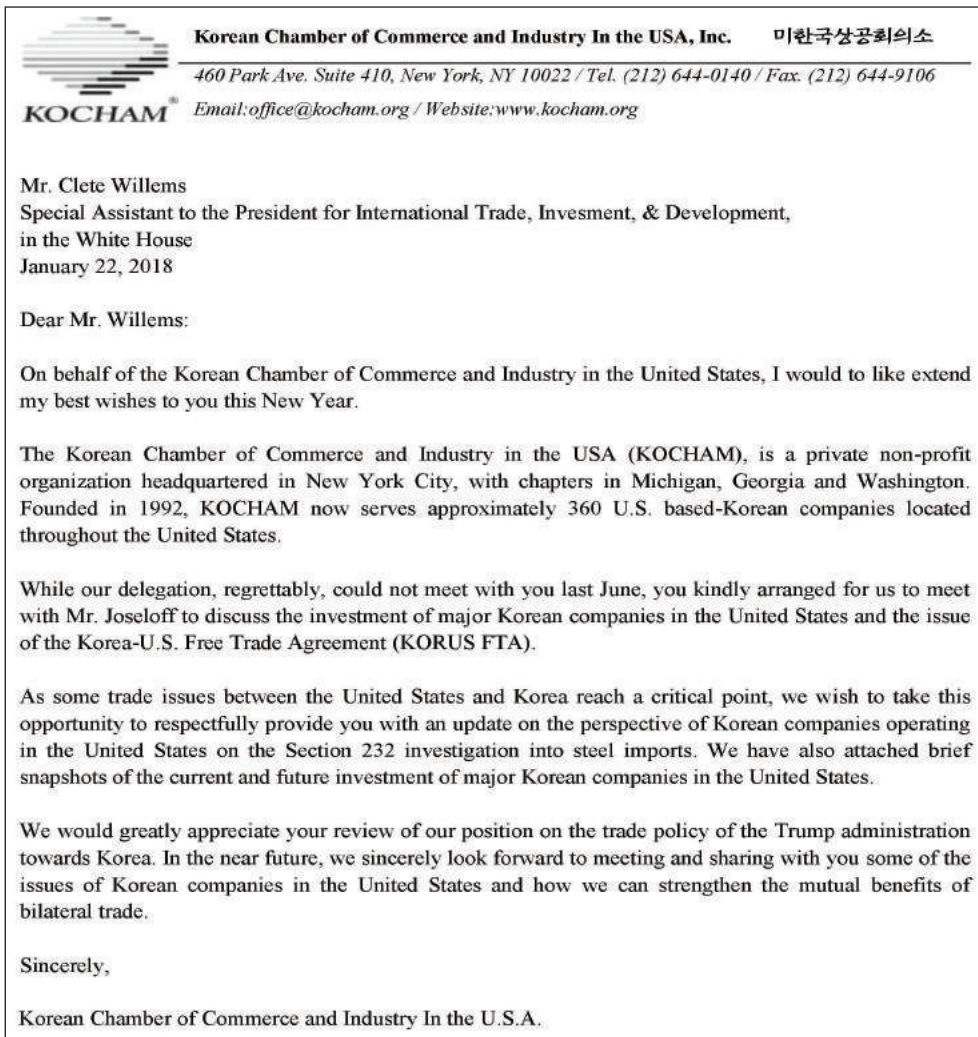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통상 정책이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미 무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를 지시하고 이에 따른 관세 부과를 적용하고 검토하는 등 공격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을 제재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 미국은 2018년 3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한국은 면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기준으로 하여 70%로 제한된 수출할당량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배경

무역확장법이란 1962년 제정된 외국의 수입품들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량 제한 및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이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들에 대해 국가 안보 조사 시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KOCHAM은 아래와 같이 2018년 1월 백악관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 및 관세 부과를 재검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I 제 4 장 |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2018년 2월 미 상무부는 안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3가지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
- 2) 한국을 포함한 12개국(한국,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베트남)에 대하여 53%의 관세를 부과 및 다른 국가에 대하여는 2017년 미국 수입량을 100% 기준으로 쿼터제를 실시
- 3)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7년 기준으로 63%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실시

미 상무부의 이러한 규제 방안 제시는 미국의 철강 설비 가동률을 73%(조사 시점 기준)에서 철강산업 장기생존의 최소 수준인 80%로 올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 상무부는 관세 규제를 모든 국가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관세에 추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방안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8일 미국 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안에 서명하고 조치는 15일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특정 7개국(한국, 멕시코, 캐나다,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에게는 5월 1일까지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어 3월 26일 미국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조치 면제를 합의하였으나 면제를 받는 대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70%로 제한하고 이것을 절대 쿼터(Absolute Quota)로 지정했다. 절대 쿼터는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25%의 추가 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 후 추가 반입 철강 제품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계 미국 법인 등의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 철강의 연도와 품목별로 다른 수출량에 비해 3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쿼터제 적용은 한국 철강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더욱 더 제한했다.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의 평균은 383만 톤 이었고 2018년 우리나라에게는 263만 톤의 쿼터가 허용되었다. 이는 전년도 수출량인 362만 톤과 비교했을 때 73%에 해당한다.

판재류 품목의 경우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다. 그러나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품목은 쿼터를 절반 수준인 5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쿼터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품목들부터 적용됨을 발표하여 이미 수출 할당량을 채우거나 대부분을 채운 우리나라의 일부 철강 품목들을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기업들은 철강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및 조달의 어려움으로 제조원가 상승, 수입 통관 리스크 증가 및 매출 감소 등 비즈니스에 차질을 가져온다며 불편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5일 기준 한국의 수출량은 214만 톤으로 쿼터량의 81%를 소진하였다. 이 중 강관류 10개 품목은 102만 톤으로 이미 99%를 소진하였으나 판재류 13개 품목은 90만 톤으로 69%를 소진하였다.

(3)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29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면제를 허용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철강 제품에 대해서만 면제를 확정 받았다. 더불어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의 철강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산 품목들을 수입할 수 있게 쿼터 및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경우 쿼터는 적용되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17일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 스탬핑(Micr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SL Tech)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면제 받은 품목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극세강관 품목이다. 현재 미국 법인이 있는 포스

제4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많은 국내 철강기업들이 이미 품목 예외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미국 현지에 생산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들 또한 현지 고객사들과 품목 예외 신청을 협의 중이다.

이번 조치에 국내 철강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결과를 일반화해서 보기는 힘들다고 예측했다.

품목 예외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업로드 후 30일 동안 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품목 예외 신청서 접수는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is.doc.gov>에서 참고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 품목 예외 신청서 부분 중 일부]

Request for Exclusion from Remedies: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Steel Imports

Exclusion Request Requirements: Onl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hat use steel products (e.g. flat, long, semi-finished, pipe and tube, and stainless) in business activities (e.g., construction, manufacturing, supplying steel product to users) in the United States may submit an Exclusion Request.

For an Exclusion Request to be considered, the Exclusion Requester must provide factual information on 1) the single type of steel product it requires using a 10-digit HTSUS code, including its specific dimension; 2) the quantity of product required (stated in kilograms) under a one-year exclusion; 3) a full descrip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steel product it seeks to import, including chemical composition, dimensions, strength, toughness, ductility, magnetic permeability, surface finish, coatings, and other relevant data. Exclusion Requests must be submitted using this Excel-based document. Paper submissions will not be accepted.

A separate Exclusion Request must be submitted on each distinct type and dimension of steel product to be imported. All applicable question blocks in the form must be completed for the Exclusion Request to be accepted. Exclusion Requests will be denied if the applicant: 1)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specified reporting requirements; 2) cites the improper HTSUS code, or 3) provides incorrect product descriptions. Organizations electing to attach supporting documents must provide these documents in PDF format and it must not exceed 25 pages. All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Exclusion Request i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Do not provide sensitiv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rganizations should upload their completed Exclusion Request pertaining to a steel product to www.regulations.gov under Docket Number BIS-2018-0006. An Exclusion Request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Processing of an Exclusion Request will take approximately 90 business days. Notification of granted Exclusions will be posted on www.regulations.gov. For questions related directly to completing this form, contact BIS via email (steel232@bis.doc.gov) or telephone (202-482-5642).

2.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재 조치들 가운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이 한국에 주는 타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8년 5월 미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 중인데, 2019년 2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 부과 방안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산업으로, 관세 부과 위협 및 적용 등의 공격적인 조치를 무역상대국들에게 시행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2018년 9월 타결된 한·미 FTA 재협상과 정계 및 재계 고위 인사들의 회담을 통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선정 당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항공기, 조선, 반도체 산업을 미국 제조업과 산업의 중심이라고 공언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7년 4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2018년 5월 23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추가로 국가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개시 이후 270일 이내(2019.02.19)로 조사를 끝낸 뒤 결과에 따라 미국은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거나 다른 방안들로 수입품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품목들은 SUV, 밴, 경량트럭 및 자동차 부품들이다. 자동차 산업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큰 요인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적자, 미국 자동차 시장 내 수입차 점유율 증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저하 등으로 보인다.

제4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산업 조사품목

조사대상	품 목
자동차	SUV, 밴, 경량트럭 등
자동차 부품	미 상무부 교통기계국에서 비공식적으로 6개 카테고리, 총 414개 품목 리스트 발표 (6개 카테고리: 새시 및 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차체 및 부품, 엔진 및 부품, 기타 부품)

■자료 및 출처: 미 상무부, USITC, KITA

HS코드로 분류했을 때 2017년 미국 무역 적자 1위 품목은 승용차였고, 자동차 부품은 8위를 했다. 2017년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수입산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은 48%이었고,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은 52%이었다.

2017년 미국의 10대 무역적자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1	8703	승용차	-1,236
2	2709	석유제품	-1,111
3	8517	무선통신기기	-780
4	9801	기타	-595
5	8471	컴퓨터	-587
6	3004	의약품	-445
7	9403	기타 가구	-204
8	8708	자동차 부품	-201
9	8528	TV	-195
10	9401	의자	-187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KITA

또한, GM과 Ford 등 미국 제조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45% 가량 감소하였으나, 아시아와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들은 자국 산업을 우선시 하고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이슈였다.

(2) 진행 상황 및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자동차 산업 조사 지시 후 미국 상무부에는 각국 정부, 기업, 기관들로부터 약 2,300여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2018년 7월 유럽과 아시아 등 많은 국가의 정부와 기업 관련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44개의 단체들 가운데 미국 자동차산업 노동 조합을 제외한 43개의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부와 조치는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지시를 내린 시점을 생각해본다면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등 무역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있거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분석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높은 한국에게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미 FTA를 통한 두 나라의 경제동맹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의 자동차 산업 관련 개정된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개정된 부분은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양보한 사항들이다.

- ▶ 2021년부터 폐지 될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
- ▶ 한국 기준이 아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상한을 미국 회사 당 25,000대에서 50,000대로 확대
- ▶ 한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효한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및 세계 추세를 고려하기로 결정

I 제 4 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2018년 한·미 FTA 개정안 협상 전 우리나라는 대미 한국 수출 자동차 관련 관세 면제를 미국 측으로부터 허용되는 개정안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에게 우호적인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한국은 자동차 고관세 부과에 대한 면제는 받지 못했다.

2018년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안에 서명했는데,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다른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에 비해 대미무역 흑자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점을 전하며 자동차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면제조치를 요청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83억 불을 투자했으며, 향후 4~5년 내에 31억 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는 77억 불을 투자했고, 2021년까지 18억 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각각 9만 4천개, 3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의 수는 72만대였으나, 25%의 관세가 수입 자동차에 부과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는 22.7%, 즉 16만대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가격은 9.9%에서 12%까지 인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기업을 포함한 많은 관련 기관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2018년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미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나, 관세 부과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동되거나 추가로 공개된 사안은 없다.

(3)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의 조사 이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기업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긴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수입해야하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들의 제조 원가 및 소비자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로 자동차 관세 부과안 여부에 대해 미국이 조심스러운 듯 보이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한 조사와 관세부과 조치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확대된 상황을 보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됐던 항공기, 조선, 반도체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하는 차량과 관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타 국가들의 보복 관세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내 관련 일자리는 60만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미 · 중 ‘무역 전쟁’

최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근거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대대적인 관세부과를 실시했다. 이는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시행됐다. 미국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관세부과 조치를 결정하였고, 중국도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들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배경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재정비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보복적인 통상규제수단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통상법 301조는 개정 이후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미 무역대표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및 기술 도용 같은 중국의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후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 및 수입수량 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8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술 이전 및 개발과 지적재산권에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수입품에 총 60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조치, WTO 제소, 투자 관련 새로운 법안 등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또한 바로 미국의 자동차, 항공,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차로 2018년 7월 6일부터 818개의 중국산 수입 품목들에 대해 관세율 25%, 총 340억 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리스트를 공개했다. 같은 날 중국도 총 340억 달러 상당의 25% 추가 관세를 미국산 545개의 품목에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연이어 2차로 8월 23일부터 적용될 총 160억 달러 상당의 279개 품목을 포함한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후 중국 또한 16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333개의 품목에 적용시키겠다고 미국에게 대응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관세보복 조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잇따른 중국의 대응에 9월 24일부터 중국산 5,745개의 품목에 2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차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1차, 2차의 경우와는 달리 3차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또한 대응차원으로 미국산 5,207개의 품목에 600억 달러 상당인 5~10%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중국이 각각 2500억, 11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로 대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월 17일 “만약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약 2,67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법 301조 관련 관세 부과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관세율	25%	25%	25%	10%	10%*	5-10%
품목 수	818개	545개	279개	333개	5,745개	5,207개
주요 품목 종류	IT, 기계 등	농·수산물, 자동차 등	설비, 장치 등	화학, 자동차 등	화학, 가전제품 등	식품, 섬유제품 등
총 금액	\$340억	\$340억	\$160억	\$160억	\$2,000억	\$600억
발효일	2018. 7. 6		2018. 8. 23		2018. 9. 24	

■ 주: * 2019. 1. 1부터 25%로 인상
자료: 한국 관세청,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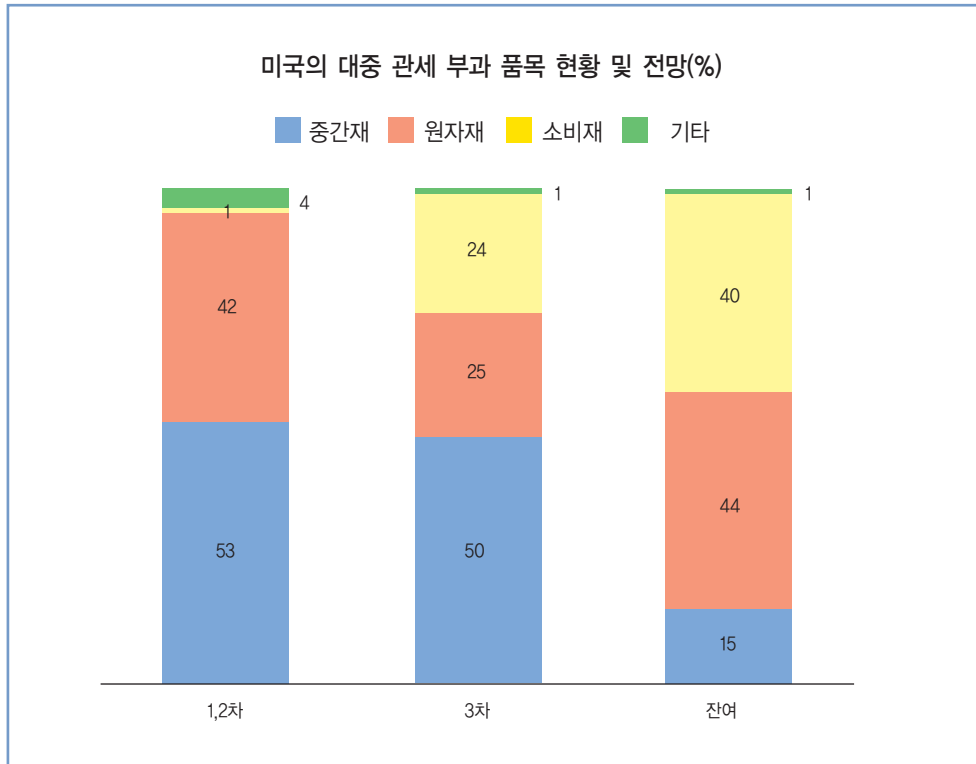
(2)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미국은 한국 수출의 12%, 중국은 24.8%로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다.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두 나라에게 높은 비중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이 시행한 1, 2차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아닌 주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자재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더욱 타격을 주었다. 이어진 3차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에서는 1, 2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소비재 품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에서 원자재 및 중간재뿐만 아니라 식품, 섬유, 가전제품 등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구매를 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중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났다. 301조 관세는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어서 우리기업들은 원활한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 아니라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가 78.9%이고 자본재가 17.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자재들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 또한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었다.

계속되는 두 나라의 관세 부과 조치에 소비자들 또한 영향을 받아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소비 시장 위축 가능성에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이후 많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공정 되는 제품의 대미 수출을 줄이는 대신 미국 내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에 미국 내 우리기업들은 제품 생산 시 중국산이 아닌 다른 원자재 및 중간재를 찾아야 하는 것과 공장 내 필요한 장비들이 불가피하게 중국산인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자료 및 출처: PIIE, KITA

(3) 향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분쟁이 3차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럴 경우 중국 내 생산 공정의 수요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타개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품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7년 기준 세계 LED칩 생산 능력의 60%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중국 제조사에서 LED칩을 수입하던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내 법인이 있는 우리기업들의

|제 4 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대응방안 중 하나와 동일하기도 하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4차 관세 부과를 시행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이 적어 제재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억 달러 규모로 제한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000억 달러의 관세 부과에 비교하면 1/1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관세 부과 조치 이외에 미국 투자 기업 압박 및 대미 수출 금지 품목 등 다른 제재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또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어 4차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담 이후 12월 1일에 무역 분쟁에 관련해 직접 회담을 가진 직후 양측 실무 관리들이 논의 중이다. 분쟁 이후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의 안에 일부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뚜렷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4) 관련 지원사항

한국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수출과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유의사항과 이와 관련해 원산지 기준 및 관세부과 품목 조회 방법이 담긴 원산지 판정관련 특별지원 안내문을 공지했다.

對 중국 보복관세 품목 조회 연방 사이트

▶ 미국의 對 중국 보복관세 해당 품목 조회 방법

1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3248.pdf>

2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inal%20second%20Tranche.pdf>

3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_09.17.18.pdf

▶ 미국 일반 원산지 표시 규정 (19 CFR 134)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40971bfd069d396f05385bb9g4491529&mc=true&tpl=ecfrbrowse/Title19/19cfr134_main_02.tpl

▶ 미국 원산지 사전판정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https://erulings.cbp.gov/home> → 하단에 'Begin Application'을 클릭

▶ 미국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 제도

<https://rulings.cbp.gov/home> → 검색란 (Search)에 품명 등을 입력

■출처: 한국 관세청

원산지 판정 확인 절차 및 업체 유의사항 1

1.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이 '한-중 연결공정 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혼합 생성 제품' 인지 확인
(이하 중국관련 제품)

2. 중국관련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인지 검토

활용기관

- 원산지 규정 · 기준 상담 → 한국 관세청 출입기업지원센터
-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신청 → 한국 관세청 원산지검증부서

3. 세관 상담을 활용해 한-미 FTA 원산지기준 적용 여부를 종합 검토

충족: 미국 통관 시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 신청

불충족: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 발급(한국산) 가능 여부

검토 후 발급 가능하다면 통관 시 보복관세 제외

활용자료

- 미국의 일반 원산지 기준 (19 CFR 102/132) 참고: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된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 아래 케이스에 따라 결정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개별 제품의 명칭, 속성, 사용방법, 기존 CBP 원산지 결정사례, 법원 결정, CBP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정 제도 활용
- 미국 원산지 결정사례 검색 활용

■출처: 한국 관세청

원산지 판정 확인 절차 및 업체 유의사항 2

4. 중국산으로 판단될 시, 해당 수출제품이 보복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확인 활용자료

- 미국의 對 중국 관세부와 품목 리스트 (1-3차) 참고
- 1차 ('18.07.06, 818개 품목)
- 2차 ('18.08.23, 279개 품목)
- 3차 ('18.09.24, 5,745개 품목)

5. 보복관세에 해당되는 제품일 경우, 세번분류 정확성 검토 (보복관세 제외 품목으로 분류 될 가능성 검토)

활용자료

- 미국 관세당국(CBP)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 활용
- 한국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 활용

6.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해당여부 종합 판단 → 업체 수출입 경영 활용

■ 출처: 한국 관세청

4. 세이프가드: 세탁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및 모듈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2018년 12월 현재 관련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22일 한국산 및 수입산 세탁기 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첫째 20%, 2년차에는 18%, 3년차에는 1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첫째 50%, 2년차에는 45%, 3년차에는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1) 쟁점사항 및 배경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과거 WTO 상소기구를 통해 한국 업체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적용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미 국제무역회(ITC)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청원, ITC는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인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 이에 한국의 세탁기 대미수출에 계속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 월풀은 ITC에 삼성 및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청원했다. 또한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월풀은 2011년 한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시장가치 아래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 업체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으나, 한국은 2013년 WTO에 제소하여 2016년 9월 한국과 미국 간 WTO 세탁기 분쟁 상소심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향후 불공정한 보호무역조치가 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ITC에 세탁기 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ITC가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인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18년 1월 22일부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I 제 4 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가 시행됐다.

세이프가드는 미국으로 세탁기를 수출하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지만, 월풀 측이 청원근거로 삼성 및 LG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이 두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세탁기에 대한 수입 금지는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LG전자도 성명을 통해 “월풀은 미국 시장에서 LG 같은 선도적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능력이 없어서 이번 청원을 낸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ITC가 국제적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16년만으로, WTO 등 국제기구의 반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거 미 정부에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현재의 이례적인 상황은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태세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제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구분	완제품(TRQ)			부품(TRQ)		
	쿼터	쿼터 內 관세	쿼터 外 관세	쿼터	쿼터 內 관세	쿼터 外 관세
1년	120만대	20%	50%	5만개	0%	50%
2년	120만대	18%	45%	7만개	0%	45%
3년	120만대	16%	40%	9만개	0%	40%

■ 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2) 최근 상황 및 반응

2018년 상반기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삼성(19.1%), LG(17.2%), 월풀(16.7) 순이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했던 월풀은 작년대비 점유율이 0.6%가 줄어드는 등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 또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에서도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발을 표명하는 의견이 있다. 최근 삼성과 LG 모두 미국 현지 내에 생산 공장을 시공 또는 인수 중에 있는데,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입게 될 경우, 한국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 철수를 선언하여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 많은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포함한 특정 수입산 세탁기들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세이프가드 제재를 받지 않은 세탁기 제품들까지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중 세탁 관련 장비 지수가 2018년 5월 기준으로 3개월 동안 17%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로 유일한 두 자릿수 상승률일 뿐 아니라, 작년 2017년 5월과 비교했을 때에도 8.4%나 상승해 최근 5년 내 최고 상승률이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예상했었으나, 전문가들은 연간 판매되는 약 1,000만대의 세탁기 가격 인상분을 중합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 정부는 2018년 5월 14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한국 정부는 제소에 앞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미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월 6일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 8,000만 달러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었다. 양허정지와 같은 무역보복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3) 향후 전망

한국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 세탁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1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과 LG의 세탁기 수출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어,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긴급수입제한 협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요건인 수입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입국과 조사대상인 수출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에 의해 피해를 본 국가는 대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WTO에 공식으로 제소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세 부과 대상 생산물량을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했지만 국내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5. 세이프가드: 태양광

미국 행정부는 2018년 1월 22일 태양광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태양광 패널, 모듈 및 셀 제품들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개시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태양광 관련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태양광 모듈 제품은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동안 매년 5%씩 인하하는 것이고, 셀 제품은 2.5GW 초과 물량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4년 동안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1) 쟁점사항 및 배경

2017년 4월 미국 내 생산설비를 보유한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Suniva, SolarWorld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다. 이들은 중국, 한국산 태양광전지의 저가 공세로 미국 관련 산업의 시장 비중이 21%에서 11%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 48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생산된 태양광전지 및 패널에 수입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했다. ITC는 이후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5월 WTO에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8년 1월 22일 세탁기 제품과 함께 수입산 태양광 제품들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구분	완제품(TRQ)			모듈(관세)
	쿼터	쿼터 内 관세	쿼터 外 관세	
1년	2.5GW	0%	30%	30%
2년	2.5GW	0%	25%	25%
3년	2.5GW	0%	20%	20%
4년	2.5GW	0%	15%	15%

■ 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2) 최근 상황 및 반응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2017년 세이프가드 발효 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 앞서 “수입규제 시행 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 8,000여 명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국산 태양광 제품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오히려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것이고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설비 투자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태양광 기업인 사이프레스 크릭 리뉴어블즈(Cypress Creek Renewables, LLC)와 사우스 커런트(South Current)는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각각 15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투자를 보류 혹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늘어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시설 증설 투자액인 1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은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한국산 제품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외국산 제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15% 높은 가격인 점을 강조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 등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업체는 주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업체는 발전 사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미국 내에서도 상·하원 의원 69명이 국제무역위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여 외국산 태양광전지에 대한 수입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2018년 3월 16일까지 셰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서를 관계자들을 통해 받고, 9월 19일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8개의 태양광 제품은 셰이프가드 규제를 면제받게 되었고 HS코드 변경 또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면제된 제품들은 455W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 제품들은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mm를 초과하지 않고 너비가 100mm 이상 255mm 이하이고, 표면적이 2,500cm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들이 포함됐다. 또한 특정 태양전지 패널도 면제를 승인받았다.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2018년 5월 14일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셰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했다. 결과는 빨라도 내년 5월에 공개되며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상소하면 3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3) 향후 전망

미국태양광산업협회는 “연방정부의 세제지원과 저렴한 수입 태양광 패널로 인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7년 미국 내 68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증설됐지만, 2018년에는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관세율 부과로 약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태양광 셀, 모듈, 패널을 포함한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했으며 비조립형 제품은 7위를 기록했다. 2017년 한국의 조립형 제품 대미 수출액은 11억 달러, 비조립형 제품은 약 500만 달러였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조립형 태양광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태양광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품목면제 발표로 인해 수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제 4 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세이프가드 품목 면제 신청서 검토에 따라 추가 품목 면제 발표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기에 미국으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는 2년가량 소요되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각각 3년과 4년임을 생각했을 때, 제소 기간 내 한국 기업들의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 승소를 하더라도 보복관세 부과 조치 외에는 기업들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6. 비자

2017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고 불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13788)에 서명, 비자 심사 및 서류 제출 요구 등의 기준이 강화되어 미국에 진출을 한 한국 기업이 애로 사항을 크게 겪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이민국, 국무성, 연방 노동청 등 정부기관의 심사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어 L-1A/L-1B 비자, E-1/E-2 비자 및 H-1B 비자의 추가 증빙서류 요구 및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 방문조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력 및 인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주재원 비자(L-1)

주재원 비자(L-1)의 체류 기간(Period of Stay)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9일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에 의거해 주재원 비자의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주재원 비자의 체류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연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 연장된 주재원 비자 기간(5년) 취지에 맞춰 체류 기간도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되었지만, 미국에 5년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체류기간을 3년 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업무활동에 불편을 초래해 회원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 제 4 장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회계연도 2017년 L-1A 비자 승인 거부율과 추가 서류 요구율

분기	비자 승인 거부율	추가 서류 요구율
1분기 (10월-12월)	12.8%	34.7%
2분기 (1월-3월)	17.5%	39.2%
3분기 (4월-6월)	19.7%	35.0%
4분기 (7월-9월)	21.4%	39.6%
평균	17.9%	37.1%

■ 자료: USCIS, NFAP

회계연도 2017년 L-1B 비자 승인 거부율과 추가 서류 요구율

분기	비자 승인 거부율	추가 서류 요구율
1분기 (10월-12월)	21.7%	46.4%
2분기 (1월-3월)	28.6%	50.1%
3분기 (4월-6월)	28.6%	39.8%
4분기 (7월-9월)	28.7%	47.2%
평균	26.9%	45.9%

■ 자료: USCIS, NFAP

특히 2017년 4월 이후 L-1A, L-1B 비자의 거부율이 늘어나고 있다. 회계연도 2017년의 L-1A 비자 승인 거부율은 계속 증가했고 특히 1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1B 비자도 마찬가지로 1분기와 2, 3, 4분기의 승인 거부율을 비교하면 7%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임직원 및 본사 직원 발령이 늦춰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

2017년 11월 현재 대리, 과장급의 주재원 비자신청인의 경우 미 국무성 및 이민국에서 'low level management or supervisory position'으로 간주하여 미국 노동력으로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보고 비자를 기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요직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1 비자 신청 자격의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 인력 수급이 힘들며 채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격 요건 관련하여 예컨대, 한국에 소재한 해당 기업의 연간 전체 교역량 중 미국 교역량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에 수입 급감 또는 다른 사유로 50%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해당년도만의 교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거 3년간의 실적으로 대체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발급 요건이 필요하다고 KOCHAM 회원사들은 개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업의 E-1 비자 발급은 다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발급 사유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주재원의 자격에 따라 비자 심사가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일 업무의 주재원이 교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조건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업이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동일 업무 중인 주재원이 단지 바뀔 경우에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적용 받지 않고 발급해 주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E-1/E-2 비자 체류기간 연장

■문제점

E-1/E-2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반해 미국 입국 시 체류 유효기간(I-94)은 2년만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3년인 주재원 근무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류 유효기간을 2년 체류 후 1년 추가적인 체류를 위해 2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하더라도 연장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신분 연장은 가능하나, 그 비용이 적지 않다.

■ 개선 요청사항

주재원 비자(E-1/E-2)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미국 입국 시 체류유효기간(I-94)을 3년으로 연장하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귀국 시 정리 기간 등을 위한 grace period는 60일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E-1/E-2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사안이며 의회의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재원 관련 비자 취득·갱신과 체류기간 연장 이슈는 한국만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전문인 취업비자(H-1B)

매년 지정된 비자 쿼터량을 초과한 서류 접수 때문에 H-1B 신청자들은 서류 심사 이전에 무작위로 진행되는 추첨부터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추첨에 통과해도 비자 승인을 확신할 수 없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서류 준비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 여러 불편들을 기업들과 취업준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장 방문조사는 기업들의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회계연도 2017년 H-1B 승인 거부율과 추가 서류 요구율

분기	비자 승인 거부율	추가 서류 요구율
1분기 (10월-12월)	19.8%	17.3%
2분기 (1월-3월)	17.3%	13.5%
3분기 (4월-6월)	15.9%	22.5%
4분기 (7월-9월)	22.4%	68.9%
평균	18.9%	30.6%

■ 자료: USCIS, NFAP

회계연도 2017년의 H-1B 추가 서류 요구율을 보면 4분기는 68.9%로 1, 2, 3분기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퍼센트가 아닌 숫자로 봤을 때도 1, 2, 3분기의 추가 서류 요구는 총 63,599건이 있었지만 4분기는 총 63,184건으로 상당한 건수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한 거부율과 추가 서류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행정 명령 이후 인사 배치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바뀐 담당관리들이 본격적으로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자 승인 거부의 이유는 다양한데 주로 직무의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노동자의 직무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판정될 때가 많다.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아닌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금수준도 심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 이유는 임금이 낮으면 낮은 임금을 이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H-1B 연장 신청 또한 수속이 적체되고 거부율이 증가하여, 3년의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귀국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 신청자 및 고용주의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심사강화 배경 관련,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H-1B 비자의 연장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기존 비자의 연장 신청에도 보다 철저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USCIS의 H-1B 비자 갱신 지침은 ‘Due deference policy’를 채택하여, 신청자가 이전에 제출한 서류에서 범법행위 등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승인된 청원서를 그대로 존중하여 승인이 되었으나, 해당 관행이 폐기됨에 따라 신규 신청 당시의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심사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발동한 ‘미국인 고용,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주재원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문인 취업비자 쿼터의 부족으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매년 H-1B 쿼터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이후 양국 간의 교역 규모 및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에 맞춰 추가 비자 허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8년 3월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2017년 발급한 전문인 취업 비자 가운데 인도인이 72%, 중국인이 10%를 차지한

| 제 4 장 |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것에 비해 한국인은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허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7월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다른 통상문제들을 비롯해 한국에게 별도의 비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9월에 합의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관련해 추가된 부분은 없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의 발효에 따른 인적 재원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H-1B 특별할당 쿼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칠레와 싱가포르의 각각 1,400개와 5,400개의 H-1B 비자의 쿼터 혜택을 받고 있고, 호주는 FTA 협상을 통해 별도의 취업비자(E-3)의 혜택을 받아 해마다 15,000개의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쿼터 제한이 없는 TN 비자가 따로 있어 전문직 취업비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관련 제도에 대해 개편이 있을 것을 연방 관보에 게재한 ‘Semiannual Regulatory Agenda’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최소 투자금의 제한이 없는 E-2 비자의 ‘Substantial Amount Capital’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2018년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H-1B 비자의 경우, 사전 접수 시스템이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용주가 약식으로 1차 온라인 접수를 한 이후,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만 2차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형식이다.

또한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비자인 H-4 비자에 대한 취업 허용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H-4 신분으로 노동허가(EAD)를 발급받은 노동자들의 취업이 내년 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추진 현황

■연도별 추진 현황

가. 113대 의회 (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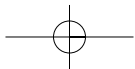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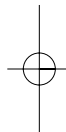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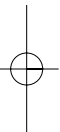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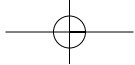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 (별도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쿼터수 15,000개)를 하원(2013. 4월) 및 상원(2014. 7월)에 제출. 하원 112명, 상원 6명 지지 확보(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
- (통합이민법 포함 방식) 2013. 6월 상원을 통과한 '통합이민법안'에 FTA 체결국에 대한 비자쿼터 5,000여개 반영하였으나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

나. 114대 의회 (2015~2016)

- Partner with Korea Act(쿼터수 15,000개)를 하원(2015. 2월) 및 상원(2015. 6월)에 제출. 하원 81명, 상원 6명 지지 확보(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

다. 115대 의회 (2017~2018)

- Partner with Korea Act(쿼터수 15,000개)를 하원(2017. 4월) 및 상원(2017. 6월)에 재상정. 하원 81명, 상원 3명 지지 확보(2018. 11월)
- 한국 정부(주미대사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상/하원 주요의원 및 보좌관 접촉, △자문회사를 통한 미 의회 내에서의 전문적인 노력, △주별 한인사회 기업들의 grassroots활동(총영사관 협조)등 미 의회 내 지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중
- 다만, △이민개혁에 대한 공화/민주간 입장차,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H-1B 발급 요건 강화 및 악용 방지 등 제도 개선 지시(4.18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추진 여건 악화



V. 미국진출 우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 | |
|----------|------------------|
| 1. LG전자 | 4. 중소기업진흥공단 |
| 2. 삼성전자 | 5. 포스코 |
| 3. 두산중공업 | 6. Kotra/LG 생활건강 |

KOCHAM 회원사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개별적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지닌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각 지방 및 연방정부의 세수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각종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등 해당지역 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 LG전자



LG 전자는 미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난구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 적십자/ LG 세탁 트레일러/ 푸드뱅크

LG 전자 직원들은 미 적십자사 뉴저지 지부에 정기적으로 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구호 트레일러를 만들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 지역을 돌며 운영 중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파운드 분량의 식품을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지원 중이다.

세계환경의 날: LG 글로벌 환경 보호의 날

매년 UN에서 지정한 세계환경의 날을 LG 글로벌 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미 전역의 LG 직원들이 각 지역 내 공원 및 산책로를 청소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보호 노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뉴저지상공회의소로부터 모범적인 사업운영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삼성전자



미 전역에 있는 삼성전자 지사는 회사 봉사의 날에 참여하고 있다. 이 날은 사내 직원들이 당일 업무를 잠시 미뤄두고 그들이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의 자선 파트너에게 시간을 할애한다. 올해 3,6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했고, 삼성전자 사무실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14년 시작된 이래 삼성전자 미주지역 직원은 봉사의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 만 8 천 시간 이상의 지역 사회 봉사에 기여했다.



3. 두산중공업



〈Child life program at the Barnabas Children's Hospital of NJ에 장난감을 기부〉

두산그룹 산하의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뉴저지,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서 총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7년 미국 굴지

의 건설중장비 업체인 Ingersoll Rand로부터 Bobcat사업부 등 3개 사업부를 인수하여 약 3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조지아주에 엔진조립공장 준설하는 등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도 큰 공을 세우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또한 아시안 유니버시티 여성재단 및 뉴욕 한국전 참전용사회, 뉴욕대 등 비영리단체 및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서는 KACF, 한인유권자센터 및 미국 내 뉴저지, 텍사스, 플로리다 지역 내 한글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사무소인 미국중소기업지원센터(SBC USA Office)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이나 운영에 관심이 있는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8년 중 2회에 걸쳐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관리 방법’을 주제로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무료강좌는 많은 동포들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심은 있으나 마땅한 한국어 강좌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하여 시작 되었으며 현지 웹 디자인 전문가인 Jeff Lee (스튜디오 시나브로 대표) 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강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의실을 활용하여 5.24~7.26(1회차) 및 9.13~11.15(2회차) 기간 동안 각 10주 야간과정 (매주 목요일 저녁 7:00 ~ 9:30) 으로 운영되었고 기수 당 15~16명의 수강생이 참석하여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졸업식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 강의 내용 중에 한국의 우수중소기업제품 소싱 방법에 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여 동포 온라인쇼핑몰 예비창업자가 한 번의 강좌 수강을 통해 쇼핑몰 제작, 제품 소싱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 포스코



POSCO America는 1984년 창립 이래 한국 동포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With POSCO 나누미’라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With POSCO 나누미’는 ‘포스코-임직원(봉사자)-사회’와 함께 손잡고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포스코 블루색은 단결력을, 오렌지색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녹색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POSCO America는 2016년 12월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본사이전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18년도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를 지원하는 Foster Care Support Center에 방문, 학용품 기부 및 기부품 정리 활동 실시
- 2분기 : 아름다운 친환경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Sandy Springs Recycling Center에 방문, 재활용품 분리 및 시설 환경개선 활동 실시
- 3분기 :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Community Assistance Center에 방문, Food Sharing을 위한 물품정리 활동 실시
- 4분기 : 유기견 보호시설인 FurKids Center 방문, 페인트칠 등 시설 환경개선 및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등의 활동 실시



2019년에는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활동과 더불어 한국전 참전용사 등 미국 재향군인(Veterans)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조지아주 Augusta에 위치한 Fisher House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Fisher House는 미국 전역에 70여 곳이 있는데, CNVAMC (Charlie Norwood VA Medical Center) 등 재향군인 전용 병원에 환자가 입원 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무료 숙박시설이다.

6. Kotra / LG생활건강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LG 생활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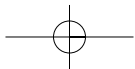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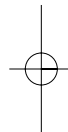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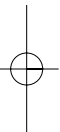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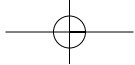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HS2AS 아트콜라보
CSR 사업’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QCA(Queens Council on
the Art: 뉴욕 퀸즈 예술
위원회)의 저소득층 청소
년 미대입학 지원 프로그램
인 ‘HS2AS’ 출신 예술
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업체
제품과의 아트콜라보 디자

인 컨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뉴저지 소재 LG생활건강 미주법인이 현지 국내업체로 컨테스트에 참여하여 공모가 필요한 자사 제품을 지정하고 최종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다. 2018년 12월 진행된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현지기관 및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LG생활건강은 우승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는 기관과 기업간 민관협동사업으로, 코트라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기관 및 진출기업 전반에 대한 국가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저소득층 출신 예술가들과의 아트콜라보 사업으로 예술 지망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VI.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1. 각 지역별 협회 소개

- (1)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2)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 (3)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 (4) 휴스턴 한국지상사협회(KCAH)
- (5) 조지아 상공회의소(KCCIG)
- (6) 서북미 한국지상사협의회(KTAPN)

2. 각 지역별 협회 회원사 현황

- (1)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2)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 (3)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 (4) 휴스턴 한국지상사협회(KCAH)
- (5) 조지아 상공회의소(KCCIG)
- (6) 서북미 한국지상사협의회(KTAPN)

I 제 6 장 | 미주지역협의체 개요

미전역에는 뉴욕, 엘에이, 시애틀, 휴스턴, 디트로이트, 아틀란타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뉴욕),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엘에이), 서북미 한국지상사협의회(KTAPN, 시애틀), 휴스턴 한국지상사협의회(KCAH, 휴스턴), 미시간 한국지상사협의회(KCAM, 디트로이트), 조지아상공회의소(KCCIG, 애틀랜타) 등 5개 지역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협의체 간 MOU 체결을 통해 대외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미주지역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다.

1. 미국 내 한국 지상사협회 소개

(1)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영문명: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 설립연도: 1992년 6월
- 회원사: 총 111개사
- 회 장: 조주완 LG전자 북미지역대표
- 소재지: 뉴욕, 뉴욕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은 90년대 초 세계 수출시장 여건 악화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미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 미국 내 한국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정부에 대한 통상관련 건의 및 교섭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92년 6월 19일 설립되었다.

한편, KOCHAM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 정부와 의회에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활동 등 미국 내 활동뿐 아니라, 한국 사회 및 정부에도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책

적인 지원과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등 양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차원의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 o 영문명: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 o 설립연도: 1996년 3월
- o 회원사: 총 131개사
- o 회 장: 임웅빈 KT America 법인장
- o 소재지: 엘에이, 캘리포니아주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는 지난 1996년 3월 25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고 사업 활동상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함과 아울러 미주 교포사회를 포함한 미국사회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미간 통상증진 및 유대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3) 미시간 한국지상사협회(KCAM)

- o 영문명: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
- o 설립연도: 1995년 4월
- o 회원사: 총 62개사
- o 회 장: 양재하 DY America 사장
- o 소재지: 디트로이트, 미시간주

1995년 4월 1일에 설립된 미시간지상사협회는 한국 지상사로 파견된 주재원 및 미시간 소재의 지상사 협회에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유대와 친목을 도모, 이를 통한 회원(사)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I 제 6 장 | 미주지역협업체 개요

(4) 휴스턴 한국지상사협의회(KCAH)

- 영문명: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
- 회원사: 총 42개사
- 회 장: 이병선 삼성중공업 휴스턴지사장
- 소재지: 휴스턴, 텍사스주

휴스턴 및 텍사스 지역의 한국 지상사 및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서 회원사들은 주로 오일 및 가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회원사 간의 친목 도모 및 각종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사들의 각종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5) 조지아 상공회의소(KCCIG)

- 영문명: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
- 회원사: 총 30개사
- 회 장: 현대건설기계 강명식 법인장
- 소재지: 애틀랜타, 조지아주

한국에 본사를 둔 한국계 회사의 주재원으로 애틀랜타에 주재하는 직원을 회원으로 한 단체로, 미국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정보 교환과 주재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공식 모임 외에 타 지역 주재원,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과 기타 경제 세미나 등의 참석 등을 통해 각 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서북미 한국지상사협의회(KTAPN)

- o 영문명: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
- o 설립연도: 1980년 10월
- o 회원사: 총 8개사
- o 회 장: 공 석
- o 소재지: 시애틀, 워싱턴주

1980년 10월에 설립된 협회로서 서북미 5개주(WA, OR, AK, ID, MT) 지역에 설립된 지사, 상사,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교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미 양국의 교류 및 무역진흥에 적극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각 지역별 협회 회원사 현황

(1)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이사회사	일반회원사	특별회원사
KB국민은행	(주) 한진	Bank of Hope
CJ America	Benison Transport Inc.	Best Home Fashion Inc.
CJ 제일제당	CESNA GROUP	Choi & Park, LLC
IBK기업은행	CJ대한통운	Citrin Cooperman
KEB 하나은행	GPMG	CKP
KOTRA	Hiossen, Inc	Deloitte Touche
LG전자	HS Ad America	Earth Therapeutics
NH농협은행	KB증권 아메리카	Econo Agency
NH투자증권	KB손해보험(LIG손해보험)	Ernst & Young
SK	LG CNS	Hanmi Bank
금융감독원	LG 생활건강	HeyKorean, Inc.
대한항공	Pantos US	Honors Haven Resort & Spa
두산공작기계	경상북도뉴욕사무소	HRCap
두산중공업	고려제강	KLC Architects, PC
롯데뉴욕팔레스 호텔	교보생명자산운용	KPMG LLP
롯데상사	기아자동차	Lewis Brisbois Bisgaard&Smith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상	New York Country Club
산업은행	대우전자	Nixon Peabody LLP
삼성SDS	미래에셋대우	OAWINS Group
삼성물산	삼성증권아메리카	PLUS CAREER INC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Secur-All Insurance Agency
삼성전자	삼양사	Sheppard Mullin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Simon Gluck & Kane LLP
신한은행	세아제강	Smart Space LLC
아모레퍼시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Smith, Gambrell & Russell, LLP
아시아나 항공	신한금융투자	Solomon Agency
우리은행	코리안 리	Steptoe&Johnson LLP
코오롱	한국수력원자력	The Choi Law Group,LLC
포스코 아메리카	한국전력	Transwestern Commercial Services
포스코대우아메리카	한국투자공사	Traub, Lieberman, Straus and Shrewsbury

이사회사	일반회원사	특별회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은행 한국타이어 한화 현대상선 현대종합상사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HICO	한국투자증권 한샘 한솔제지 한화자산운용 현대자동차(워싱턴DC)	Unicorn Graphics Unicorn Insurance Agency Wicked Fashions, INC. Yoon & Kim LLP

(2) 남가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회원사명	회원사명
&TV Communications Inc ACI 변호사 그룹 AIR COURIERS INT'L INC Andrew Seo CHB Angeles Contractor Inc. Bank of Hope BKT (FIL MAX INC) CBB Bank CHA Health Systems Inc CJ 대한통운 CJ 아메리카 CKP KEVIN CHUN, PARTNER COLLIERS INTERNATIONAL DB Group Dimax Express Inc. DK Express Dongbu USA Everworld EXBON DEVELOPMENT INC	FNS FRONTIER LOGISTICS SERVICES Glory Calendars/Helen park & Associates GS 글로벌 GWANGYANG 불고기 Hanwha West (Properties, LLC) I-ED MAGAZINE InBody USA INNOVATIVE OFFICE SOLUTIONS JC&Company LLP JJ PERFECTION, INC KAREN JUNG LAW FIRM KB 손해보험 Kbiz Corporation KBS KEB 하나은행 LA Kim & Lee LLP CPA KOTRA L.A. KPMG LLP

회원사명

KT 아메리카
Law Offices of Christine C Lee &
Associates
Lee,Hong,Degerman,Kang & Waimey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LG상사(아메리카)
LOTTE Beverage America Corp.
MBC 미주법인
MKC Appraisal Inc
NGL Transportation
NH 무역
NS SHOPPING
SBS
SK네트웍스 아메리카
Sperry Commercial Global Affiliates
TRIO PINES (USA)
URi 글로벌
URIMAN INC
WANG GLOBALNET DBA HANMI
Western Diamond Tools
X-GOLF America, Inc.
Yeil Accounting America
경동나비엔
경상남도 LA사무소
경상북도 LA사무소
기아 USA
넥센타이어 아메리카
농심 아메리카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전선 미국법인
대한제강 미국법인
대한항공
더블유
델타항공
동국대학교 LA 캠퍼스
동국제강
동부화재
동일 고무 벨트

회원사명

디케이에스 글로벌 시스템비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켓전기 LA
롯데상사 아메리카
롯데호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C&T
삼성화재
삼천리 아메리카
삼탄
세아철강
세종학당 USA
수협중앙회
시티보험
신한은행
아메리츠 파이낸셜
아시아나 항공
엔타스 아메리카
오뚜기 아메리카
우리은행 LA지점
우리은행 미국법인
웅진
위니코니
유니티은행
이마트 아메리카
인삼공사 미국법인
자생한방병원
잡코리아 USA
주식회사 디엠티
(주)한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스마트 아메리카
진일 인터내셔널
천하보험
캘코보험
쿠쿠전자
태평양은행
파리바게뜨

회원사명	회원사명
포스코대우 아메리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풀무원식품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아메리카	한미보험
프라임메탈	한미은행
하나투어	한일개발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	현대종합상사
한국관광공사 LA사무소	현대해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흥진크라운
한국무역보험공사 LA사무소	효성 아메리카

(3) 미시간 한국상사지사협의회(KCAM)

회원사명	회원사명
A & W Products, Inc.	SJM NA INC
AinsTech Inc	Terry Barr Sales LLC
AMS America Corp.	TREK INC.
Austem USA	UHY Advisors
C.K. Yoon PLLC	Vogel Advisors
COAVIS USA INC.	VSP Logis Inc.
CTR America	경신흥딩스
DMC Motors	계양전기
Driving Display	광진 아메리카
GNS America	글로벌비스
HANDS USA CORP.	대동 시스템
JM USA INC.	대원
JPC 오토모티브	동서여행사
KB오토시스	동양 아메리카
Kintetsu World Express, Inc.	동양피스톤
KM&I 아메리카	로고스
KOTRA	롯데첨단소재
Nalara Corp.	명화 공업
SeAh Global Inc	바스프

제 6 장 미주지역협업체 개요

회원사명	회원사명
삼진 아메리카	천일 엔지니어링
세명 USA	칼링크
세플러 그룹 USA	태양 아메리카
시그마 인터내셔널	포드 자동차
심팩 아메리카	포스코 대우 아메리카
에스엘 아메리카	한국타이어 아메리카
우신시스템	한호 아메리카
이글오타와	헨켈
이래 오토모티브	현대 모비스
인지컨트롤스	현대 위아 아메리카
제이피씨 오토모티브	현대 파워텍
주식회사 만도	화승알앤에이

(4) 휴스턴 한국지상사협회(KC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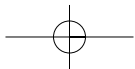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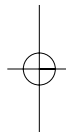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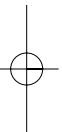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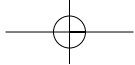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회원사명	회원사명
Atinum E&P INC	동성 핀텍
Baker & Hughes	롯데 케미칼
Baker & McKenzie LLP	범양 USA
BBVA compass	삼성 C&T
E1 Corporation	삼성 엔지니어링
E1 아메리카	삼성중공업
KLICHS LLP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OEA	세진중공업
KOEA (DNV-GL)	아이비 테크
KOEA (슈룸베르거)	주휴스턴영사관
KORAS	코리아월드
KYH	크루셜텍 USA
OCI 인터내셔널	태광 USA
SES	포스코 대우 아메리카
SK E&S	포스코 휴스턴지사
SK 가스	현대글로벌서비스
SK 이노베이션	현대상선
SK 해운	현대제철
STX Service Americas LLC	현대종합상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도쿄 코리아 아메리카 LLC	효성

(5) 조지아상공회의소(KCCIG)

회원사명	회원사명
GS칼텍스	만도
KEB 하나은행	무림 USA
KOTRA	신한은행
KPMG	에버다임 아메리카
KPX케미칼	에이티앤에스 USA
LG전자	윤창기공
LG하우시스	진성 T.E.C.
LG화학	코오롱
MCNS	팩트라 USA
SKC	포스코
Superior Essex	포스코대우
대한항공	한화 L&C
데스코 USA Corp.	현대건설기계
두산산업차량	현대일렉트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흥아타이어

(6) 서북미 한국지상사협의회(KTAPN)

회원사명	회원사명
농협사료	중외제약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전자	현대상선
아시아나항공	NAU International



VII.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활동사항



■한미 통상 및 회원사 애로사항 개선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무역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방문단을 구성해 미 정부당국과 의회 등을 방문하여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워싱턴 방문으로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KOCHAM의 각종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한 건의 및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활동 전개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연례체육대회와 연례만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정보 제공 및 서비스 확충 활동 전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비롯해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협력 활동

지역 동포 사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한인회가 주최하는 연례 코리안 퍼레이드에 꽃차 참여를 필두로 한인회관 기금 지원, 기타 각종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동포사회 지원 차원에서 동포 대학생들을 회원사인 지상사들과 금융기관에 배치하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은 매년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동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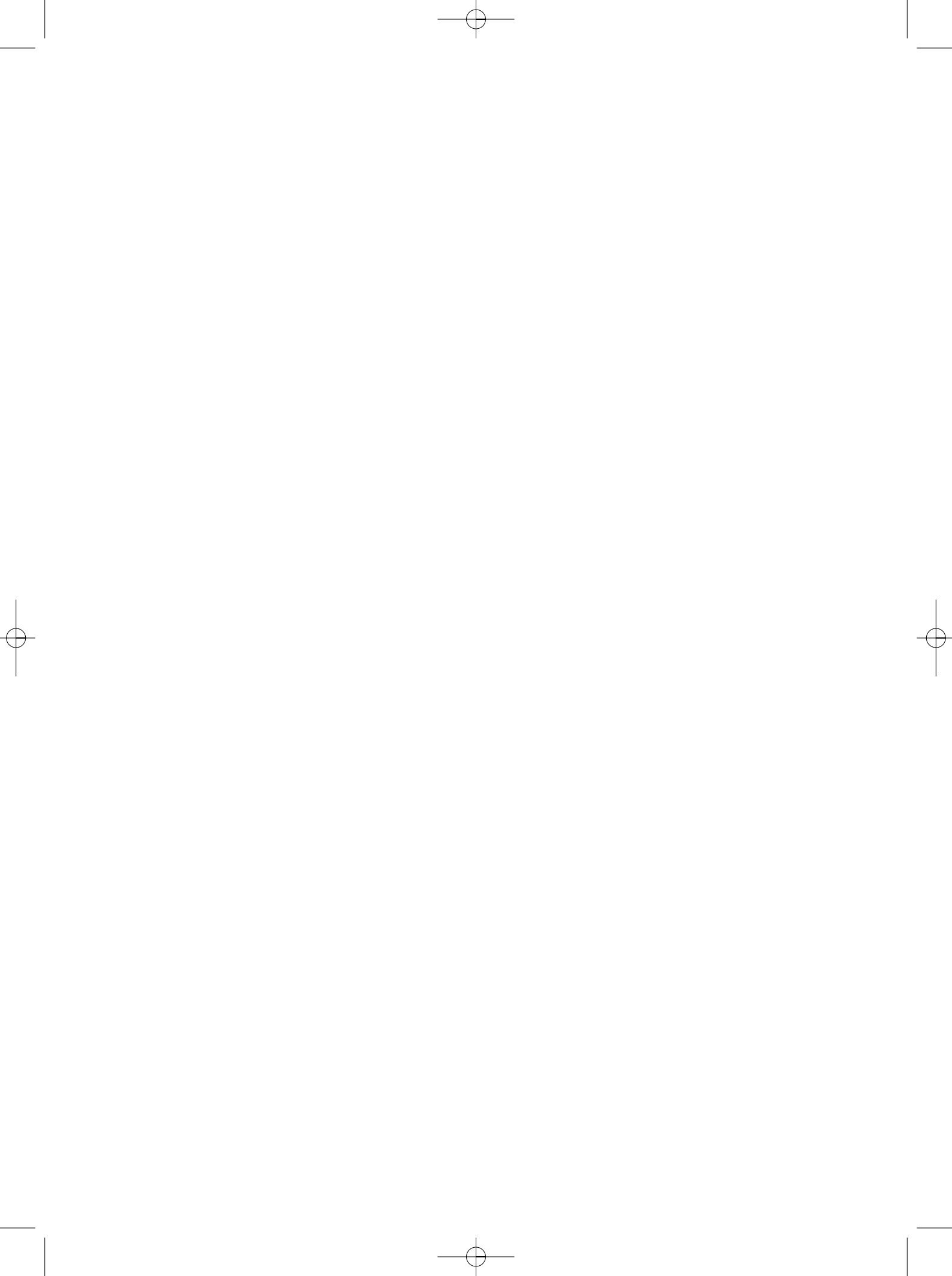
■우리한국학교 운영

KOCHAM 부설 우리한국학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회원사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할 경우 본국의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규 과정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검증된 교사진을 바탕으로 한인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2019 KOCHAM WHITE PAPER

_English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S.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sanctions policies, which emerged in 2017 under the banner of "America First", have not abated. In particular, not only is the Administration considering imposing additional tariffs on the auto industry in addition to steel and aluminum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s not expected to be resolved easily despite a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sponse, to address the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S.,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Chairman Joo Wan Cho) held seminars with relevant experts, and at the same time sent letters this year to high-ranking officials at concerned federal government agencies in the White House and the USTR requesting that sanctions on Korean companies be eased. Also, delegations have visited Washington, D.C. to engage in continuous activities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through networking with federal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U.S. Congress.

In relation to these developments, here are summaries, respectively, of the backgrounds, key issues, and the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with respec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which deals with steel, aluminum and the auto industry; the U.S.-China "trade war"; the safeguard(washing machines, solar energy) measures; and the work visa policy that continues to tighten.

1.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STEEL

The trade policy of reducing the trade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President Trump's campaign promises, began in earnest in 2018 and is having an impact on Korea-U.S. trade as well. With respect to the steel, aluminum and auto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U.S. Administration is searching for ways to aggressively sanction items imported into the U.S. by ordering investigations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nd applying or considering imposing tariffs based thereon. The U.S. made a decision in March 2018 to impose a 25%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but Korea was later exempted. However, Korean companies are facing another problem of an export quota that is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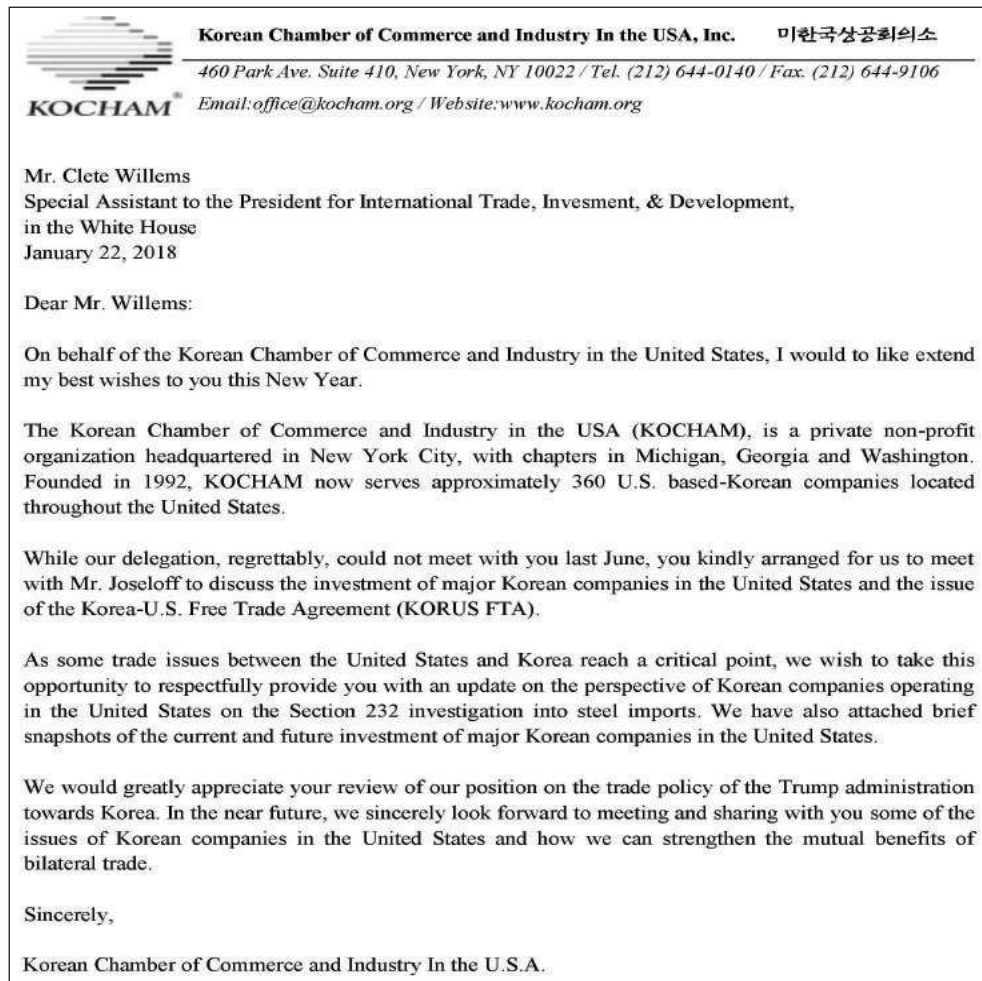
to 70% for a 3-year period from 2015 to 2017.

(1) Background

The Trade Expansion Act is a law that was enacted in 1962 where the president can take emergency measures such as limiting import volume or imposing a high duty rate when foreign imports are judged to pose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S.

In April 2017, President Trump ordere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o conduct a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In response, KOCHAM sent the following letter to the White House in January 2018 requesting that an investigation into and tariff assessment on Korean steel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be reconsidered.



In February 2018,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rough a security investigation report, proposed 3 ways of placing restrictions on steel exporting countries.

- 1) Assess a uniform 24% tariff for all countries
- 2) Assess a 53% tariff for 12 countries including Korea (Korea, Brazil, China, Costa Rica, Egypt, Malaysia, India, Russia,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and Vietnam), and implement a quota system for other countries based on 100% of the 2017 volume imported into the U.S.
- 3) Implement a quota system limiting the volume of steel exports to the U.S. to 63% of the 2017 volume for all countri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said that these plans are meant to raise the U.S. steel capacity utilization rate from 73%(as of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to 80%, which is the minimum level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the steel industry. The Department of Commerce also recommended that tariff regulations be applied to all countries and all steel and aluminum products, and be additionally applied to tariffs that are currently in place. Based on the Commerce Department's plan, President Trump on March 8, 2018 signed an order imposing tariffs of 25% and 10%, respectively,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to the U.S., to go into effect in 15 days. For 7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Korea (Korea, Mexico, Canada, EU, Brazil, Argentina, and Australia), a grace period on the tariff assessment was granted until May 1.

Then on March 26, the U.S. agreed to exempt Korean steel imports from the 25% tariff, but to make up for the exemption, limited the volume exported to the U.S. to 70% of the average yearly volume over 3 years from 2015 to 2017, setting this as an absolute quota. Under an absolute quota, importing and customs clearance is not permitted for volumes exceeding the quota, even if an additional 25% duty were pai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s currently reviewing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requests submitted after the tariff exemption by U.S.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to import additional steel products.

In addition, compared to export volumes that are different for each year and item, the application of a quota system based on a 3-year average has still further limited Korean steel companies' exports to the U.S.

(2)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Korea's average steel export volume over the last 3 years, from 2015 to 2017, was 3.83 million tons, and for 2018, a quota of 2.63 million tons was granted to Korea. This is 73% of the previous year's export volume of 3.62 million tons.

For sheet and plate items, a quota of 111% of the 2017 volume was secured. However, for steel pipe items such as steel pipes for oil wells, a quota level of only 51% was secured.

Moreover, with the U.S.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nnouncing that the quota regime will be applied to items imported starting on January 1, 2018, Korean and U.S. companies dealing in some of the Korean steel items for which export quotas have already or almost been reached have complained that this will result in problems in business, such as higher manufacturing costs, increased customs clearance risks, and decrease in sales due to increases in steel raw material import prices and procurement difficulti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said, "We will provide support so that the steel industry can obtain exclusions for products being sent to purchasing companies and investing companies in the U.S. as much as possible."

The export volume for Korea as of October 15, 2018 was 2.14 million tons, which is 81% of the quota. Of this volume, 10 steel pipe products make up 1.02 million tons, already 99% of the quota, while 13 sheet products make up 900,000 tons, or 69% of the quota.

(3) Current Situation and Outlook

On August 29, 2018, President Trump signed a proclamation allowing exemptions depending on the U.S. industry situation with respect to steel and aluminum product quotas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Brazil, Argentina). For Korea, an exemption was finalized for steel products only. Moreover, American companies can now request exclusions from quotas and tariffs so that they can import from Korea products whose U.S. production is not sufficient in terms of volume and qualit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explained through a statement, "In these cases, the quotas will not be applied, nor will tariffs be imposed."

On September 17,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ccepted the product exclusion application filed by Micro Stamping, a U.S. company, with respect to products from SL Tech, a Korean company. The product for which exclusion was granted is a micro-steel pipe used in medical devices. Currently a number of Korean steel companies with U.S.

subsidiaries, including Posco, Hyundai Steel, and Seah Steel, have submitted product exclusion applications and are awaiting the results, and Korean companies without manufacturing subsidiaries in the U.S. are also in discussions with U.S. customers about filing product exclusion applications.

Although the Korean steel industry ha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recent measures, industry professionals are saying that future results are difficult to generalize because this was the first case.

The product exclusion application form can be downloaded online and uploaded after completing. Submitted applications can be viewed by anyone, and U.S. companies can object to an application within 30 days after it is uploaded. A product exclusion application can be submitted at <https://www.regulations.gov/docket?D=BIS-2018-0006>, and related procedures and details can be viewed at <https://www.bis.doc.gov/index.php/232-steel>.

Excerpt from Request for Exclusion from Steel Imports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Request for Exclusion from Remedies: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Steel Imports

Exclusion Request Requirements: Onl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that use steel products (e.g. flat, long, semi-finished, pipe and tube, and stainless) in business activities (e.g., construction, manufacturing, supplying steel product to users) in the United States may submit an Exclusion Request.

For an Exclusion Request to be considered, the Exclusion Requester must provide factual information on 1) the single type of steel product it requires using a 10-digit HTSUS code, including its specific dimension; 2) the quantity of product required (stated in kilograms) under a one-year exclusion; 3) a full descrip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steel product it seeks to import, including chemical composition, dimensions, strength, toughness, ductility, magnetic permeability, surface finish, coatings, and other relevant data. Exclusion Requests must be submitted using this Excel-based document. Paper submissions will not be accepted. A separate Exclusion Request must be submitted on each distinct type and dimension of steel product to be imported. All applicable question blocks in the form must be completed for the Exclusion Request to be accepted. Exclusion Requests will be denied if the applicant: 1) does not sufficiently address the specified reporting requirements; 2) cites the improper HTSUS code, or 3) provides incorrect product descriptions. Organizations electing to attach supporting documents must provide these documents in PDF format and it must not exceed 25 pages. All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Exclusion Request i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Do not provide sensitiv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rganizations should upload their completed Exclusion Request pertaining to a steel product to www.regulations.gov under Docket Number BIS-2018-0006. An Exclusion Request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Processing of an Exclusion Request will take approximately 90 business days. Notification of granted Exclusions will be posted on www.regulations.gov. For questions related directly to completing this form, contact BIS via email (steel232@bis.doc.gov) or telephone (202-482-5642).

2.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AUTOMOBILES

Amo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sanction measures,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the impact that the movement toward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imported automobiles will have on Korea.

As of May 2018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s conducting a national security threat investigation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with respect to imported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and is scheduled to report the results to the president by February 19, 2019. The plan for imposing tariffs on automobiles, a major industry on which the Commerce Department is officially conducting a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following on the heels of steel and aluminum, is for the implementation of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rade partners including threatening and the application of tariffs. Korea, despite the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which was agreed to in September 2018, and continuous requests through talks involving high-ranking figures in politics and finance, has not received positive responses regarding tariff exemptions, raising concern in the automotive industry.

(1) Background

At the time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selecting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at the automobile, aircraft,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in addition to steel and aluminum, are at the core of U.S. manufacturing and industry. Thereafter the U.S., in addition to steel and aluminum in April 2017, launched on May 23, 2018 a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n imported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within 270 days after it is started (02.19.2019), the U.S. will either decide to impose a maximum 25% tariff or restrict imports in other way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roducts included in this investigation are SUVs, vans, light trucks, and automotive parts. The big factors in categorizing the automotive industry as being subject to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ppear to be the U.S. trade deficit in the automotive industry, increase in the market share of imported cars in the U.S. car market, and the decline in R&D investment in the U.S. automotive market.

Auto Industry Imports Subject to Investigation under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Subject to Investigation	Category
Automobiles	SUVs, Vans, Light Trucks
Automotive Parts	An unofficial list of 6 categories and a total of 414 products announced by the Commerce Department's Office of Transportation and Machinery (6 categories: Sashes and drive shaft parts, automotive electronics/electrical parts, automotive tires and tubes, chassis and parts, engines and parts, other parts)

Data and Sources: U.S. Department of Commerce, USITC, KITA

When categorized by HS Code, the top category in U.S. trade deficit in 2017 was passenger cars, and automotive parts category was no. 8. The share of imported automobiles sold in the compact automobile market in the U.S. was 48%, and the share of American-made cars was 52%.

Top 10 U.S. Trade Deficit Categories in 2017

Ranking	HS Code	Product	Amount
1	8703	Passenger cars	-1,236
2	2709	Petroleum products	-1,111
3	8517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780
4	9801	Other	-595
5	8471	Computers	-587
6	3004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445
7	9403	Other furniture	-204
8	8708	Automotive parts	-201
9	8528	TV	-195
10	9401	Chairs	-187

Unit: \$100M

Data: U.S. Department of Commerce, KITA

Also, whereas the R&D investment in the automotive industry by U.S. manufacturers including GM and Ford decreased by about 45% compared to the 1990s, R&D investment in the automotive industry by Asian and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has generally been trending upward. From the standpoi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prioritizing U.S. industry and putting forward aggressive trade policies, such difficulties facing the U.S. automotive industry was an issue that needed to be resolved.

(2) Progress and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After the investigation into the automotive industry was ordered, approximately 2,300 comments were submitted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by the governments, companies, and agencie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Also, in July 2018 a public hearing was held with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s and companies of many countries in attendance, and of the 44 organizations represented, 43 organizations, excluding the United Automobile Workers of the U.S., expressed opposition. Those who expressed opposition emphasized that the measures to impose tariffs on the automotive industry will not only be a drag on the U.S. economy, but also lead to confusion in the automotive industry's global

supply chain and aggrav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its allies.

When the timing of President Trump's order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s considered, it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upcoming renegotiations of trade agreements with Canada, Mexico, EU, and Japan, or as a strategy to put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tariff rates for the auto industry, but if a high tariff rate of 25% is imposed on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it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blow to Korea, which has a high volume of auto exports to the U.S.

Below are the amended parts of the Korea-U.S. FTA related to the auto industry. The amended parts are where the Korean government made concessions to the U.S.

- ▶ 25% tariff on Korean-made pickup trucks, which had been set to be phased out by 2021, to be extended by 20 years through 2041
- ▶ Automobiles manufactured in the U.S. that have passed U.S. safety standards and not Korean standards can be imported into Korea, and import limit is increased to 25,000 vehicles per U.S. company to 50,000 vehicles
- ▶ It was decided that Korea will consider U.S. standards and global trends when establishing greenhouse gas standards that will be in effect from 2021 to 2025

Prior to the Korea-U.S. FTA Amendment and Modification negotiations in 2018, Korea's goal was to have an amendment where the U.S. side accepts a tariff exemption related to Korea's auto exports to the U.S. However, despite reaching an agreement on an amended Korea-U.S. FTA that is friendly to the U.S. auto market, Korea regrettably was unable to get an exemption on the imposition of high tariffs on automobiles.

On September 24, 2018, during the Korea-U.S. summit, the presidents of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negotiation plan for the amendment of the Korea-U.S. FTA. On this day President Moon Jae In, explaining to President Trump that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is not large compared to other major automobile producing countries and is instead decreasing, and that 51% of Korean automobiles exported to the U.S. are manufactured in the U.S., requested an exemption on automobiles with respec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In fact, Korean auto companies, excluding indirect employment, have created 110,000 jobs and have invested over \$10 billion in the U.S.

Specifically, Hyundai Motor Company and related suppliers have employed over 25,000 people in the U.S., and Hyundai dealers have provided an additional 47,000 jobs. The number of Korean cars exported to the U.S. last year was 720,000, but if a 25% tariff is imposed on imported cars, it is expected, according to analysis, that Korean cars exported to the U.S. will decrease by 22.7%, or approximately 160,000 vehicles. This is expected to harm not only corporations but U.S. consumers as well, and many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Korean companies have expressed difficulties.

On November 13, 2018 President Trump reviewed and discussed with White House aides an investigation report submitt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but as yet there have been no issues that have changed or additionally made public with respect to tariff measures.

(3) Outlook

Experts have predicted that if a 25% tariff on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is finalized after the Commerce Department's investigation, consumers will also be harmed, not to mention corporations. The expectation is that if the tariff is imposed, cars manufactured in the U.S. will temporarily benefit, but because there are parts that companies must unavoidably import, even if manufacturing is relocated to the U.S., manufacturing costs and consumer prices will rise as a result.

Also, with strong opposition from allies, the U.S. appears to be treading lightly around the imposition of tariffs on automobiles, but in view of the situation where investigations and tariff measures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have been expanded from steel and aluminum into even the auto industry, it appears possible that tariffs will also be applied to aircraft, shipbuilding, and even semiconductors, which have been mentioned as being subject to investigation.

Meanwhile, according to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if a 25% tariff is imposed on cars and related parts imported into the U.S., and retaliatory tariffs are implemented by other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over 600,000 related jobs will be lost in the U.S.

3.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The U.S. recently implemented large-scale tariff measures against China in retaliation for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based on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The measures were a check on China,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U.S. trade deficit, and an expression of grievance against China’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U.S. implemented three tariff measures against Chinese imports between June and September of 2018, and China also imposed retaliatory tariffs against the U.S.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exports to the two countr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1) Background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which was enacted in 1974, was revamped in 1988 through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section sets forth the provision that the U.S. can impose tariffs or allow other retaliatory ways to restrict trade for unfair practices by trade partners, in order to protect its own industries.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has also been called Super 301 after the law was amended.

In August 2017, President Trump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ordering an investigation into China’s unfair practice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stealing technology. Later the U.S. Trade Representative hinted at the possibility that the U.S. will apply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to take wide-ranging retaliatory measures, including tariffs and import quantity restrictions.

In April 2018, announcing that it was confirmed after an investigation into unfair trade practices that China has been engaging in unfair trade against the U.S. with respect to technology transfers and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forewarned that a new bill will be introduced related to tariff measures totaling \$60 billion, a WTO complaint, and investment. In response, China also warned that it will immediately implement retaliatory tariffs on U.S. automobiles, avi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irst round of measures, the U.S. announced, with a list, that it will impose a 25% tariff totaling \$34 billion on 818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starting on July 6, 2018. The same day, China also decided to impose an additional 25% in tariffs totaling \$16 billion on 545 U.S. products. Following this with a second round of measures, the U.S. announced a list of 279 products subject to tariffs totaling \$16 billion starting on August 23. China then responded by announcing that it will apply \$16 billion in additional tariffs on 333 products. With retaliatory tariff measures accelerating on both sides in this way, President Trump, responding to China's successive measures, announced on September 17 a list of 5,745 products for a third round of tariffs, imposing tariffs on \$200 billion in Chinese goods. Unlike the first and second rounds, it was announced for the third round that the tariff imposed will be 10%, but will be increased to 25% starting on January 1. In response, China also announced that it will take measures imposing retaliatory tariffs of 5-10% on 5,207 products totaling \$60 billion.

Although the U.S. and China exchanged \$250 billion and \$110 billion respectively in additional tariffs over three rounds, President Trump emphasized on September 17, "If China takes retaliatory measures we will impose additional tariffs on approximately \$267 billion in Chinese goods."

Status of Tariffs Levied by U.S. and China Related to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Category	1 st Round		2 nd Round		3 rd Round	
	US	China	US	China	US	China
Duty Rate	25%	25%	25%	10%	10%*	5 - 10%
Categories	818	545	279	333	5,745	5,207
Main Categories	IT, Machinery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utomobiles	Equipment, Devices	Chemicals, Automobiles	Chemicals, Home appliances	Foods, Textile products
Total Amount	\$34B	\$34B	\$16B	\$16B	\$200B	\$60B
Effective Date	7.6.2018		8.23.2018		9.24.2018	

Note: * Increased to 25% starting on 1.1.2019

Data: Korea Customs Service,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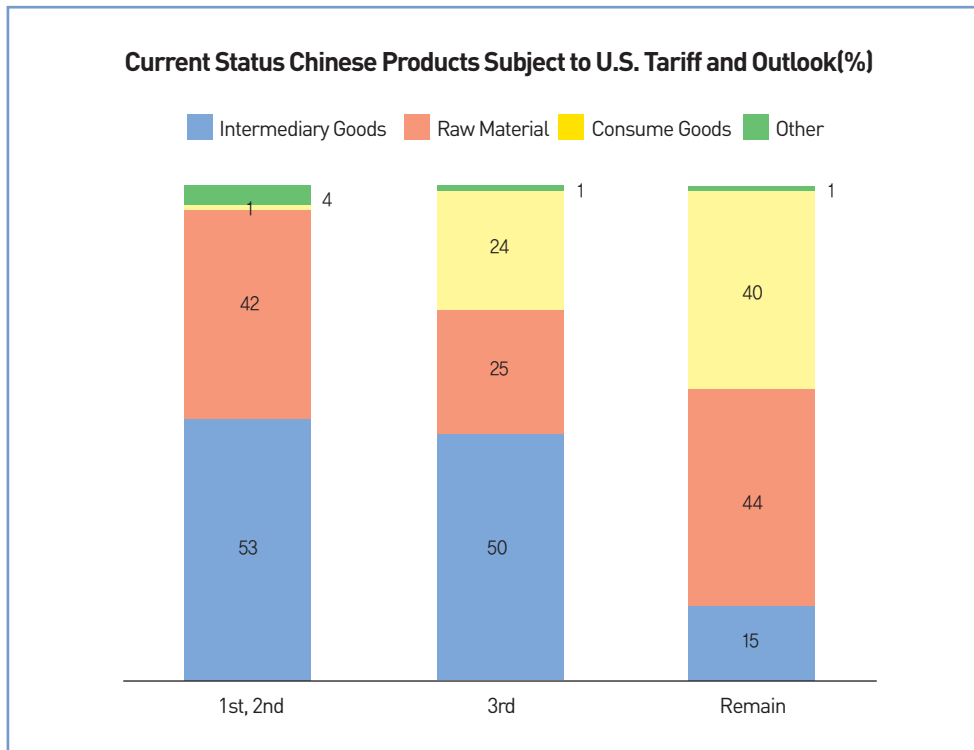
(2)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with the U.S. and China. Both countries are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with the U.S. making up 12% of Korea's exports in 2017, and China 24.8%. With many countries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ontinuing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oncern is rising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particularly dependent on exports to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products on the list for the first and second rounds of tariffs implemented by the U.S. were mostly materials that companies need to manufacture products, not products that consumers purchase directly, the impact was much greater on companies. On the list of products for the third round of tariffs were significantly more consumer goods compared to the first and second rounds. The third round included not only raw materials and intermediary goods but many products that consumers purchase directly, including foods, textiles, and home electronics, which will lead to more losses for Korean companies that export to the U.S. after manufacturing in China. Section 301 tariffs are based not on the country of export but on the country of origin, so Korean companies are experiencing far greater difficulties than previously i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products. Moreover, because intermediary goods made up 78.9% of Korea's exports to China in 2017 and capital goods made up 17.3%, which is a significant portion, Korean companies exporting materials to China have also been impacted.

Consumers are also being affected by the continuing tariff measures taken by the two countries, and companies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 rise in consumer prices and consumer market contraction.

In fact, after the U.S. implemented tariff measures against Chinese goods, many Korean companies have curtailed exports of products that are manufactured in China while expanding manufacturing capacity in the U.S. However, Korean companies in the U.S. are complaining that, due to the wide-ranging tariff measures, it is not easy to find other raw materials and intermediary goods that are not produced in China, nor is it easy to replace factory equipment when they are unavoidably made in China.



Data and Sources: PIIE, KITA

(3) Outlook

Some experts are predicting that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U.S.-China trade dispute will not end with the third round of measures but continue over the long term. If it does,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in China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to China.

Even amidst such a difficult situation, Korean companies are making efforts to come up with remedies to turn the U.S.-China “trade war” into an opportunity. Also, experts are saying that, even in this unfavorable situation, growth is possible for Korean products, which compete with Chinese products in the U.S. market. For example, China in 2017 had 60% of the world’s LED chip production capacity, but because China’s price competitiveness has weakened due to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riffs, it is very possible that American companies that had been importing LED chips from Chinese manufacturers

will change to suppliers in other countries. This is also one of the countermeasure plans of Korean companies with subsidiaries in the U.S.

Meanwhile, for China, if the U.S. and China mutually impose a fourth round of tariffs, the amount that it can sanction will be limited to approximately \$20 billion, as the volume of imported U.S. goods is small. This is only 1/10 of the tariffs that would be imposed on the \$200 billion as forewarned by President Trump. Accordingly,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reportedly considering implementing sanctions other than tariff measures, such as putting pressure on companies receiving U.S. investment and prohibiting certain products from being exported to the U.S. However, analysts predict that it also will not be easy for the U.S. to implement a fourth round of tariffs, as there is continued strong opposition from companies and consumers.

Amidst continued tension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on December 1 held direct talks on the trade dispute after the 2018 G20 Summit that was held in Argentina. Although the two leaders agreed on parts of a draft agreement through this meeting, analysts say that it was not easy to achieve clear and long-term results.

(4) Particulars on Related Support

In order to facilitate exports by Korean companies and to minimize difficulties, the Korea Customs Service distributed an advisory on exporting Korea-China joint-manufactured products to the U.S., and a related informational bulletin on special support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s, which contains instructions on how to search for rules of origin and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tariffs.

Federal Websites for Searching for Products Affected by Retaliatory Tariffs Against China

- ▶ How to search for products affected by the retaliatory tariffs imposed by the U.S. against China

1s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3248.pdf>

2nd: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inal%20second%20Tranche.pdf>

3rd: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_09.17.18.pdf

- ▶ U.S. general regulations on the labeling of the country of origin (19 CFR 134)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40971bfd069d396f05385>

[bb9g4491529&mc=true&tpl=ecfrbrowse/Title19/19cfr134_main_02.tpl](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40971bfd069d396f05385&mc=true&tpl=ecfrbrowse/Title19/19cfr134_main_02.tpl)

- ▶ U.S. system of pre-determination of country of origin and tariff classification pre-screening

<https://erulings.cbp.gov/home> ⇒ Click 'Begin Application' at the bottom

- ▶ Search system for U.S.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cases

<https://rulings.cbp.gov/home> ⇒ Enter product name in the search box

Process of Verifying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s and Advisory for Companies 1

1. Verify whether product to be exported to the U.S. is a "Korea-China joint manufactured product" or a "product made by mixing with Chinese-made materials" (hereinafter China-related product)

2. Review whether the China-related product's country of origin is Korea or China

Agencies to Utilize

- Consultation on rules/criteria for country of origin --> Korea Customs Service Import and Export Business Support Center
- Application for country of origin pre-determination service --> Korea Customs Service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Department

3. Utilize Customs Service consultation to comprehensively examine whether the rules of origin under the Korea-U.S. FTA are met

Met: Apply for application of preferential rate under the Korea-U.S. FTA for U.S. customs clearance

Not met: After reviewing whether a general certificate of origin(non-preferential) can be issued(made in Korea); if it can be issued, the product is exempt from retaliatory tariff when clearing customs

Materials to be Utilized

- See general U.S. rules of origin (19 CFR 102/132) :
If 2 or more countries are involved, determin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ses under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Determination of substantial transformation is made based o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product's name, attributes, method of use, previous CBP determinations of country of origin, court decisions, and CBP interpretation
- Utilize the U.S. customs authority(CBP)'s Country of Origin Pre-determination System
- Utilize the U.S.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Case Search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Process of Verifying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s and Advisory for Companies 2

4. If determined to be made in China, verify whether the exported product is subject to retaliatory tariff

Materials to be Utilized

- Refer to U.S. list of Chinese products subject to tariff (First-third rounds)

1st Round (07.06.18, 818 products)

2nd Round (08.23.18, 279 products)

3rd Round (09.24.18, 5,745 products)

5. If a product is subject to the retaliatory tariff, review the accuracy of HS classification

(Examine possibility that the product will be classified as excluded from the retaliatory tariff)

Materials to be Utilized

- Utilize the U.S. customs authority(CBP)'s Tariff Classification Pre-screening System
- Utilize the Korea Custom Service(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s Advance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system

6. Comprehensive assessment on whether a product manufactured through a Korea-China joint manufacturing process is subject to retaliatory tariff

--> Utilize the company's import/export management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4. SAFEGUARD: WASHING MACHINES

The U.S. safeguard measures against washing machines and solar panels and module products, as of December 2018, is one of the issues where Korean companies concerned continue to suffer losses.

On January 22, 2018, President Trump invoked safeguard measures, i.e. emergency restrictions on imports, against Korean and other imported washing machines. Specifically, the measures impose tariffs of 20% in the first year, 18% in the second year, and 16% in the third year on imported Korean washing machines, based on a yearly volume of 1.2 million units. For excess volume, additional tariffs of 50% in the first year, 45% in the second year, and 40% in the third year must be imposed.

(1) Issues in Dispute and Background

Whirlpool, the U.S. home appliance manufacturer, attempted to have tariffs applied to Korean-made washing machines through the WTO's appellate body, and when the effort failed the company petitione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for safeguard(emergency measure to limit imports temporarily). The ITC made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on material harm to domestic industry,"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safeguard measures, and as a result Korea continues to face difficulties in exporting washing machines to the U.S.

On October 18, 2017, Whirlpool petitioned ITC to impose a 50% tariff for 3 years on washing machines exported by Samsung and LG to the U.S. The company had also asked the ITC to impose a 50% tariff on washing machine parts as well, and to set a quota on imported parts.

In 2011, Whirlpool claimed that Korean companies were receiving unfair government

subsidies and selling products in the U.S. at below-market pric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mposed an anti-dumping duties on Korean washing machines in response, but Korea filed a complaint with the WTO in 2013, and with Korea ultimately winning the WTO appeal ruling in September 2016 on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on washing machines, the unfair protectionist trade measures were expected to be rectified in the future.

However, in May 2017 Whirlpool petitioned the ITC for safeguard on washing machines, and with the ITC making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on material harm to the domestic industry,”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on washing machines were implemented as of January 22, 2018.

Although safeguard applies to all companies exporting washing machines to the U.S., because Whirlpool submitted materials related to Samsung and LG in support of its petition, safeguard is interpreted as being aimed at these two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responded through a statement, “Prohibiting the importing of washing machines will result in limited choice, increase in price, and limited supply of innovative products, and this will ultimately have a negative effect on American consumers.”

LG Electronics also said through a statement, “Whirlpool submitted the recent petition because it is unable to compete with a leading global brand like LG,” emphasizing that the action “limits the choice of consumers.”

It has been 16 years since the ITC last held a public hearing on international safeguard measures, which the U.S. government has not viewed favorably in the past due to concerns about backlash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Accordingly, the exceptional present situation is viewed as being closely related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nce of protectionism, and since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his intention to revive American manufacturing and step up trade protectionism, ITC has not backed away from implementing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on Washing Machines

Category	Finished Products (TRQ)			Parts(TRQ)		
	Quota	In-quota Tariff	Over-quota Tariff	Quota	In-quota Tariff	Over-quota Tariff
Year 1	1.2M units	20%	50%	50,000 units	0%	50%
Year 2	1.2M units	18%	45%	70,000 units	0%	45%
Year 3	1.2M units	16%	40%	90,000 units	0%	40%

Source: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Recent Situation and Responses

In the first half of 2018, share of the U.S. washing machine market was led, in order, by Samsung(19.1%), LG(17.2%), and Whirlpool(16.7%). Whirlpool, which petitioned for safeguard measures, saw a 0.6% decline in its market sha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s operating profits falling, and so the result has been that U.S. companies, not to mention Korean companies, are also suffering losses.

Opposition to the safeguard measures have been expressed in some quarters in the U.S. as well. Both Samsung and LG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building or taking over manufacturing plants in the U.S., and those opposing the safeguard measures have raised concerns that if the shares held by the Korean companies in the U.S. market are impacted through the measures, the Korean companies may be reduced in size or withdraw from the market, which could lead to loss of jobs.

As claimed by Korean companies and many organizations, American consumers are also being harmed. The reason is that although the safeguard was invoked against certain imported washing machines including Korean washing machines, the prices of even washing machine products that have not been subject to the safeguard sanctions have gone up. Among U.S. consumer price index items, according to a study by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index for laundry equipment increased by 17% in 3 months from May 2018. Not only is this the only double-digit rate of increase since 2006, it represents an 8.4% increase even when compared to May 2017, making this rate of increase the highest in the last 5 years.

Although the U.S. expected that U.S. jobs will be created through the safeguard measures,

experts have put forth the opinion that if the price increases on approximately 10 million washing machines that are sold yearly are taken together, the ultimate effect is similar to consumers bearing the cost of creating jobs.

On May 14, 2018, the Korean government formally filed a WTO complaint that the safeguard measures taken by the U.S. against Korean washing machines were unfair. The safeguard measures were deemed to be in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 and referred to the WTO dispute resolution process. Before bringing the complaint, the Korean government made a request to the U.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safeguard measures but the request was not accepted, and on April 6 notified the WTO that Korea will suspend \$480 million yearly in concessions on American-made imports. Retaliatory trade measures such as the suspension of concessions are possible only after 3 years from the date the safeguard was invoked, but they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if the WTO case is won.

(3) Outlook

The Korean government forecast that the additional tariff burden on Korea's washing machine exports due to the safeguard measures taken by the U.S. will amount to \$150 million a year. In particular, Samsung and LG, whose yearly volume of washing machines exported exceeds \$1 trillion a year, have been significantly impacted by the safeguard measures.

Safeguard measure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WTO's Agreement on Safeguards. However, because the agreement does not spec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n increase in imports, which is a factor in safeguard measures, the interpretation can differ between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exporting country that is subject to investigation. Therefore, the country that has been harmed by the safeguard measures can take remedial measur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officially filed a complaint to the WTO and is currently awaiting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afeguard measures going into effect,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have transferred overse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production volume subject to the tariffs, but continue to be burdened by the high tariff rates for volumes produced in Korea.

5. SAFEGUARD (SOLAR ENERGY)

Based on the results of a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which concluded that U.S. industries have been harmed significantly due to a surge in imports of solar energy products, the U.S. administration on January 22, 2018 implemented safeguard measures against all solar panels, modules and cell products imported into the U.S. Tariffs will now be imposed on solar energy-related products from all countries including Korea. For solar energy module products, the imposed tariff will be 30% and then decrease by 5% each year over 4 years, and for cell products, the tariff will be 30% on volumes exceeding 2.5GW, and the tariff will also decrease by 5% each year over 4 years.

(1) Issues in Dispute and Background

In April 2017, Suniva and SolarWorld, solar cell manufacturers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S., petitioned the USITC for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The companies, claiming that due to price undercutting by Chinese and Korean solar cell manufacturers, the market share held by the related industry in the U.S. dropped from 21% to 11% and that 4,800 jobs have been lost since 2012, petitioned the agency to impose import duties on solar cells and panels manufactured overseas. Thereafter, ITC conducted a formal investigation process, and notified the WTO in May that it is considering safeguard measures.

On January 22, 2018, the U.S. decided to implement safeguard measures against imported solar energy products along with washing machines.

Solar Energy Safeguard Measures

Category	Finished Products (TRQ)			Modules (Tariff)
	Quota	In-quota Tariff	Over-quota Tariff	
Year 1	2.5GW	0%	30%	30%
Year 2	2.5GW	0%	25%	25%
Year 3	2.5GW	0%	20%	20%
Year 4	2.5GW	0%	15%	15%

Source: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Latest Situation and Reactions

The U.S.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in advance of a public hearing for domestic companies held in 2017 prior to the safeguard being implemented, has said in a letter tha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import restrictions will bring significant social costs by leading to a downturn in the U.S. solar energy industry and a loss of 88,000 U.S. jobs.” Because Korean solar energy products are globally competitive, the letter said, product prices will rise as a result of the safeguard measures, which could instead lead to a contraction of the U.S. solar energy industry and a decline in investment in solar industry facilities in the U.S.

In fact, U.S. solar energy companies Cypress Creek Renewables LLC and South Current have decided to postpone or cancel investments of \$1.5 billion and \$1 billion, respectively, because their profitability declined after the safeguard measures were implemented. This is reportedly more than twice the \$1 billion in increased investments made since the safeguard measures for the expansion of solar panel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whose position is that Korean-made solar cells do not meet the standards for “sudden, unforeseen surge in imports” and “cause of serious harm,”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safeguard measures, emphasized that the Korean products are priced 15% higher on average than other foreign products from Malaysia and Vietnam, etc.

Domestic solar industry professionals, including those affiliated with Korea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and Hanhwa Q CELLS, have put forth the claim that Korean and U.S. companies are not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because the American companies are focused on installation of household panels, while Korean companies are focused on the power generation business.

Within the U.S. as well, 69 members of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ent a joint letter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xpressing opposition to import restrictions on foreign solar cells.

Meanwhile,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fter accepting applications through March 16, 2018 from concerned parties for product exclusions, approved, through the Federal Register on September 19, the applications for the exclusion of 8 solar energy products of certain sizes and uses. And so 8 solar energy products will be exempt from the safeguard, and their HS codes will also be changed, the USTR advised. Included in the excluded products are frames for solar panels under 455W; built-in electrical parts other than cables, connectors, and batteries that do not exceed 950mm in length, whose width is greater than 100mm and less than 255mm and whose surface area is less than 2,500mm; and products composed of pressed and laminated tempered glass. Product exclusion was also approved for solar cell panels.

As with washing machines, the Korean government on May 14, 2018 filed a WTO complaint over the U.S. safeguard against solar energy. Results will be announced in May at the earliest, and even if a ruling is made in Korea's favor, it will take another 3 months or more if the U.S. files an appeal.

(3) Outlook

The U.S.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claimed, “Although the competitiveness of the solar energy industr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federal government’s tax incentives and cheap solar panel imports, with \$6.8 billion invested in 2017 for large-scale additional construction of solar energy facilities, approximately 23,000 jobs will be lost in 2018 due to high tariff rates imposed on imported solar panels and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solar energy industry.”

In 2017, Korean-made modular solar energy products, including solar cells, modules, and panels, made up the second-largest share of the U.S. import market, and non-modular products held the seventh-largest market share. Korean volume of modular product exports to the U.S. in 2017 was \$1.1 billion, and non-modular products approximately \$5 million. Thus, as Korean companies make up a larger share of the U.S. import market for modular solar energy product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more significantly harmed than companies of other countries that export to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imated that the U.S. safeguard measures will subject Korean washing machine exports to \$330 million in additional tariffs.

Meanwhile, some have also predicted that importing costs will go down due to the announcement of product exclusions, which will enable companies to focus more on investment and development. As it is still possible for additional product exclusions to be announced after applications for exclusion from the safeguard product list have been reviewed, Korean companies exporting solar energy products to the U.S. would need to constantly watch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It takes an average of about 2 years for the resolution of a WTO dispute. Experts say that, given that the durations of the U.S. safeguard measures against washing machines and solar energy are 3 and 4 years respectively, Korean companies will not be able to avoid losses for the entire period of the WTO process, and even if Korea wins, there is no way to compensate companies for losses incurred other than imposing retaliatory tariffs, so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process is limited.

6. VISAS

With visa screening standard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tightened after the signing of the so-called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 (No. 13788) by President Donald Trump on April 18, 2017,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re facing significant challenges.

With screening standards sharply tightened pursuant to the executive order at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U.S. Department of Labor, the number of L-1A/L-B, E-1/E-2, and H-1B visa cases for which additional documentation is requested or which are rejected has increased, and site visit investigations have also increased. It appears that the personnel and hiring difficulties facing Kor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1) Resident Employee Visas (L-1)

There has been a consistent call for the need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for resident employee visas (L-1) from the current 3 years to 5 years. Although the validity period for resident employee visas has been extended from 3 years to 5 years starting on March 9, 2012 pursuant to an agreement reached after additional KORUS FTA negotiations, the period of stay for resident employee visas has not been extended from the current 3 years. Therefore, the period of stay, to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newly extended validity period (5 years) for resident employee visas, also needs to be extended to 5 years. Even though the visa validity period has been extended, in order to stay in the U.S. for 5 years the period of stay needs to be extended again after 3 years, which poses an inconvenience in business activities and a burden on member companies.

Rate of L-1A Visa Approval Rejections and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in FY 2017

Quarter	Visa Approval Rejection Rate	Rate of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1st Quarter(October-December)	12.8%	34.7%
2nd Quarter(January-March)	17.5%	39.2%
3rd Quarter(April-June)	19.7%	35.0%
4th Quarter(July-September)	21.4%	39.6%
Average	17.9%	37.1%

Data: USCIS, NFAP

Rate of L-1B Visa Approval Rejections and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in FY 2017

Quarter	Visa Approval Rejection Rate	Rate of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1st Quarter(October-December)	21.7%	46.4%
2nd Quarter(January-March)	28.6%	50.1%
3rd Quarter(April-June)	28.6%	39.8%
4th Quarter(July-September)	28.7%	47.2%
Average	26.9%	45.9%

Data: USCIS, NFAP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big jump in the rejection rate for L-1A and L-1B visas since April 2017.

The rejection rate for L-1A visas in FY 2017 continued to rise, and in particular, a comparison between the 1st and 4th quarters shows that the rate increased by close to 200%. Likewise, the rejection rate for L-1B visas, when the 1st quarter is compared to the 2nd, 3rd, and 4th quarters, the rejection rate increased by about 7%.

As a result, this has become an unexpected variable where, for Korean companies with U.S. subsidiaries, appointments of officers and employees from headquarters are delayed, posing problems for the companies' business plans.

(2) Resident Employee Visa(E-1) and Investor Visa(E-2)

As of November 2017, the number of cases of assistant manager and manager-level resident employee visa applicants being turned down has risen sharply, as the U.S. State Department and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em these positions to be “low level management or supervisory positions” which can be filled by U.S. workers.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because there can be situations in the future where visas are turned down even though an applicant is an indispensable employee in a key position. With stricter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1 visas, it has been difficult to secure needed personnel and to make hiring decisions. To give an example regarding eligibility requirements, it is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 that the U.S. portion of a Korea-based company’s yearly trade volume must be more than 50%, but trade volume can be less than 50% over a given year due to a sudden decrease in imports or other reasons. Taking such circumstances into account, KOCHAM members are asking for improvement as more flexible visa issuance requirements are needed, such as replacing this requirement with results over the past 3 years instead of evaluating the trade volume just for the applicable year.

Also, although for public corporations the initial standards for the issuance of an E-1 visa can be applied as in the case of other private corporations, visa review is individually conducted based on the eligibility of the resident employee, and thus, at present, the application of eligibility requirements cannot be waived even when replacing a resident employee doing the same work. Therefore, the current situation calls for measures where the visa will be issued without applying stringent eligibility requirements when a resident employee is replaced by another to carry out the same work, while affected public corporation can continue to conduct business as usual.

(3) Extension of Period of Stay for E-1/E-2 Visas

■ Issues

While the validity period for E-1/E-2 visas is 5 years, the period of stay(I-94) granted upon entry into the U.S. is only 2 years. Accordingly, in order to maintain a resident employee’s work period, which is normally 3 years, an application for a 2-year extension must be filed

after a 2-year stay for an additional 1-year stay. Even if the period of stay is automatically renewed for 2 years upon re-entry after travel overseas within the visa's validity period, there is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leave the country for an extension, and although the extension of status is possible while remaining in the U.S., the cost is significant.

■ Improvements Requested

Since the validity period for resident employee visas(E-1/E-2) is 5 years,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is needed where the period of stay(I-94) is extended for 3 years upon entry into the U.S., to conform to reality. (A grace period of 60 days is granted for making preparations for return to the home country, etc.) Also, extension of the period of stay for E-1/E-2 visas is an issue that is common to all countries, and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related law.

However, the positi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that they can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only to Korea with respect to obtaining/renewing and extending periods of stay for resident employee visas, so the situation calls for continued efforts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4) Professional Worker Visas (H-1B)

Because applications are received each year exceeding the visa quota, H-1B applicants must first go through a lottery process prior to their applications being considered. However, visa approval is not assured even after being selected in the lottery, and if additional documentation is requested during the review process, companies and employees must endure various inconveniences, including additional fees and the time it takes for document preparation and review. Also, the recent rise in the number of site visit investigations has increased pressure on the companies.

Rate of H-1B Visa Approval Rejections and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in FY 2017

Quarter	Visa Approval Rejection	Rate of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1st Quarter(October-December)	19.8%	17.3%
2nd Quarter(January-March)	17.3%	13.5%
3rd Quarter(April-June)	15.9%	22.5%
4th Quarter(July-September)	22.4%	68.9%
Average	18.9%	30.6%

Data: USCIS, NFAP

In FY 2017, the percentage of H-1B applications for which additional documents were requested was 68.9% in the 4th quarter, which far exceeds the average for the 1st, 2nd, and 3rd quarters. Even when considered as numbers in stead of percentages, there were a total of 63,599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during the 1st, 2nd, and 3rd quarters, but the total for the 4th quarter was 63,184, which is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Regarding such a dramatic increase in the rejection rate and requests for additional documents, the analysis of experts is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took some time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until personnel were put in place, and the incoming officials in charge started to review the applications in earnest thereafter.

Reasons for rejecting visa approvals are varied, but many times the main reason is that the job description is not specific or that the duties of the worker are not specialized. This is because it is deemed that an American residing in the U.S., not the foreigner who is applying for the visa, can fill the position. The salary level also greatly affects the evaluation, and the reason is that if the salary is low, a foreigner can take advantage of the low salary and take a job that would otherwise go to a U.S. citizen.

With the reviews becoming more stringent, resulting in delays not only in new applications but also in the process of H-1B extension applications and a rise in rejection rates, there have been reports of unavoidable returns to the home country due to a failure to renew after expiration of the 3-year period of stay, due to which losses incurred by applicants and employer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relation to the background of such tightening of review standards, it has been reported

that USCIS has handed down internal guidelines instructing “to be strict in reviewing extensions of H-1B visas, on par with review of new visa applications,” and so it is expected that more thorough standards will be applied even for applications for extension of existing visa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revious USCIS guidelines for H-1B visa renewals, which had adopted the “due deference policy” where deference was made to the previously approved petition as is unless special issues such as criminal acts were found in the documents previously submitted by the applicant, have been scrapped, and it appears that reviews will be conducted on a blank-slate basis, regardless of the review results at the time of the initial application. This tightening of the review standards is a part of the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Trump in April 2017, and is being applied equally to resident employee visas.

Also, an insufficient quota for professional worker visas continues to pose challenges in hiring good workers. Not only has the H-1B quota been exhausted faster than expected every year recently, there is now a real need for additional visa approvals commensurate with the demand for workers that has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the scale of trade and business between Korea and the U.S. following the KORUS FTA.

In March 2018, in advance of the Korea-U.S. FTA renegotiation, chief trade negotiator Hyun-chong Kim said, “Of the skilled worker visas the U.S. issued in 2017, 72% were Indian, and 10% were Chinese, while only 1% were Korean. We will continue to work toward separate skilled worker visas for Koreans.” And in July 2018, in a meeting of chief trade representatives with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izer, chief trade negotiator Hyun-chong Kim emphasized, along with other trade issues, that a separate visa benefit needs to be granted to Korea. However, there was nothing added to the amended Korea-U.S. FTA agreed to in September with respect to an employment visa exclusively for Koreans.

In relation to this, with the exchange of human resources increasing after the KORUS FTA went into effect, Korea, despite having entered into an FTA with the U.S., has not received the benefit of a special H-1B quota, unlike other nations with which the U.S. has entered into an FTA. For example, Chile and Singapore have received H-1B visa quotas of 1,400 and 5,400 each, and Australia has benefited from a separate employment visa(E-3) arrangement through FTA negotiations, securing 15,000 visas per year. Canada and Mexico, which hav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also have separate arrangements in place for TN visas, which are professional worker visas that are not subject to quotas.

On November 16, 2018,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nounced through the “Semiannual Regulatory Agenda”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that there will be a reform in the immigrant investor and employment visa system.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immigration document fees will be raised, and a revised plan on the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provision on E-2 visas, for which a minimum investment amount is not specified, will be made public in December 2018.

In the case of H-1B visas, an advance filing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2019. This is a system where, after preliminary summary applications are received online by employers, only those applications that are selected in a lottery are accepted in the second stage.

Also, the abolit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H-4 visas, which are issued to the spouses of H-1B visa holders, was finalized. Employment of workers who were issue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 under H-4 status will end starting next year.

Recent Status of Progress of Korean Professional Worker Visa Bill

■ Status of Progress by Year

A. 113th Congress (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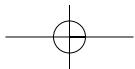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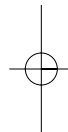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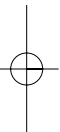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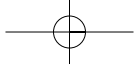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 (Separate Bill) Partner with Korea Act(quota 15,000) introduced in the House(April 2013) and Senate(July 2014). Secured support from 112 representatives in the House and 6 senators(Bill scrapped due to adjournment of session)
- (Inclusion in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 Visa quota of 5,000 for FTA countries was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 which was passed in the Senate in June 2013, but did not make it through the House and was scrapp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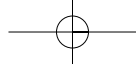
B. 114th Congress(2015-2016)

- Partner with Korea Act(quota 15,000) introduced in the House(February 2015) and the Senate(June 2015). Secured support from 81 House representatives and 6 senators(Bill scrapped due to adjournment of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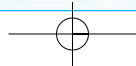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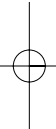
C. 115th Congress(2017-2018)

- Partner with Korea Act(quota 15,000) re-introduced in the House(April 2017) and Senate(June 2017). Secured support from 53 House representative and 3 senators(October 2017)
- In support of the bill's passage, the Korean government(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 is currently making efforts on all fronts to help expand support for the bill in the U.S. Congress, including △contacting key congressmen and senators and their aides, △professional efforts in the U.S. Congress through consulting companies, and △grassroots activities(with the cooperation of consulates general) by Korean American companies in various states
- However, the conditions for such efforts have worsened due to △differing Republican/Democratic positions on immigration, △the spread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anti-immigration policies, and △President Trump's directive to toughen requirements for, prevent abuse of, and improve the system for H1-B ("Buy American, Hire American" Executive Order of 4.1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orean companies active in the United States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runs a variety of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disaster relief, etc.

American Red Cross/LG Laundry Trailer/Food Bank...

LG Electronics employees regularly donate blood at the New Jersey Chapter of the American Red Cross, and operate a relief trailer, traveling to disaster areas so that residents who have lost their homes or electricity can use washing machines and dryers. They also provide several thousand pounds of food to underprivileged neighborhoods through local food banks.

World Environment Day: L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Day

LG has designated World Environment Day, which was designated by the UN, L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Day, when LG employees across the United States engage in activities cleaning up parks and trails in their respective areas.

In recognition of the contribution mad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fforts, the program was selected as a case of model business operations by the New Jersey Chamber of Commerce.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merica (SEA) saw regional offices across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 in the company's eighth Day of Service, an initiative that sees employees put work aside for the day and dedicate their time to local charity partner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y live and work. More than 3,600

employees took part this year, working to support initiatives benefiting residents in areas near SEA offic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initiative in 2014, SEA employees have contributed over 128,0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as part of the Day of Service program



Doosan



Doosan Heavy Industries and Doosan Infracore, members of the Doosan Group, are making hefty contributions to job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employs 200

Americans in New Jersey, Texas and Florida, while Doosan Infracore, which has acquired three business divisions, including Bobcat, from the major United States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company Ingersoll Rand, employs approximately 3,000. The 2009 expansion of its engine assembly plant in Georgia has also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stimulating the United States manufacturing industry.

Meanwhile,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Doosan Infracore are making contributions to the Asian University Women's Foundation, the New York Korean War Veterans' Society, New York University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le supporting the KACF, the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and Korean language schools in New Jersey, Texas, and Florida.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The SBC USA Office, which is the U.S. office of the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established a free class on the topic of “How to Create and Maintain an Online Shopping Mall” and held two classes in 2018 for local Korean Americans who are interested in creating or operating an online shopping mall.

The free class was started based on the idea that many Korean Americans are interested in operating an online shopping mall but do not readily have access to a suitable Korean language class, and was conducted jointly with lecturer Jeff Lee (president of Studio Sinabro), who is a local web design professional. The class was held in the meeting room of the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between 5.24-7.26(1st session) and 9.13 - 11.15 (2nd session) as 10 - week night courses (every Thursday 7:00 - 9:30PM), and was enthusiastically attended by 15-16 students, with not a single person dropping out until graduation.

Also, the class also provided guidance on how to source products from excellent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Korea, making efforts to help Korean Americans preparing to start online shopping malls gain knowledge encompassing the entire process from shipping mall creation to product sourcing and even operation through a single course.



POSCO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4, POSCO America has been operating a volunteer group called “With POSCO Nanumi” for the progress of Korean American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to create a better society.



“With POSCO Nanumi” reflects the meaning that “POSCO-Staff(Volunteers)-Society” can change the world when we move forward together hand in hand. The POSCO blue color signifies the power of unity, the orange color the joy and delight in sharing, and the green color balance and harmony. POSCO America, starting in December 2016 when it moved its headquarters from New Jersey to Georgia, has been actively engaging in activities that can help the local community.

The major activities in 2018 are as follows.

- 1st Quarter: Visited Foster Care Support Center, which supports children marginalized from society, and donated school supplies and organized donated goods
- 2nd Quarter: Visited the Sandy Springs Recycling Center, which works to create beautiful environment - friendly communities, and carried out activities separating recyclables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environment
- 3rd Quarter: Visited the Community Assistance Center, which provides assistance to low-income families, and organized goods for food sharing
- 4th Quarter: Visited FurKids Center, an animal rescue facility, and carried out improvement of facilities environment including painting and putting up Christmas decorations



Planned for 2019 are, in addition to activities to assist the underprivileged in the community, providing support for the Fisher House located in Augusta, Georgia to express gratitude to U.S. veterans including Korean War veterans. Fisher House, which has over 70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is a free lodging facility where families of veterans can stay when a veteran is hospitalized in a veterans hospital such as CNVAMC (Charlie Norwood VA Medical Center).

Kotra / LG Household & Health Care America, Inc.

HS2AS Art Collaboration CSR Project



KOTRA New York, in cooperation with QCA(Queens Council on the Arts) and LG Household & Healthcare, held an art collaboration design contest working with products from Korean companies, participated by new artists from the “HS2AS,” a QCA

program that supports low-income youths who are preparing to enter fine arts colleges.

This year, the U.S. subsidiary of LG Household & Healthcare, located in New Jersey, participated as the local Korean company sponsor, providing a \$10,000 in scholarships for the top prizes and other prizes. The works entered in the contest engaged the expectations of the participants with designs for the company’s own household item (Lucky Fiji detergent), which is awaiting actual rollout in the market, and a cosmetics (VDL) packaging that will soon be launched. Also, the contest enabled entry and judging utilizing an online platform, improving accessibility for the contest participants and fairness in the judging process. In the award and scholarship presentation ceremony held in Queens on December 12, 2018, 7 finalists participated and gave presentations on their design concepts, and an LG Household & Healthcare representative announced and presented awards to the final first and second prize winners and participation prizes(5 persons). The final first-place prize(\$3,000 cash prize) went to Calara Jeong, who highlighted the nature-friendliness and

clean image of the Fiji detergent with a simple blue-tone design.

This CSR was a private-public joint project that was conducted with an agency, local organization, and a private company participating, and through this program KOTRA anticipates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mage and enhancement of brand recognition for Korean agencies and companies with a presence in the U.S.

Also, these activities are a key program that realizes social value, boosting the morale of future artists through art collaboration projects with local artists from low-income backgrounds and instills a model image where we participate in the local society and carry out sustainable management related to Korean companies and brands.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ix(6) regional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major cities such as New York, Los Angeles, Seattle, Houston, Detroit and Atlanta. In each region, Korean Chamber has different names as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KOCHAM) in New York,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n Los Angeles,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in Seattle,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KCAH) in Housto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in Detroit,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n Atlanta.

Currently, with strong correlation and mutual benefits among the regional Korean Chambers, we are discussing to form the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A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About Regional Korean Chambers

(1)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KOCHAM)

- o Establishment: June, 1992
- o Number of Members: 111 companies
- o Chairman: Joo Wan Cho, LG Electronics America
- o Location: New York, New York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KOCHA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June of 1992, has grown to include more than 100 US-based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mport-export, banking, transportation, securities, insurance and construction whose headquarters are in Korea. Its mission is to fulfill a multi-faceted role and support our members to raise their management skills. In addition, we are also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diplomacy initiativ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and goodwill between the people and the business communit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KOCHAM is also dedicated to build clos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enterprises.

(2)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 (KITA)

- o Establishment: March, 1996
- o Number of Members: 131 companies
- o Chairman: Woong Bin Lim, KT America
- o Location: Los Angeles, California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KIT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on March 25th, 1996. KITA have promoted to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among member companies by provid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ts mission to better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members of KITA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has been a success. KITA is now an integral part of California's economy and will strive to contribute even more to said economy.

(3)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 o Establishment: April, 1995
- o Number of Members: 62 companies
- o Chairman: Jae Ha Yang, DY America, Inc.
- o Location: Detroit, Michigan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KCAM) established on April 1st, 1995 is a private organiza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Michigan which have mutual interests and benefit to promote network opportunities and exte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companies.

(4)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KCAH)

- o Number of Members: 42 companies
- o Chairman: Byung Sun Lee, Samsung Heavy Industries
- o Location: Houston, Texas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KCAH) is a meeting group of about 44 Korean

busines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Houston area. Its mission is to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extends network opportunities among the member companies.

(5)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 o Number of Members: 30 companies
- o Chairman: Myung Sik Kang, Hyundai Americas
- o Location: Atlanta, Georgia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KCCIG) is an organization whose members are mainly employees of Korean companies with its HQ in Korea. KCCIG holds General meetings four(4) times a year and Board of Director meetings twice a year in order to provide an opportunities to enhance networks among member companies. In addition, KCCIG also provide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through holding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6)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 o Establishment: October, 1980
- o Number of Members: 8 Companies
- o Chairman: -
- o Location: Seattle, Washington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KTAPN) is a private association established on October, 1980 among the Korean companies in Northwest regions(WA, OR, AK, ID, MT). Since its establishment, KTAPN has promoted friendship and communication among members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diplomacy initiatives to build greater awareness and goodwill between the people and the business communities of Korean and the US.

2. Member list of Regional Korean Chambers

(1)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AMOREPACIFIC U.S. Inc.
 Asiana Airlines
 aT Center New York
 Bank of Hope
 Best Home Fashion Inc.
 CESNA GROUP INC.
 Choi & Park, LLC
 Citrin Cooperman
 CJ America, Inc.
 CJ CheilJedang
 CJ Logistics U.S.A. Corporation
 CKP, LLP
 Daesang America, Inc.
 Deloitte Touche LLP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
 Doosan Machine Tools America
 Econo Agency
 Ernst & You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PMG Inc.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New York Office
 Hanjin Co., Ltd
 Hankook Tire America Corp.
 Hanmi Bank
 Hansol America, Inc
 Hanssem Corp.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Hanwha Asset Management(USA) Ltd.
Hanwha Holdings(USA) Inc.
Hey Korean, Inc.
HICO America Sales and Technology, Inc.
Hiossen, Inc.
HONORS HAVEN RESORT & SPA
HR Cap, Inc.
HS Ad America
Hyundai Corp.(U.S.A.)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Co., Ltd
Hyundai Merchant Marine America
Hyundai Motor America
Industrial Bank of Korea
KB Insurance Co. Ltd. US Branch
KBFG Securities America Inc.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Kia Motors America, Inc.
Kiswire Trading, Inc.
KLC Architects, PC
KOLON USA
Kookmin Bank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USA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merica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orea Tourism Organization New York Office
Korea Trade Insurance Corp.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rean Air
Korean Reinsurance Company New York

KPMG LLP
 Kyobo Life Asset Management(America) Co., Ltd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LG CNS America Inc.
 LG Electronics U.S.A. Inc.
 LG Household & Health Care America, Inc.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Lotte New York Palace Hotel
 Mirae Asset Securities (USA) Inc.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ew York Country Club
 NH Investment & Securities America, Inc.
 Nixon Peabody LLP
 Nong Hyup Bank New York Branch
 OAWINS Group
 Pantos US
 PLUS CAREER INC
 POSCO America
 POSCO DAEWOO AMERICA CORP.
 Samsung C&T America, Inc.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Samsung SDS America, Inc.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Samyang Corporation NY Office
 SeAH Steel America, Inc.
 Secur-All Insurance Agency
 SGI New York Representative Office
 Sheppard Mullin
 Shinhan Bank New York Branch
 Shinhan Investment America, Inc.
 Simon Gluck & Kane LLP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SK USA, Inc.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mart Space LLC
Smith, Gambrell & Russell, LLP
Solomon Insurance Agency
Steptoe & Johnson LLP
Sunny Marketing Systems, Inc.
The Bank of Korea
The Choi Law Group, LLC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ranswestern Commercial Services
Traub, Lieberman, Straus and Shrewsberry, LLP
Unicorn Graphics
Unicorn Insurance Agency
Wicked Fashions, INC.
Winiadaewoo Electronics America Inc.
Woori Bank New York Agency
Yoon & Kim LLP

(2)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California (KITA)

&TV Communications Inc
ACI Law Group
AIR COURIERS INT'L INC
AllMERITS Financial
Andrew Seo CHB
Angeles Contractor Inc.
ASIANA AIRLINES
AT CENTER
Bank of Hope
BKT (FIL MAX INC)
CAL-KOR Insurance

CBB Bank
 CHA Health Systems Inc
 CHUN-HA INSURANCE SERVICES
 City Insurance Services
 CJ AMERICA
 CJ korea express U.S.A. corporation
 CKP KEVIN CHUN, PARTNER
 COLLIERS INTERNATIONAL
 CUCKOO Electronics America Inc
 DB Group
 Deloitte TAX LLP
 Delta Air Lines
 Dimax Express Inc.
 DK Express
 DKS Global USA INC
 DMT (ALLINK, INC.) Digital Multimedia Technology Co. Ltd
 DONG BU INSURANCE
 Dongbu USA, Inc.
 Dongkuk International, Inc
 Dongkuk University LA Branch
 Doublju
 DRB America Inc
 E-MART AMERICA INC.
 ENTAS AMERICA INC DBA SAPPORO SUSHI & GRILL
 Everworld
 EXBON DEVELOPMENT INC
 FNS
 FRONTIER LOGISTICS SERVICES
 Glory Calendars/Helen park & Associates
 GS GLOBAL
 G-SMATT GLASS INTERACTIVE SMART DISPLAY SYSTEM
 GWANGYANG 불고기,
 GYEONGBUG OFFICE L.A.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GYEONGNAM OFFICE L.A.
HANA TOUR
Hanil Development Inc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
HANMI BANK
Hanwha West (Properties, LLC)
HITE JINRO AMERICA
HONGJIN CROWN AMERICA, INC
Hotel Lotte Co., Ltd L.A. Office
HYOSUNG AMERICA, INC
HYUNDAI CORP (Hyundai Platform Corporation)
HYUNDAI SHIPPING USA
I-ED MAGAZINE
InBody USA
INNOVATIVE OFFICE SOLUTIONS
Jaseng Center
JC&Company LLP
JINIL INT'L (LABO USA INC)
JJ PERFECTION, INC
JOB KOREA USA, INC
KAREN JUNG LAW FIRM
KB Insurance Co.
KBDC-LA
Kbiz Corporation
KBS
KCAB
KEB Hana LA Financial Corp
KHIDI USA
KIA USA
Kim & Lee LLP CPA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USA
KORAM Insurance Center Inc.
KOREA AEROSPACE INDUSTRIES, INC.

KOREA GINSENG CORP
KOREA TOURISM ORGANIZATION LA OFFICE
Korea Trade Insurance Corp.
KOREAN AIR
KOTRA L.A.
KPMG LLP
KT America, Inc.
Law Offices of Christine C Lee & Associates Inc
Lee,Hong,Degerman,Kang & Waimey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LG International (America), Inc.
LOTTE Beverage America Corp.
LOTTE INTERNATIONAL AMERICA CORP
MBC America
MIRAEASSET Wealth Management
MKC Appraisal Inc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avien Inc
NEXEN TIRE AMERICA, INC
NGL Transportation LLC
NH America
NONGSHIM AMERICA
NS SHOPPING
OTTOGI AMERICA INC
PACIFIC CITY BANK
PARIS BAGUETTE USA Inc.
POONGSAN AMERICA
POSCO DAEWOO AMERICA CORP
PRIME METALS USA
PULMUONE FOODS USA
ROCKET ELECTRIC CO., LTD. L.A.
SAMCHULLY AMERICA
SAMSUNG C&T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SAMTAN USA INC.
SBS
SEAH STEEL
SHINHAN BANK
SK networks America, Inc
Sperry Commercial Global Affiliates
Staz USA
Taihan Electric USA Ltd
TRIO PINES (USA), INC.
Uniti Bank
URI Global
URIMAN INC
WANG GLOBALNET DBA HANMI
Western Diamond Tools, Inc
WINNIE CONNIE CO LTD
WOONGJIN,INC
WOORI AMERICA BANK
WOORIBANK L.A Br.
X-GOLF America, Inc.
Yeil Accounting America LLC

(3) Korean Companies Association in Michigan (KCAM)A & W Products, Inc.

AinsTech Inc
AMS America Corp.
Austem USA
BASF Corporation
C.K. Yoon PLLC
Chunil Engineering Co., Ltd.
COAVIS USA INC.
CTR America

Daedong System
 DAEWON
 DMC Motors
 Driving Display
 DY America Inc.
 DY Piston USA, INC.
 Eagle Ottawa by Lear
 EAST WEST TRAVEL
 ERAE Automotive Systems Co. Ltd.
 Ford Motor Company
 GLOVIS
 GNS America
 HANDS USA CORP.
 HANHO AMERICA CO.,LTD.
 Hankook Tire America Corp.
 Henkel corporation
 HWASEUNG R&A
 Hyundai Powertech
 Hyundai WIA America
 INZI Controls Detroit LLC
 JM USA INC.
 JPC Automotive (USA) Co., Ltd.
 JPC Automotive (USA) Co., Ltd.
 Kalink Co., Ltd
 KB Autosys Co. LTD
 Keyang Electric Machinery, Co. Ltd
 Kintetsu World Express (U.S.A.), Inc. - Central Region
 KM&I America, Inc.
 KOTRA Detroit
 Kwangjin America Inc.
 Kyungshin Holdings America Corporation
 Logos Logistics Inc
 Lotte Advanced Materials

About Consultative Korean Chambers in the U.S.

Mando America Corporation
Mobis North America
Myunghwa Ind. Co., Ltd.
Nalara Corp.
POSCO DAEWOO AMERICA
Samjin America Corporation
Schaeffler Group USA
SeAH Global Inc
Semyung USA
SIGMA INTERNATIONAL
SIMPAC AMERICA CO., LTD
SJM NA INC
SL America
Taeyang America Corp.
Terry Barr Sales LLC
TREK INC.
UHY Advisors
Vogel Advisors
VSP Logis Inc.
Wooshin North America, LLC

(4) Korean Company Association of Houston (KCAH)

Atinum E&P INC
Baker & Hughes
Baker & McKenzie LLP
BBVA compass
CrucialTec USA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 Co. Ltd.
Dongsung Finetec America
E1 America LLC
E1 Corporation

Hyosung Holdings USA
Hyundai America Shipping Agency
Hyundai corporation USA
Hyundai Global Service America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Steel USA, Inc.
IYB Tech
KLICHS LLP
KOEI
KOEI (DNV-GL)
KOEI (Schlumberger)
KORAS
Korea World
KRISO
KYH
Lotte Chemical
MOFA
OCI International Inc.
POSCO Daewoo America Corp.
POSCO Houston Office
PUMYANG USA
Samsung C&T Corporation
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
Samsung Heavy Industries
Sejin Heavy Industries
SES
SK E&S Americas
SK Gas
SK Innovation Co., Ltd.
SK Shipping
STX Service Americas LLC
TK Fitting USA, Inc.
Toyo Korea America LLC

(5)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Georgia (KCCIG)

ATNS USA
Deloitte
Desco USA Corp.
Doosan Corporation Industrial Vehicles
Everdigm America, Inc
GS Caltex
Hanwha L&C
Hung-A Co. Lt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
Jinsung T.E.C.
KEB Hana
KOLON USA
Korean Air
KOTRA
KPMG
KPX CHEMICAL
LG Electronics USA
LG Hausys
LG Chem, Ltd.
Mando America Corporation
MCNS (Mitsui Chemicals & SKC Polyurethanes Inc.)
MOORIM USA
PACTRA USA
POSCO
POSCO DAEWOO
Shinhan Bank
SKC
Superior Essex
Yunchang Engineering Co., Ltd.

(6) Korea Trader's Association of Pacific Northwest (KTAPN)

Asiana Airlines

Hyundai Merchant Marine(HMM)

JW Pharmaceu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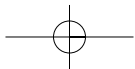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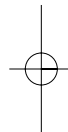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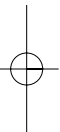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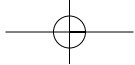
Koreaa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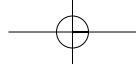
Korean Air

NAU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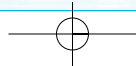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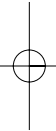
NH HAY

Samsung Electronics Co., Ltd.





Activities of KOCHAM



Requesting U.S. Government and its agencies to improve the business difficulties that our members encountered while conducting business in the USA.

KOCHAM has been helping members cope with and resolve the inevitable problems of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y meeting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Washington DC.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KOCHAM host several annual events, such as Annual Golf Tournament and Dinner Party, to encourage and facilitate socializing and connecting between its members, governmental agencies and media representatives.



Contributing to active bilateral exchange i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and to build closer ties between Korean and U.S. firms

KOCHAM provides valuable direct services to our constituents by holding monthly seminars dealing with diverse economic/business topics, networking events, and othe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to support members to develop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Provides resources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through several means

KOCHAM has provided an annual Summer Internship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f second generation Korean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foster close cooperation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addition, KOCHAM has been supported The Korean Parade, an annual tradition, offering New Yorkers the opportunity to observe and share the culture of Korea, each year.



Operating the weekend Korean School program that designed to prepare Korean-American children planning to visit or return to Korea

This weekend program is designed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our members' children as well as their Korean-American peers. In particular, through this program, children are prepared to successfully adapt 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in the event they visit or return to Korea.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미한국상공회의소
책임편집 KOCHAM 통상분과위원회
인쇄 서울 하나로기획(82-2-2269-8136)

※이 책자의 판권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KOCHAM이
소유한다

